

(뒷면)

(측면)

(앞면)

<p style="text-align: center;">주 의 (주의 내용 기재) (한글 14 point 고딕체)</p>	<p style="text-align: center;">과 체 명</p> <p style="text-align: center;">2 0 2 4</p> <p style="text-align: center;">식품의약품안전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tr><td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최종보고서</td><td style="width: 30%;"></td></tr></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The National Survey of the Drug and Substance Abuse Attitude</p> <p style="text-align: center;">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p> <p style="text-align: center;">식품의약품안전처</p>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주 의

1. 이 보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보고서 내용을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해당 주관부서 또는 연구책임자와 사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이 보고서를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손애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11.30

주관연구기관명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손애리(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민혜(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준용(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보조원	박소현(창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중권(Rutgers University)
보조원	이소정(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연구수행기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
국문 요약문	1
Summary	3
연구 결과 요약	5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5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5
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6
3절. 국내·외 문헌 검토 결과	6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8
1절. 연구 방법	8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9
1절. 2024년도 성인 마약류 피해인식 조사 결과 요약	9
2절. 청소년 조사의 주요 발견	12
3절. 마약류 중독예방 관련 시설 실태조사의 주요 발견	16
4절. 정책적 제언	17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20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20
2절. 연구 목적	28
3절. 문헌 검토	29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43

1절. 연구 개발 내용	43
2절.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	46
3절. 시설 실태 조사	49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52
1절. 성인 조사의 주요 발견	52
2절. 청소년 조사의 주요 발견	105
3절. 시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153
4절. 정책적 제언	167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69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170
제6장 총괄참고문헌	171
제7장 총괄첨부서류	177
부록	179
부록 1.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성인 본조사 설문지]	181
부록 2.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청소년 본조사 설문지]	197
부록 3.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시설 현황조사 설문지]	213
부록 4. 시설 현황조사 원자료	215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표 1-2.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및 20~30대 비율	22
표 1-3.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실태 및 도구개발 문헌 개괄	30
표 2-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3
표 2-2. 2024년 설문지 구성영역 및 측정 변수	46
표 2-3. 지표 내적 타당도	47
표 2-4. 시설 실태조사 설문 주요 내용	49
표 2-5. 조사기관 목록(지역별 중독관리통합센터)	50
표 2-6. 법무부 관련 기관	50
표 2-7. 자조 모임	50
표 2-8. 주거제공시설 등 민간기관	51
표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인)	56
표 3-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성인)	58
표 3-3.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성인)	62
표 3-4.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 통계량(성인)	62
표 3-5.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성인)	63
표 3-6.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성인)	67
표 3-7.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성인)	67
표 3-8.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성인)	68
표 3-9. 마약류 지식 정답률(성인)	73
표 3-10. 지각된 스트레스 및 외로움(성인)	74
표 3-11. 성향(성인)	75
표 3-12. 성향 통계량(성인)	76
표 3-13.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 평균(성인)	77
표 3-14.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성인)	77

표 3-15. 흡연과 음주 행동(성인)	80
표 3-16.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 여부(성인)	81
표 3-17.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성인)	82
표 3-18.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성인)	84
표 3-19.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85
표 3-20.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성인)	88
표 3-21. 세대별 마약류 사용자 및 주변의 마약류 사용 빈도(성인)	89
표 3-22.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여부(성인)	89
표 3-23.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성인)	90
표 3-24. 연령별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성인)	90
표 3-25.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사용 동기(성인)	91
표 3-26.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획득 경로 및 난이도(성인)	93
표 3-27.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성인)	95
표 3-28.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성인)	97
표 3-29.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98
표 3-30.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99
표 3-31.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100
표 3-32.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101
표 3-33.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102
표 3-3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103
표 3-3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104
표 3-36.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청소년)	108
표 3-37.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청소년)	111
표 3-38.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청소년)	113
표 3-39.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 통계량(청소년)	114
표 3-40.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청소년)	114
표 3-41.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청소년)	118
표 3-42.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청소년)	118

표 3-43.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청소년)	119
표 3-44. 마약류 지식 정답률(청소년)	123
표 3-45. 지각된 스트레스 및 외로움(청소년)	125
표 3-46. 성향(청소년)	126
표 3-47. 성향 통계량(청소년)	126
표 3-48.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 평균(청소년)	127
표 3-49.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청소년)	128
표 3-50. 흡연과 음주 행동(청소년)	131
표 3-51.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 여부(청소년)	132
표 3-52.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청소년)	133
표 3-53.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적 경험(청소년)	134
표 3-54.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135
표 3-55.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청소년)	138
표 3-56.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여부(청소년)	139
표 3-57.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청소년)	140
표 3-58.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사용 동기(청소년)	141
표 3-59.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획득 경로 및 난이도(청소년)	142
표 3-60.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청소년)	143
표 3-61.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청소년)	145
표 3-62.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146
표 3-63.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147
표 3-64.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148
표 3-65.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적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149
표 3-66.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150
표 3-6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151
표 3-6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152
표 3-6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실태조사 응답 건수	154
표 3-70.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연도	156

표 3-71.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고용 형태 구분	156
표 3-72.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근/비상근 구분	156
표 3-73.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시행연도	157
표 3-74.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인원 구성	157
표 3-75. 19개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활동 프로그램	158
표 3-76. 활동 중인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프로그램	160
표 3-77.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병상 수 현황	160
표 3-78.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사업 투입 인력 구성	161
표 3-79. 국내 교육기관	162
표 3-80. 법무부 관련 기관 조사 결과	163
표 3-81. 현재 활동 중인 자조 모임	164
표 3-82. 주거제공시설 등 민간기관 현황	166

그 립 목 차

그림 1-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1)	20
그림 1-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2)	20
그림 1-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3)	20
그림 1-4. 연도별 마약류 사범 수 추이	21
그림 1-5. 연령별 마약류 사범현황	22
그림 1-6. 연도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	23
그림 1-7. FAF에서 밝힌 미국 18~45세 사망원인 추이	25
그림 1-8. 마약중독예방, 치료를 통해 범죄를 줄여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25
그림 1-9. 마약중독자들 뇌 기능 회복가역성 자료	27
그림 1-10. 호주 보건부 국가마약류전략(2017~2026) 3개 전략 목표	37
그림 1-11. 유럽 일부 국가의 평생 대마 사용 경험 비율	39
그림 3-1.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성인)	65
그림 3-2.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성인)	70
그림 3-3. 마약류 지식 정답률(성인)	72
그림 3-4. 성향 통계량(성인)	75
그림 3-5.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성인)	79
그림 3-6.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성인)	83
그림 3-7.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성인)	84
그림 3-8.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86
그림 3-9.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없음/있음/모름)	87
그림 3-10.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성인)	88
그림 3-11.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청소년)	117
그림 3-12.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청소년)	122
그림 3-13. 마약류 지식 정답률(청소년)	124
그림 3-14. 성향 통계량(청소년)	126
그림 3-15.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청소년)	129

그림 3-16. 중독 물질 인지 여부(청소년)	134
그림 3-17.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청소년)	135
그림 3-18.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136
그림 3-19.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없음/있음/모름)	137
그림 3-20.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청소년)	138
그림 3-21.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청소년, 성별)	139
그림 3-22. 마약류 예방 재할 정책 인지도(청소년)	144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국문 요약문

과제명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주관연구기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손애리
연구기간	2024.04.30. ~ 2024.11.30.	연구비(원)	58,800,000
저자	성명	소속	
	손애리	삼육대학교	
	김민혜	창원대학교	
	양준용	서울대학교	
	박소현	창원대학교	
	석중권	Rutgers University	
	이소정	삼육대학교	
<p><input type="checkbox"/> 연구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분석 <p><input type="checkbox"/> 연구내용</p> <p>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용과 성인용 마약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분석 <p>1.1.1 국내 문헌고찰 - 마약류 폐해인식실태 조사</p> <p>1.1.2 국외 문헌고찰</p> <p>1.1.3 설문지 수정·보완</p> <p>1.2.1 성인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 3,000명</p> <p>1.2.2 청소년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 2,000명</p> <p>과제 2.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문헌고찰 및 리스트 확보 2. 마약류 예방·재활·시설 대상 관리자 설문조사 <p><input type="checkbox"/> 기대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을 통한 마약류 중독자 감소 및 의료 범죄 등 사회, 경제적인 피해 비용 감소 - 마약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의 조사도구로 활용 - 국가 주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예방교육 현황·효과성, 마약류 사용 경험·원인·정도 등에 현황을 파악하여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예방교육·홍보·사회재활 사업 등 정책 수립방향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 			
중심단어	마약류	조사도구	태도
			지식

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연구의 범위	<p>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용, 청소년용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 2.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 <p>과제 2.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문헌고찰 및 리스트 확보 2. 마약류 예방·재활·시설 대상 관리자 설문조사
연구의 한계점	<p>이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는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부재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마약 관련 폐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구가 필요한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p>
인용 시 주의사항	<p>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지식, 경험, 예방 관행에 초점을 맞춘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했다. 그러나 이 도구들은 한국 문화를 고려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이 도구를 사용할 경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도구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약류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문화에 따라 약물 사용 패턴과 약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이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p>
주관부서 연락처	<p>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043-719-2585)</p>

Summary

Title of Project	The National Survey of the Drug and Substance Abuse Attitude			
Institute		Project Leader	Aeree Sohn	
Project Period	202 2024.11.30.	Project Budget	58,800,000	
Authors	Name	Institute		
	Aeree Sohn	Sahmyook University		
	Minhye Ki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Joon-Yong Y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ohyun Park			
	Jungkwon Seok			
	Sojung Lee			
<input type="checkbox"/> Research objectives -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on the perceived risk perception and knowledge of drug abuse - Survey on drug use, spread, prevention, rehabilitation, and facility status <input type="checkbox"/> Research Contents Task 1.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on the perceived risk perception and knowledge of drug abuse 1.1.1 Domestic Literature Review - Survey on Awareness of Drug Abuse Damage 1.1.2 Literature review on international documents 1.1.3 Survey Form Revision and Improvement 1.2.1 A Survey on awareness and exposure to drug abuse among 3,000 adults 1.2.2 A survey on awareness and exposure to drug abuse among 2,000 adolescents Task 2.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drugs-related rehabilitation facilities 2-1. Literature review and compilation of a list on the current status of drugs-related rehabilitation facilities 2-2. Survey of managers in charge of drug prevention, rehabilitation, and facilities <input type="checkbox"/> Expected results - This instrument can be used in research initiatives related to drug addiction and can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interventions aimed at curbing drug addiction problems in South Korea. The novelty and broad applicability of this instrument make it invaluable for exploring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drug use in South Korea - Reduce the number of drug addicts through drug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and reduce the cost of social and economic damages such as medical crimes. - Use as a survey tool for periodic surveys of drug harm awareness and exposure experiences for drug prevention. - To be used as a basis for prevention policies through the National Survey of Perceptions of Drug Harm and Exposure Experiences. -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 as well as experiences, causes, and extent of drug use to be utilized as foundational data for prevention policies. - Analyze the results and come up with effectiv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evention education, promo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Key Words	drugs	questionnaire	risk perception	knowledge

Opinion of Principal Investigator

Scope	1.1 Literature Review 1.2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on Drug and Substance Abuse Attitude for Adolescents and Adults 1.3 Status Survey and Analysis 2.1 Literature review and compilation of a list on the current status of drug use, spread, prevention, rehabilitation, and facilities 2.2 Survey of managers in charge of drug prevention, rehabilitation, and facilities
Limita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imarily centered around two key aspects. First, there is an absence of a developed questionnaire for assessing the perception of drug-related harm, as well as a lack of comprehensive survey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This gap indicates a need for systematic tools to evaluate public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drug-related harm.
Direction For Citation	In this study, a survey tool focusing on the awareness, knowledge, experiences, and preventive practices of Koreans regarding drug use was develop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tools were developed with consideration of Korean culture. Therefore, when applying these tools in foreign contexts, cultural differenc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Additionally, the diagnostic tools were designed based on drugs commonly used in Korea. As such, the applicability of these tools in different cultural setting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s drug use patterns and societal attitudes towards drugs can vary significantly across cultures.
Supervisory Office	

연구 결과 요약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대한민국은 과거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소비국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초범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세청이 국내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마약 소비국으로 선언하였으며, 일반 국민의 89.7%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손애리 등, 2023)
- 2018년 마약류 사범 수 12,613명이 2023년에는 27,611명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대검찰청, 2023). 특히 20~30대 사범의 비율이 증가하여 2023년 전체의 54.5%를 차지하며,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전년 대비 207% 증가하는 등 젊은 층의 마약류 사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마약류 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펜타닐, 펜타민 등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젊은 층에서는 SNS, 미디어를 통해 마른 몸매에 대한 환상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펜타민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음
- 마약류 사용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 2004년 보건복지부 추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르며, PGS(통증, 슬픔, 고통) 비용으로 환산하면 2016년 최대 7,78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보건복지부, 2004)
- 마약류 중독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률이 높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WHO와 미국 NIH NIDA는 마약류 중독을 평생 치료해야 하는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인식하며, 국가 차원의 예방 교육과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UN 보고서, 2016)
- 국민들의 마약류 지식, 태도, 신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차별화된 예방 전략과 홍보가 필요함. 청소년 시절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에 대한 태도가 성인기에 더 심각한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SNS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접근성 증가가 10대부터 30대까지 MZ세대의 마약류 사용을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됨.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 방법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통제와 관리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하며, 예방교육 및 근거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청년들 사이에

서 파티문화와 마약이 경각심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마약 사건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약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에 대한 투자 비용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 예방 교육에 1달러 투자 시 사회적 비용은 18달러 절약 가능함(미국 DHHS Pub, 2006)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사용 경험 조사에서 성인의 3.1%, 청소년의 2.6%가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변인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노출 경험도 높게 나타남(손애리 등, 2023). 따라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주기적인 조사와 예방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표 1-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 내용		연구 범위
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	1.1 문헌고찰	1.1.1 국내 문헌고찰 - 마약류 인식 및 사용경험 관련 실태조사 - 기관 보고서 검토 - 마약류 범죄백서 - 마약류 사범 추이 분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실태조사 -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1.1.2 국외 문헌고찰 - 국외 마약류 인식 및 사용경험 관련 실태조사 - 국가 차원의 기관보고서 검토 - 미국 보건복지부 약물남용 정신 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SAMHSA) - 미국 약물남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 WHO-유엔(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 마약류 폐해인식 관련 논문 검토
과제2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	1.2 실태조사 및 분석	1.3.1 성인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 - 3,000명
		1.3.2 청소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 - 2,000명
과제2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	2.1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	2.1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문헌고찰 및 리스트 확보
		2.1.2 마약류 예방·재활·시설 대상 관리자 설문조사

3절. 국내·외 문헌 검토 결과

- 국내의 마약폐해인식에 대한 측정 도구 개발 관련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일부는 자체적인 도구를

개발했으나(Mohammadi et al., 2020, Wing Hong Chui et al., 2011), 많은 연구들은 이미 개발된 도구를 이용해 타당도, 신뢰도 등을 검증하고 있음(Ramirez et al., 2021, Scherer et al., 2013). 기존 알코올 남용이나 정신질환 측정 도구를 개정하여 마약 사용에 맞게 수정한 사례도 존재하며, 이러한 도구들은 언어적, 문화적 환경에 맞게 보완 후 검증되었음 (김용석 외, 2019).

- 문헌고찰과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구성된 질문 항목은 주로 마약사용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 측정 특성을 평가함.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구분하고, 타당성 검증 및 Cronbach's alpha로 신뢰도를 측정하였음. 일부 도구는 마약사용 동기, 갈망, 심각성, 낙인, 신념, 중재 프로그램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측정함.
- 국내에서는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표준화된 도구 사용이 드물고, 조사 시 몇 개의 문항만 활용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태도나 인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주로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에 집중되어 일반적인 약물과 불법 약물을 구분하지 못해 정확한 인식 파악이 어려움. 예를 들어, 이범진 외(2020)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았으나, 마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확인되었음.
- 국내 다른 연구로 윤연옥 외(2001)는 대구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실태와 관련 요인을 조사해 가정 환경과 학교 성적 등이 약물 사용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으며, 김용석 외(2019)는 사회복지사 대상의 한국어판 물질남용 태도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음.
-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관리국(SAMHSA)이 일반인구의 마약류 사용과 인식을 조사함. 주요 조사로는 국립마약류사용및건강조사(NSDUH)와 미래관찰조사(Monitoring the Future)가 있으며, 특히 미래관찰조사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사용 및 태도, 접근성 인식을 확인하는 주요 조사로 정책 수립에 활용됨.
- 영국은 건강증진청(OHID)을 통해 마약류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사는 청소년 흡연, 음주, 마약류 사용 조사로 약물 사용 경험, 빈도, 태도 등에 대해 조사함. 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캐나다는 보건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마약류 조사를 수행하며, 대표적으로 CADS(Canadian Alcohol and Drugs Survey)를 통해 마약류 사용 경험을 확인하고 있음.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을 지원함.
- 호주는 10년마다 국가 마약류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마약류전략가구조사(NDSHS)를 통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며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국외 조사에서는 마약 및 물질사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물질사용 태도 설문(SUAQ), 마약 및 물질남용 태도 척도(DSAAS), 물질사용의견설문

(SUOS) 등이 있으며, 이 도구들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음.

- 국외에서는 마약 사용에 대한 낙인(Stigma)이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 낙인에 대한 측정 도구의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Seth Brown, 2011).
- 또한, 마약사용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이나 태도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마약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이해하고자 함(Annalee et al., 2021).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1절.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두 과제는 문헌고찰 → 청소년용과 성인용 설문지 개발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설문지 개발 → 전문가 감수 → 실태조사 → 최종 보고서 완성의 단계로 진행됨.
- 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
 -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청소년 2,000명,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의 설문지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정교화되었으며,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마약류 관련 지식 문항의 증가(10문항에서 20문항)와 중복 질문 제거 등이 포함됨. 또한,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자에 대한 사용 이유, 구매처, 접근성 등의 추가 문항이 반영됨.
 - 크게 6개 영역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의 6개 영역에 걸쳐 각종 태도 및 인식을 조사함
 - 조사는 180만 명 규모의 온라인 패널을 보유한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주관하였으며, 성인의 경우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층화표집을 실시하여 남녀 각 1,500명을 조사함.
 - 마약류 폐해에 관한 조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음. 조사는 5점 또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고, 환산 방식은 아래와 같음. 환산 과정에서 과도한 이상치를 제거하였음.

5점 리커트 척도 환산	4점 리커트 척도 환산
1점 = 0점	1점 = 0점
2점 = 25점	2점 = 33.3점
3점 = 50점	3점 = 66.7점
4점 = 75점	4점 = 100점
5점 = 100점	

- 이러한 방식으로 환산된 점수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를 통해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마약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것임.
- 각 점수를 빈도분석 한 후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이상치(outlier)가 존재할 경우 이상치를 배제하고 분석하였음
- 2024년 실태조사는 중반기에 진행되었고, 식약처의 예방교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2024년에 대폭 확대된 예방교육이 인식도 변화에 미친 영향은 내년 2025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과제 2: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

- 마약류 사용·확산, 예방·재활,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헌 고찰과 리스트 확보를 진행함. 마약류 예방·재활·시설 대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설문 내용은 기관의 기본 사항, 사업 현황, 마약류 관련 사업 시행연도 및 인력 전문성,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 환자 치료 현황 등이 포함됨.
- 문헌 검토, 전자 자료 검색, 식약처와 한국마퇴본부 제공 리스트를 통합하여 조사에 활용함. 정부는 2023년 전국 3곳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야간 대응을 강화함. 현재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전국에 추가 설치될 예정임.
- 본 연구에서는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계된 전국의 지역별 중독관리 통합센터, 치료보호기관, 교육기관, 자조모임, 민간기관을 조사하여 마약류 관련 사업의 현황을 파악함.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절. 2024년도 성인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 결과 요약

가. 성인조사의 주요결과

1.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여부 및 접근성: 성인 응답자 중 83.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15.5%에 불과했음.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는 64.8%는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2.9%는 마

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하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 장벽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음.

2. 마약의 상업적 용어 사용의 영향: '마약김밥'이나 '마약커피'와 같은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46.0%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26.5%으로 나타나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에 비해 19.5%p가량 높았음.

3. 마약류 사용 동기: 응답자들은 마약류 사용 동기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대처동기 36.0점,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67.0점(역코딩시 33.0점), 고양동기 30.3점,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25.1점, 사회동기 16.4점 순으로 응답했음.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처, 성적 쾌락, 각성효과 기대에 대한 마약류 사용 동기가 높았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처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통할 때 가장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홍보해야 함. 둘째,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성적 쾌감의 향상이나 재미의 정도가 대중의 기대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려야 함. 셋째,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은 그보다 훨씬 큰 부작용을 반드시 초래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함.

4.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마약류 노출 가능성 인식 점수는 19.2점,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82.0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마약류 예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은 65.5점, 예방의 유익성은 79.0점, 예방 실천도는 84.8점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볼 때는 '마약하는 사람'이라는 낙인 때문에 상담받기 두렵다는 응답자가 26.6%으로 나타난 한편,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때 거절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85.9%였음. 또한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76.6%를 기록함. 즉 한국인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한편, 주변에서 권했을 때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 중독된 이후 치료를 받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함. 따라서 향후 마약류 사용 예방 정책은 마약류 예방 교육을 통해 대중의 민감성을 높이고, 낙인 등 재활 치료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장애 요인을 완화하여 예방을 용이하게 하고, 개개인의 성찰성 및 조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5. 마약류 관련 지식: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로 응답자 중 25.8%가 맞다, 29.4%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전체 중 55.2%가 오답을 선택하였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시작점으로 마약에 중독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용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인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합법적 사용과 남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오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금년도 조사부터 문항을 20

개로 확대하였을 때 지식 점수는 77.2점을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2점 가량 높은 점수를 기록함.

6. 마약류 사용에 대한 낙인 인식: 낙인과 관련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90.3 점,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낙인은 63.3점, 처벌보다 재활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54.5점으로 나타났음. 마약류 사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치료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된 한편, 마약류를 사용한 개인이 문란하다거나,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여러 문항 통틀어 절반 정도가 공유하고 있었음. 마약류 범죄에 대한 관점 측면에서는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이 23.8%, 재활을 강조하는 입장이 49.6%로, 재활 관점이 25.8%p 가량 높게 나타남. 그 외에 기타 규범 관련하여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11.9%가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74.7%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7. 마약류 물질에 대한 인지도: 16종의 마약류 물질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남성의 경우 대마초 (93.7%), 코카인 (92.4%), 헤로인(88.0%)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여성은 대마초(96.9%), 코카인(94.5%),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3.1%)의 인지도가 높았음. 주로 처방전이 필요한 각종 약물에 대한 여성의 마약류 물질 인지가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의 경우 여성은 51.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38.7%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13.0%p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8. 주변의 약물 사용 목격 경험: 목격 경험의 경우 많은 순서대로 살빼는 약이 16.3%, 공부 잘하는 약이 8.1%, 술집 및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이 5.8%, 대마 4.5%,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가 3.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2.7%로 나타남. 가장 빈번하게 사용이 목격된 살 빼는 약의 경우 여성 응답자의 21.1%가 사용을 목격하여 남성의 11.5%에 비해 9.6%p 가량 높게 나타남.

9.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 주변에 한 명 이상 대마초를 피운다는 응답이 4.0%,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10.4%,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마약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남.

10. 마약류 사용경험: 본 설문조사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공부잘하는 약, 살 빼는 약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경험자(구체적으로 제시된 마약류 물질 외 각종 흡입제, '술 깨는 약' 등 포함)는 전체 9.3%(전년도 유사문항 기준 12.9%), 남성 8.7%(전년도 11.1%), 여성 9.9%(전년도 14.7%)로 나타났음. 반면 보다 좁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마약류 중독 물질 사용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전체 2.5%(전년도 3.1%), 남성 2.0%(전년도 3.5%), 여성 2.9%(전년도 2.7%)가 평생 마약류 사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여성 전체 응답자 중 7.8%(전년도 10.5%)가 살 빼는 약 사용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수치임

11. 마약류 사용 동기: 구체적인 마약류 중독 물질 사용자의 사용 동기는 살을 빼기 위해서가 70.3%, 호기심 때문에 56.8%, 주변인의 권유가 43.2% 순이었음. 남성은 호기심 때문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86.7%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81.8%로 가장 많았음.

12. 마약류 및 중독 물질 획득 경로: 마약류 중독 물질 획득 경로는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짜로 얻었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남성(43.3%)과 여성(40.9%) 모두 동일했음.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가까운 주변에 마약류 물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중독 행태가 전파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 전파자의 통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26.8%(전년도 18.6%)로, 남성 27.6%(전년도 18.6%), 여성 25.9%(전년도 18.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년도에 비해 향상됨. 함께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2%(남성 8.6%, 여성 5.9%)였으며, 용기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0.7%(남성 12.4%, 여성 8.9%)였음.

14.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마약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광범위한 마약류 사용자(E5, E9, E10)는 전체 응답자의 9.3%로 나타났으며, 성별이 여성, 해외 거주 경험, 마약류 노출 가능성(민감성)에 대한 높은 인식, 낮은 중독 낙인, 마약류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자의 경우, 여성, 해외 거주 경험, 마약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낮은 중독 낙인, 마약류 정책 인지도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분석됨.
- 주변의 마약류 사용 목격 경험(E7)은 전체 응답자의 21.6%로, 성별이 여성, 높은 가구소득, 해외 거주 경험, 마약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은 노출 가능성 인식, 낮은 예방행동 실천도, 낮은 중독 낙인, 높은 사회적 낙인 인식, 마약류 정책 인지도가 목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주변의 마약류 사용자 유무(E8)에서는 성별이 여성, 연령이 낮은 경우, 해외 거주 경험, 마약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은 노출 가능성 인식, 낮은 예방행동 유익성, 낮은 중독 낙인, 마약류 정책 인지도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분석됨.
-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F1)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F2)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마약류 관련 지식, 노출 가능성 인식, 홍보 및 교육 경험 등이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특히 마약류 정책 인지에서는 남성, 높은 교육 수준, 예방실천도, 예방장애요인의 낮음, 사회적 낙인 인식이 인지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됨.

2절. 청소년 조사의 주요 발견

가. 2024년도 청소년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 결과

1.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여부 및 접근성: 청소년의 63.4%는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으며, 93.3%는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79.2%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마약 접근성이 영상 매체 등을 통해 마약 접근성이 과대평가 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예방 실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행 의사가 있는 경우는 70.3%이고, 주변 사람에게 마약류 예방 행동에 영향을 줄 의향이 있는 경우는 71.1%였음.

2. 마약의 상업적 용어 사용의 영향: 청소년 중 마약 김밥 등의 용어가 마약류 친숙도를 높인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정도였음(47.1%). 반면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은 24.8%로 나타나 친숙하게 한다는 응답이 22.3%p 높았음. 상업적 용어의 사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류에 대한 친숙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업적 용어 사용과 관련한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3. 마약류 사용 동기: 청소년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또래와 어울리기 위한 목적(사회동기, 15.78점), 즐거움을 위한 목적(고양동기, 23.96점)보다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대처동기, 31.50점)을 더 강한 마약류 사용 동기로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마약류 사용이 신체적 고통, 우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의 점수가 35.13점으로 높았는데, 각성효과는 학업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학생에게 주요 관심사인 경우가 많고, ADHD 치료제 등이 각성도를 높여 공부를 잘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부분에 다수(66.5%)가 동의하였고 특히 여학생의 동의율이 74.4%로 더 높았음. 청소년들이 외모를 특히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가 외모를 변형시킨다는 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적절히 소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가능성(민감도)은 100점 만점 중 19.97점으로 낮았음. 예방장애요인은 62.41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마약류 예방 유익성은 63.16점, 마약류 심각성은 64.54점, 예방실천도는 74.30점으로 높았음.

5.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지식의 경우 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3.97점, 표준편

차 25.61점이었음.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인 ‘주의력결핍장애(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등)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F)’의 정답률이 41.5%로 20문항 중 가장 낮았음. 청소년의 과업 특성상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공부 잘하는 약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에 맞다 29.9%, 틀리다 42.8%, 모르겠다가 27.4%였음. 오답인 ‘맞다’고 응답한 경우가 29.9%로 높아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청소년의 경우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막연히 의료전문직이 윤리 준수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음. 비슷한 맥락에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에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가 15.4%이었으므로 의료전문직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이 필요함(맞다 78.0%, 틀리다 6.7%).
- 본드 등의 환각물질은 청소년의 마약류 이용 경로에서 진입 물질 역할을 하므로 더욱 정확한 지식이 필요함. 그런데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0.8%가 있어서(맞다 73.3%, 틀리다 6.0%), 예방 교육 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한국인의 마약류 사용 관련 성향: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마약류 노출 및 중독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4.8%,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1.7%나 되었음.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 경우도 29.9%로 상당한 수준이었음. 이는 청소년들이 절대적인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마약류의 위험성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마약류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비합리적인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지식 및 예방 교육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향을 요인별로 묶어서 평균 점수를 구해 보면, 자기과신의 평균점은 2.26점임(4점 만점).

7. 청소년의 경우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낙인: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 낙인은 약하였음(평균점수 3.16, 1~5 리커트 척도).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35.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40.6%에 불과하였음.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의 경우 동의율이 37.3% 정도로 더 낮았음. 이는 청소년이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편견이 덜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려 깊은 관용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청소년기 특유의 도덕적 무규범 상태의 표출일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8. 마약류 물질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들은 현재 이슈가 되거나 영화 등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물질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이전 세대에 유행했던 물질의 경우 인지도가 낮았음. 대마초의 인지도가 88.0%로 가장 높는데, 2023년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연예인 마약 사건 등에 자주 언급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코카인(87.2%),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75.7%)의 인지율도 높았음. 화재성이 높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

9. 주변 마약류 물질 사용자 수: 주변 마약류 물질 사용자의 인지에 대한 질문 결과 청소년의 5.3%가 주변인이 대마초를 피운다고 응답하였음. 청소년의 11.8%는 주변인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4.9%가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음.

10. 마약류 사용경험: 청소년 중 1.7%가 마약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본인 사용률이 가장 높은 물질은 살 빼는 약이었음(5.7%). 공부 잘하는 약도 사용률이 3.5%였음.

11. 마약류 및 중독 물질 사용 동기: 청소년 마약류 사용 경험자 34명 중 사용 동기를 호기심으로 응답한 경우가 20명(58.8%)으로 가장 많았음. 호기심이 동기인 경우는 남자 청소년 13명(72.2%), 여자 청소년 7명(43.8%)이었으며, 남자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용 동기였음. 살을 빼기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은 24명(70.6%)으로 남자 청소년 9명(50.0%), 여자 청소년 15명(93.8%)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었음.

12. 마약류 및 중독 물질 획득 경로: 오프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15명(38.5%)으로 남자 청소년은 10명(47.6%), 여자 청소년이 5명(27.8%)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이었음.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짜로 얻었다는 응답이 9명(23.1%)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은 4명(19%) 여자 청소년 5명(27.8%)이었고,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응답이었음.

13.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 식약처의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 수립·사업 추진 인지 여부는 18.3%,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도는 19.6%, 홈페이지나 SNS 등의 캠페인 인지도는 16.2%로 낮은 편이었음. 그러나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25.6%로 상대적으로 높아,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추론됨.

- 함께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53명(11.8%)으로, ^{용기}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00명(20.0%)으로 인지도가 낮지 않았음.
-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상담 등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묻은 결과, 마약류 사용은 본인 책임이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885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577명(28.8%)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3절. 마약류 중독예방 관련 시설 실태조사의 주요 발견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설문지를 발송한 50개소 중 총 19개 기관에서 응답하였음. 총합 약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일반적인 청소년 및 지역사회 대상의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일반적인 예방 사업의 경우 마약류가 주제인 곳도 있었으나, 약물이 키워드인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음.
- 마약류 사용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도봉, 사상구, 달서구, 계양구, 유성구,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중독 당사자 개별 상담, 가족 상담, 구치소 마약 수형자 대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음.
-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춘천지방법원 보호관찰소에서 위탁한 마약사범에 대한 단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음.
- 마약류 중독예방 관련 사업투입 인원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주력 영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다수의 기관이 마약류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약류 관련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함.

2. 치료보호기관의 경우 설문지를 발송한 18개소 중 총 6개 기관에서 응답하였음. 조사에 참여한 병원(부산시립정신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은 모두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음.

- 마약류와 관련하여 사용 중인 병상수는 최대 10개, 최소 0개였음. 6개소 중 4개소는 병상수가 부족하지 않고, 최근 마약류 입원 실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마약류와 관련하여 사용 중인 병상이 0개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자원 부족으로 병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립나주병원은 기관 사정으로 중독 병동을 미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확보 등 여건 마련 시 운영 계획이 있었음. 국립춘천병원과 국립나주병원 등의 경우 마약류 관련 병상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 전용 병상을 확보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병상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대부분 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이 마약류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었으며, 전문의가 있는 경우가 6개소 중 4개소였음(부산시립정신병원, 국립공주병

원, 원광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치료보호기관에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중독 치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병원에 전문의 배치를 늘리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중독 관련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치료보호기관의 경우 담당 부서 확인까지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직접적인 응답 거부가 많아 마약류 환자 관련 병상 운영이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함.

3. 교육기관의 경우 가톨릭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복지상담학과 등 4개 학부 과정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중독재활상담학과 등 11개 대학원 과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 법무부 관련 기관의 경우 국립법무병원에서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를 진행하고 병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는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정식 명칭)”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5. 자조모임의 경우 21개의 NA 모임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며 매주 1회 혹은 매달 1회 정규 모임을 진행하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는 자조모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NA 모임과 같은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자조모임의 설립을 장려하여 중독자들이 지속적으로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6. 주거제공시설 등 민간기관의 경우 김해다르크(리본하우스)만이 주거 제공을 하고 있고,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마약류 중독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김해다르크 이외의 다르크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카프향나무집은 2023년 상반기 이후 마약 중독 입소자는 받지 않고 있음.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입소형 재활센터 건립을 희망하고 있음. 김해다르크와 같은 민간 주거제공시설 및 중독자 재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입소형 재활센터 건립 계획을 가진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4절. 정책적 제언

1. 마약류 중독예방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집중화

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 성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실제 위험성과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함.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마약류 접근 방법, 마약류 사용의 실제적인 건강 및 법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성인과 청소년 대상 포괄적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조사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므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

을 알리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거절 기술과 대처 방안을 교육해야 함.

2) 정책 인지도 제고와 공공 캠페인 확대

-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도 제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정부의 마약류 예방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매체와 SNS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이 마약류 예방 정책과 지원 기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온라인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청소년과 성인 모두 온라인 교육과 정보 제공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마약류 예방과 재활에 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3) 특정 집단의 맞춤형 접근

- **해외 거주 경험집단:**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상의 예방 전략: 해외 거주 경험이 마약류 사용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귀국 후 이들이 마약류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청소년:** 청소년들이 마약류 사용이 외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활용하여, 마약류가 신체와 외모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강력하게 소구하는 교육 자료와 캠페인을 개발해야 함. 이를 통해 마약류 사용의 단기적 쾌감보다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특히 청소년들은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려는 동기가 강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이 아닌 스트레스와 고통을 다룰 수 있는 건강한 대처 방법(예: 상담 서비스, 운동,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 **취약계층:**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전략이 필요함.
-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 강화: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조 모임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중독예방과 재활 과정에서 가족과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정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발:** 여성,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청소년 등 특정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치료 정책을 수립하여 이들이 마약류 사용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의사 교육:**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과 남용 방지를 위한 의사 및 의료 전문가 대상 교육을 강화함. 이 교육은 처방 지침, 남용 위험성, 환자 모니터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4)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재활 지원 체계 확립

-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 금지:** '마약김밥'이나 '마약커피'와 같은 표현이 마약에 대한 친숙한 인식을 조장한다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적 용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공익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경각심을 높여야 함.

- **낙인 감소와 재활 중심의 정책 강화:** 조사 결과, 청소년과 성인 모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독이 질병이며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낙인을 줄여야 중독자들이 더 쉽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응답자들이 재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활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고,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5)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연구

-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데이터 분석 강화:** 이론(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해 개발한 지식 및 태도 문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예방사업의 성과를 측정함. 이를 통해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마약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함.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해 마약류 사용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개발함
- **다학제 및 다기관 협력:** 다학제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마약류 폐해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
- **마약류 관련 법률 재정비:** 한국의 마약류 관련 법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효과적인 규제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복지부 산하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청소년 및 지역사회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운영 중임. 그러나 마약류에 대한 특화된 예방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한결음 센터가 마약류 중독예방에 중점을 둔 교육과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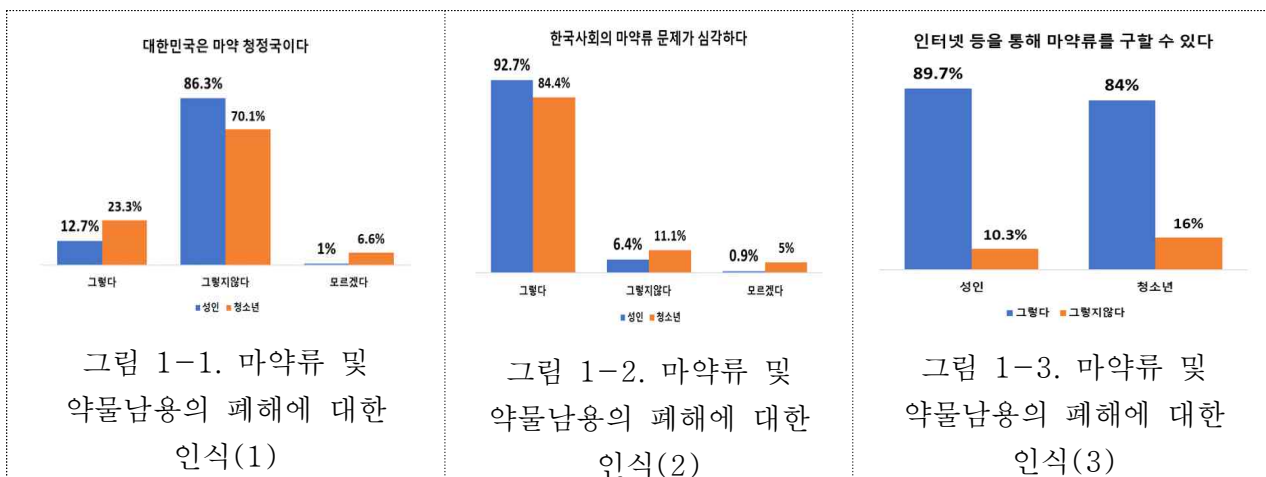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가. 마약에 흔들리는 위기의 대한민국

○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마약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함

- 마약 청정국가로 인식되어 오던 우리나라가 마약소비국으로 바뀌었음. 과거 마약사범들은 재범, 삼범 등 마약범죄 관련 전과가 많고 범죄 단체처럼 전문 유통 조직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시스템이 대다수였다면, 현재는 마약사범 중 초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¹⁾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제 밀매 조직에서는 마약 경유국으로 인식되었으나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마약소비국으로 선언하였고, 현재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마약 운반책으로 보디 파커가 검거되었다는 사실도 마약 소비국임을 입증하는 한 예로 들 수 있음. 관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동남아시아, 미국 서부지역 등으로부터 대규모(kg 단위)로 유입되는 등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이라고 발표하였음(관세청 보도자료 22.07.26).
- 일반 국민은 우리사회가 마약류로부터 폐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2023년에 수행된 성인(19~59세)과 청소년(14세~18세)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사용경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성인은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성인의 92.7%, 청소년의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²⁾.



1) 이은영, 전연규. 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3), 2022.

2) 손애리 등.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국민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마약류 접근성이 쉽다고 인식함

- 성인의 89.7%, 청소년의 84%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SNS·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손애리 등. 2023)
- 결국 마약 소비 실수요자는 인터넷 또는 SNS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 노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3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마약류 사범자 수가 증가하여 30대 이하 젊은 마약류 사범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마약류 사범의 수 증가 추세³⁾

- 마약류 사범은 급속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2,613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음⁴⁾.
- 법적으로 마약류의 비의료적 사용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에 사범 기관에 의해 정리된 마약류 사범에 관한 통계는 있으나 실제 마약류를 비의료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알 수 없음. 연구에 의하면 상습 투여 인구, 실제 적발 건수의 약 28배 추정. 국내 50만 넘는 인구가 상습 투여한다고 볼 수 있음(jtbc 뉴스. 2021.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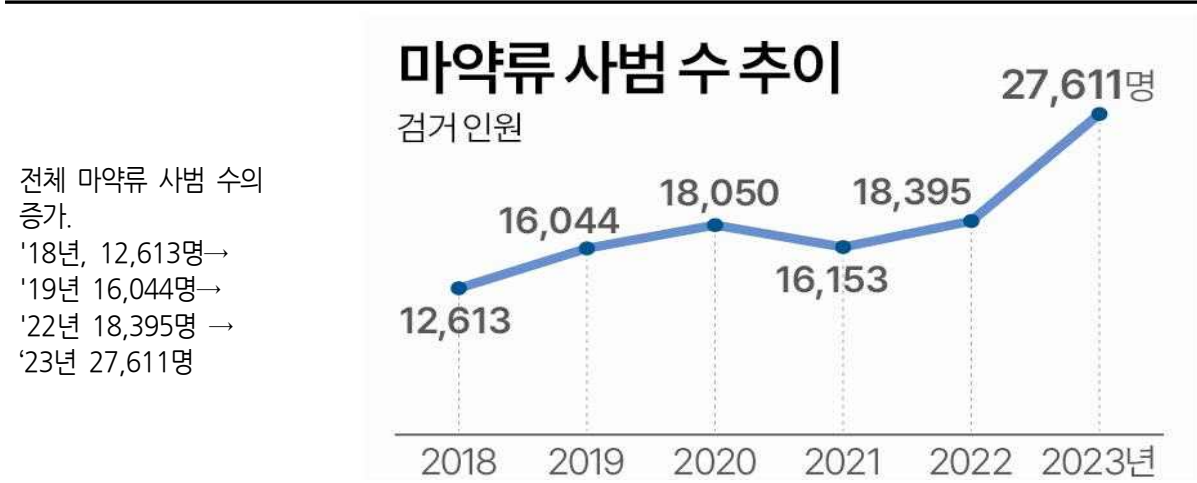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마약류 사범 수 추이

○ 20~30대의 마약류 사범의 가파른 증가

- 20~30대의 마약류 사범 비율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에 20~30대의 마약류 사범은 15,051명으로 전체의 54.5%에 육박하고 있음. 10년 전인 2012년의 경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인 35.1%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매 최근 젊은 층의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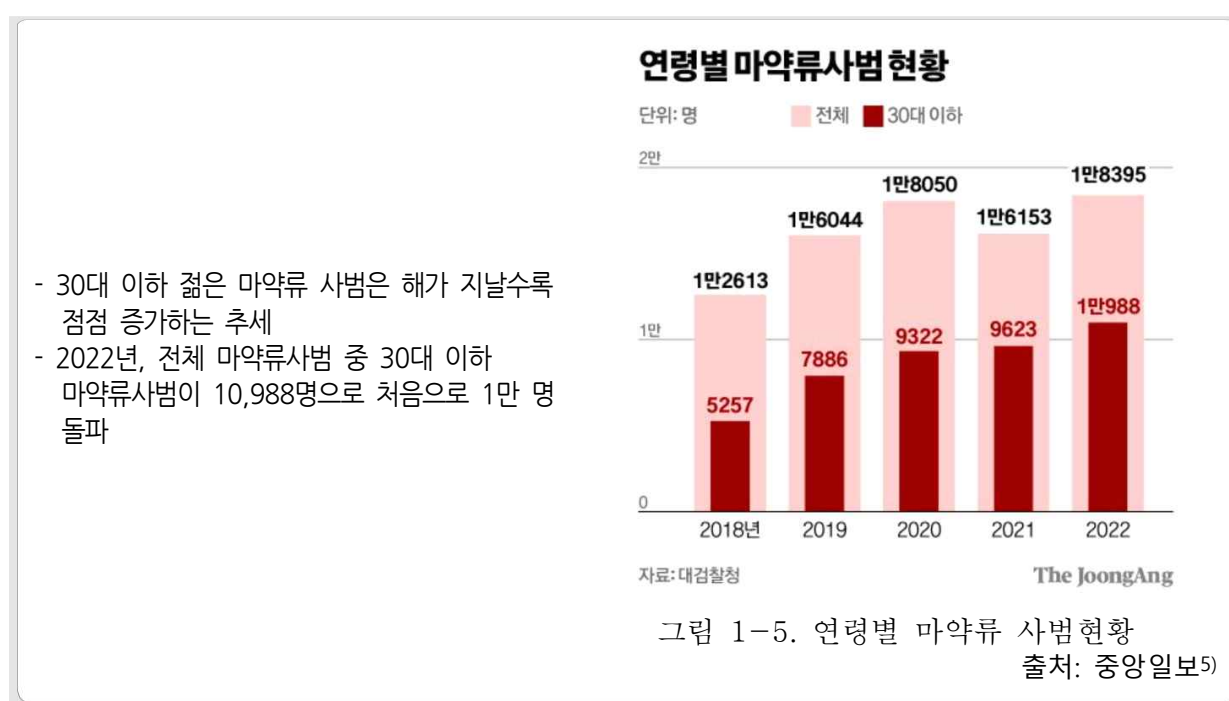
3) 대검찰청(2023). 2022 마약류 범죄백서.

4) 대검찰청(2024). 2023 마약류 범죄백서

2023년에 전체 마약류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이 15,051명이었으며, 2022년에 처음으로 1만 명 돌파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1-2.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및 20~30대 비율

구분	'12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체인원 (명)	9,255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27,611
20~30대 (비율)	3,251 (35.1%)	5,114 (40.6%)	7,647 (47.6%)	9,009 (49.9%)	9,173 (56.8%)	10,507 (57.1%)	15,051 (54.5%)



○ 10대 마약류 사범자 수 증가

- 국내 전체 마약류 사범 중에서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최근 급증하는 상황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2018년에는 14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481명, 2023년에는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20대 마약사범은 8,368명으로 전년도(5,804명) 대비 약 44.2% 증가하여, 전체의 35.6% 차지

5) 허정원. 마약사범 역대 최다...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청년이었다, 중앙일보, 2023.07.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029#home>

-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 증가

- '18년 143명→
- '19년 239명→
- '22년 481명→
- '23년 1,47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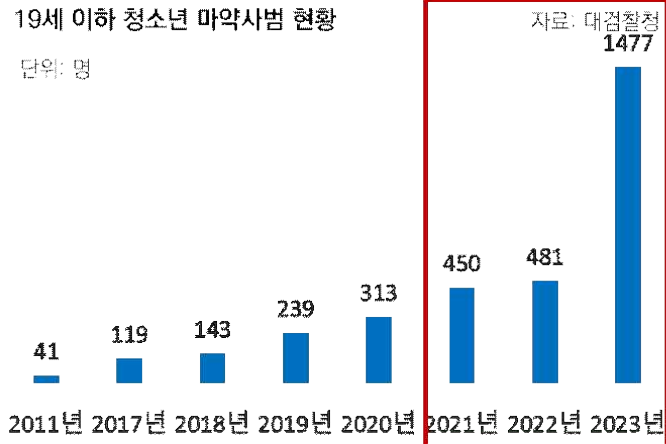


그림 1-6. 연도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

○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오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오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사범의 증가는 주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펜타민 등 다이어트약, 프로포폴 졸피뎀 등 수면제, 단백동화호르몬을 활용한 몸짱 약, 소위 공부 잘하는 약 등 ADHD 치료제 남용을 들 수 있는데 합법적인 의료용 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중독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MZ세대의 경우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마른 몸매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펜타민(소위 '나비 약'이라 불림)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국내 펜타닐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는 991,000회, 2017년도는 약 백17만 건(1,167,000건), 2019년도는 147만건(1,466,000)건으로 5년간 약 48% 증가하였음.

○ 젊은 층의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자 수 증가

- 2022년도 적발된 전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12,035명으로 전년(10,631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20대의 경우 3,044명(28.6%)에서 3,945명(32.8%)으로 증가하였음.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사범의 증가는 주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펜타민 등 다이어트약, 프로포폴 졸피뎀 등 수면제, 단백동화호르몬을 활용한 몸짱 약, 소위 공부 잘하는 약 등 ADHD 치료제 남용을 들 수 있는데 합법적인 의료용 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중독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경남지역 10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 패치제 및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의 불법 집단 사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최근 대마 사범자 수 증가

- 2022년도 적발된 전체 대마 사범은 3,809명으로 전년(3,777명) 대비 0.85% 증가하였음. 20대의 경우 1,883명(49.9%)에서 1,628명(42.7%)으로 감소하였으며, 30대의 경우는 1,189(31.5%)에서 1,322(34.7%)로 증가하였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사용경험 조사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사범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므로 일반인이 어느 정도 마약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임.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류 검거 사범의 약 30~50배 정도의 숨어있는 암수 마약류 남용자로 보고 인구의 100만 명 이상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 대로 방치하면 의료비, 노동력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노동 인구가 그 손실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운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국가 차원의 마약 관리 통제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음(2021년 경남 경찰청 보고).
- 2023년에 수행된 성인(19~59세)과 청소년(14세~18세)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사용경험 조사 자료(손애리 등, 2023)에 의하면 각종 마약류 물질*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성인은 3.1%, 청소년은 2.6%였음. 또한, 성인의 4.7%, 청소년의 3.8%가 주변인이 대마초를 피운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인의 11.5%, 청소년의 16.1%가 주변인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음.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등 13종)

나. 마약류 사범 증가의 원인

○ SNS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접근성 증가

- 특히, 10대에서부터 30대에 이르는 MZ세대의 경우 인터넷 또는 SNS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손쉽게 활용하여 마약류 유통과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젊은 층의 마약류 사범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임.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구매 방법과 플랫폼이 활성화되었던 시점에 통제와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음.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인식 부족

- 버닝썬 사건은 마약 투약과 성 문제는 연관성이 깊으며 특히 마약과 성범죄,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소위 물뽕(GHB,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이 있다고 언론에 연일 보도됨으로써 GHB를 '강간 약'으로 인식시켰으나, 우리 청년들 사이에 놀이문화로 잠아가고 있는 파티문화와 마약이 경각심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음.

○ 마약류 위험인식에 대한 예방교육 및 근거자료 부족

- 국내에서 마약류 실태조사를 보면 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⁶⁾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위험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 2023년에 수행된 성인(19~59세)과 청소년(14세~18세)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사용경험 조사가 있으나 조사

6) 경기도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 이범진 외, 경기도의회, 2020

결과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있어야 함.

다.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사망 증가

- 미국의 경우 2020~2021년 18~45세 미국인 약 7만 9,000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함(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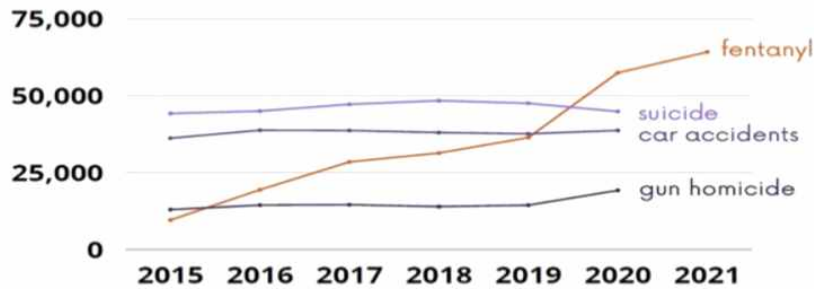


그림 1-7. FAF에서 밝힌 미국 18~45세 사망원인 추이
(출처: Weekly Chosun.com)

○ 마약사용으로 인해 개인적인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됨.

- 인지결함 증가->범죄와 높은 상관성. 만성마약사용자의 경우 중증도의 인지결함이 발견되고 있으며, 약물 사용의 증가는 노숙자, 범죄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 외국의 경우 마약주사 바늘을 공유하고 있어 HIV 감염률을 증가시키고 있음.
-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미국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추정치가 1,930억 달러(생산성 손실 1,200억\$, 의료비용 110억\$, 형사사법비용 610억\$)로 보고됨(그림 1-8). 마약류 사범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중독에 빠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중독자 본인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의 고통을 초래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음. 이 비용은 Pain, Grief, Suffering의 약자를 딴 PGS 비용이라는 학술용어로 교통사고 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금전적 화폐로 환산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마약류 사범을 포함한 주변 고통 비용의 크기가 연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최대 7,780여억 원의 주변 고통 비용이 나타남을 추정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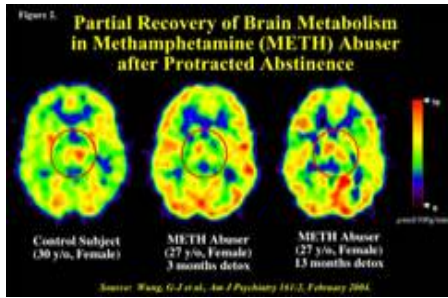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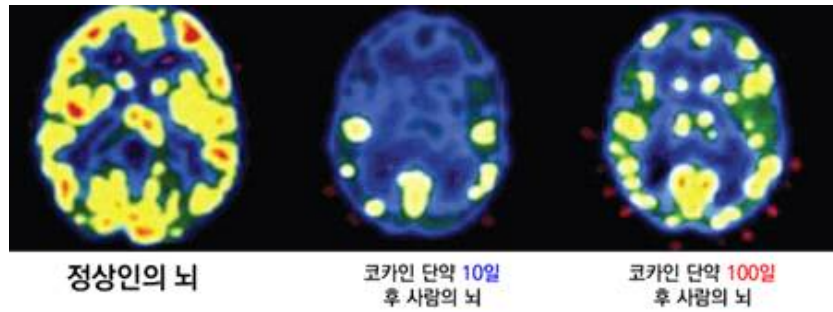
그림 1-8. 마약중독예방, 치료를 통해 범죄를 줄여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범죄 비용, 의료비, 노동생산성 저하 등)이 연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예상함(보건복지부, 2004년). 마약류 예방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학교 마약류 등 중독예방 프로그램에 1달러 투자 시 약물사용 관련 사회적 비용은 18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미국 DHHS Pub.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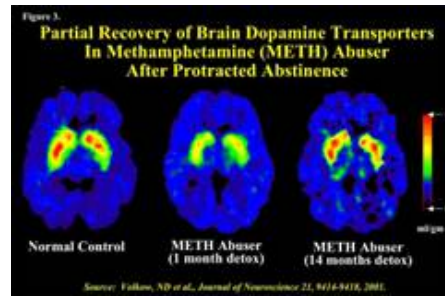
라.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의 중요성 증가

○ 마약류 중독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률이 높음

- WHO 및 미국 NIH NIDA는 마약류 중독 치료는 재발률이 높고(우리나라 32% 이상), 평생 치료해야만 하는 만성난치성 질환으로 마약류 중독은 사람 중심의 사전 예방 교육이 최선이라는 보고하고 있음(UN 보고서 2016). 마약류 중독이라는 질환은 재발률이 매우 높고, 완전한 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 본인의 의지, 신체적 역량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체계 또한 매우 중요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등 사회경제적인 인프라가 매우 약하며, 정부도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예방교육 강화 및 치료 재활로 넘어가야 한다고는 이론적으로 인지하면서도,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 내지는 가족에 그 역할을 떠넘기는 형편임.
- UN 보고서 2016을 보면 WHO 및 미국 NIH NIDA는 마약류 중독 치료는 재발률이 높고(우리나라 32% 이상), 평생 치료해야만 하는 만성난치성 뇌 질환으로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코카인 중독 환자 단약 치료 10일, 100일 후 뇌 일부 기능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함(파괴된 뇌의 회복 가역성)
- 마약류 중독은 뇌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치료해야 하고, 실제로 완전하게 뇌가 정상인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의문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단약 3개월, 14개월 후
뇌 기능 회복정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자
파괴된 뇌의 회복가역성

그림 1-9. 마약중독자들 뇌 기능 회복가역성 자료

○ ‘마약’이라는 개념에 관한 범죄, 질환 인식의 부재

- 마약류 사범 중 교도소 치료감호소 수감자, 병원에서 치료 중인 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자, 회복자 698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기심으로 48.5%,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는 34.1%, 스트레스 해소 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1.7%가 마약류를 처음 시작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보고서, 2017년). 마약류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마약 남용에 대한 폐해인식은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관련 연구들은 폐해인식이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Kerr et al., 2005). 이에 따라 폐해인식을 높이는 것은 마약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임.

○ 국민들의 마약류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를 통해 마약류 인식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예방·홍보 전략 수립 필요

- 청소년 시절에 대마초 같은 물질에서 더 심각한 마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마약류에 대한 태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일부 불법 약물의 사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함.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므로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사용에 대한 폐해인식(태도)과 마약사용에 대한 행동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사용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2절. 연구 목적

-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적 약물에 대한 인식이 젊은 층에서 용인될 수 있고,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사회에서 수용가능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 2023년에 수행된 성인(19~59세)과 청소년(14세~18세)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사용경험 조사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식과 태도를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음.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를 사용한 실태조사는 현재의 인식 및 행동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임.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의 실제 규모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마약류 예방 전략추진을 위한 청소년과 성인용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마약류 예방교육·홍보 등 차별화된 예방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음.
 - 대상(연령, 지역, 직업 등)에 따른 마약류 예방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조사 등 실태조사 필요함. 대상별 노출 정도에 따라 마약류 예방교육·홍보 등 차별화된 예방 전략추진
 - 「마약류 관리법」 제51조의4 개정('23.8.16.개정, '24.2.17.시행)에 따라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가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예방교육 현황·효과성, 마약류 사용 경험·원인·정도 등에 관한 사항,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효과성, 예방·재활 관련 시설현황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교육·홍보·사회재활 사업 등 정책 수립 방향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이루어져야 함

제51조의4(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3절. 문헌 검토

가. 국내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현황

1.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실태 및 도구개발 문헌 개괄

- 국내외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 논문들을 고찰한 결과 일부 논문들은 문헌고찰, 질적 연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음(Mohammadi et al., 2020, Wing Hong Chui et al., 2011).
- 하지만 많은 마약류 폐해인식 혹은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도, 신뢰도, 내적 일치, 신뢰도, 민감도 등을 검증하였음(Ramirez et al., 2021, Scherer et al., 2013, Woicik et al., 2009, Sklar et al., 1997, Bonfiglio et al., 2022, Humenick et al., 2008, Ovali et al., 2014, Madras et al., 2009).
- 일부 마약에 대한 태도 도구들은 기존의 알코올남용 측정 도구 혹은 정신질환 측정 도구를 기초로 하여 마약사용에 맞게 문항을 개정하여 개발하였음(Tonigan et al, 2002, Annalee et al., 2021, Seth Brown, 2011). 즉, 기존의 도구들을 자국의 언어적 및 문화적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타당성과 신뢰성 등을 검증하였음(김용석 외, 2019, Garcia et al, 2008, Annalee et al., 2021, Ogel et al., 2017, Simons et al, 1988).
- 종합적으로 마약사용(drug use)⁷⁾ 혹은 물질사용(substance use) 태도 측정 도구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문헌고찰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질문 항목을 구성한 후 이를 다양한 대상 집단 즉 마약사용집단, 남용집단, 중독집단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 측정 특성을 평가하였음. 평가는 주로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요인별 항목을 구성하고 하위척도(subscale)를 구분함. 항목들에 대한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하였음. 또한, internal consistency 혹은 compati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음. 추가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유사한 다른 도구와의 상관성, 민감도도 검증하였고 약물사용의 심각성 정도를 구별하는 판별타당도(discriminative validity)을 산출하였음.
- 한편 측정 도구들이 측정하는 대상은 다양하여 마약사용 동기의 측정, 마약에 대한 갈망(cravings)의 측정, 마약사용의 심각성 정도, 마약사용에 대한 태도 혹은 낙인(stigma)의 측정, 마약사용에 대한 신념,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른 마약사용 패턴의 측정, 마약사용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7) 다른 국가에서 drug은 마약을 의미함. 따라서 본 연구의 문헌고찰에서 drug은 마약으로 번역하였음

측정 등 다양한 마약사용의 측면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음.

표 1-3.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실태 및 도구개발 문헌 개괄

척도명	하위항목	설문내용	개발자/년도
Drug Attitudes Scale(DAS)	신경안정제, 바비투레르(barbiturate), 헤로인, 아편류, 스피드, 알코올, 대마초, 환각제, 담배, 암페타민, 마약사용 정도/10개	신경안정제, 바비투레르(barbiturate), 헤로인, 아편류, 스피드, 알코올, 대마초, 환각제, 담배, 암페타민 등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믿음. 위험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통제 정도, 합법화 여부 등 60개	Michael Goodstadt/1978
한국어판 물질남용에 대한 태도 척도	허용성, 치료개입, 비정형성, 치료 낙관, 비심판적 태도/4개	대마초 합법화, 시험삼아 시도 가능, 집에 한해 사용허용, 흡연 허용, 하루 한 개비는 허용, 집단 치료, 소변검사, 장기 치료, 대마초 사용과 정신질환, 헤로인 사용과 중독 불가피, 법으로 통제, 마약사용 의사의 의료행위 금지 등 27개	김용석 외/2019
SUBSTANCE ABUSE ATTITUDE SURVEY	허용정도, 치료개입, 비정형성, 치료에 대한 낙관, 비심판적 태도/4개	중독은 의지문제, 회복가능성, 흡연과 마약사용과의 관련성, 조기 진단과 치료가능성, 심각함과 건강폐해, 소변검사의 중요성, 장기치료의 필요성, 재발 반복과 완치가능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 흡연과 음주 치료 전문가와 기관 등/43개	Chappel et al./1985
European Drug Addiction Prevention Trial Questionnaire (EU-Dap)	흡연, 알코올, 마리화나 사용의 긍정적 및 부정적 믿음, 미래 사용 여부, 위험에 대한 인식 규범적 신념, 가족 화목, 학교와의 관계, 마약사용 지수(마약사용으로 인한 부상, 범죄 등), 거절 기술, 자존감, 문제해결, 단호함, 마약에 대한 지식, 부모, 형제 친구의 사용여부, 부모의 마약허용성,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등/16개	흡연과 음주의 정도와 부정적 영향, 마약의 종류에 대한 인지, 마약사용의 정도, 마약사용의 부정적 결과, 앞으로 1년 이내 사용여부, 마약사용에 대한 태도(엄격한 법, 죄악, 통제력, 위험성 등) 부모, 형제,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의 사용 여부, 가족의 화목함, 지원 여부, 부모의 허용정도,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교우관계, 성격(결단성, 판단력, 후회 감정 등) 45개 항목	EU-Dap 은 2002-2005년간 8개국에 의해 실시된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고 the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지원됨.
Drug 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beliefs		마약의 해로움에 대한 믿음, 마약사용의 심각성, 위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등 7개	Bryan/ 2000
Brief Spanish Cocaine Craving questionnaire	4개 하위항목	마약에 대한 갈망 정도, 갈망에 통제력, 거절의 어려움, 쾌락이나 에너지 향상 등에 대한 기대, 긍정적인	Munoz Garcia et al./2008

척도명	하위항목	설문내용	개발자/년도
		강화기대의 부족	
Chinese adolescent the Beliefs and Attitudes of Substance Abuse Inventory(BASAI)	마약사용의 결과, 자기통제력, 마약사용의 원인, 최초의 마약사용, 동료의 영향, 마약사용의 경향(tendency), 마약예방 캠페인, 가장 많이 쓰는 마약, 정보원/9개 항목	마약이 건강, 인지능력, 정신상태, 수면, 판단력, 일상활동 등에 끼치는 영향, 사용 동기, 중독 가능성에 대한 믿음, 심각성에 대한 믿음. 통제능력, 지식 정도, 마약예방캠페인에 대한 의견 등 22개 항목	Warren YW Tsang/ 2004
The Attribution questionnaire-substance use disorder(AQ-SUD)	부정적 감정, 책임감의 측정, 공감의 부족(lack of empathy), 사회적 고립(social disengagement)/4개 항목	Derek이라는 가상의 마약사용자 설정-데릭에 대한부정적 감정(분노, 불쾌함, 위협감, 범죄인 취급, 격리 필요, 극복가능성) 책임감(어느 정도가 책임인가, 극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공감의 부족(동정심, 공감정도, 걱정), 사회적 고립(데릭을 친구로 여길지 여부, 내 자식이 데릭을 사귀는 것을 허락할지, 고용주가 데릭을 고용할지 등) 18개 항목	Annalee J. Kwochka et al. /2021
Chinese Drug Involvement Scale		마약사용 정도, 마약사용 후 이웃과의 갈등, 친구들이 마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마약사용의 효과에 대한 믿음(자신감, 편안함, 친구와 좋은 관계, 행복감) 부작용 경험(정신없음, 가족과의 갈등) 마약사용 지속 의도, 중단의사 등 22개 항목	C.W Lam et al./2002
The Chinese Youth Attitudes toward Young Drug Users scale	청소년 마약사용자 관계에 대한 인식, 청소년 마약사용자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 이들에 대한 가치판단,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정당화 인식과 정신생리학적 근거 인식/5개 항목	청소년 마약사용자에 대한 인식(스스로 타락한 사람, 못생긴 사람) 마약사용 동기(체중감소, 현실도피, 용기, 동료압력) 마약사용자와의 관계(기피, 잘 지내기 어려움, 갱 출신 추정, 경계, 돈 빌려달라고 함) 마약사용 시 차별 경험/12개 항목	Wing Hong Chui et al./2012
잠재적 약물사용 청소년 선별척도(SPDA)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인식(술, 담배, 약물 접촉성, 약물 수용성), 개인의 특성(과감성, 산만, 충동성, 대처 능력, 비행경험),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부모의 약물 경험,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친구와의	술, 담배, 약물사용 경험, 효과에 대한 인식, 약물사용은 개인의 기호이다. 가까운 사람이 약물을 사용한다. 사용에 대한 호기심, 과감성, 산만, 충동성, 대처능력, 비행 경험, 부모의 약물경험,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부모님은 자주 싸운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부모에 대한 사랑, 돌봄), 친구와의 관련성(친구들을 사귀기	이기영 외/2002

척도명	하위항목	설문내용	개발자/년도
	관련성)	어렵다. 학교생활 적응, 열등감 등) 45개	
The Substance Use Risk Profile Scale (SURPS)	충동성, 감각추구, 불안감 예민함, 좌절감/ 성격특성 항목 4개	만족감, 힘들 때 도움청할 사람이 없음, 생각없이 말을 하기도 함,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음. 행복함. 집중할 수 없을 때 불안함. 나중에 후회할 상황을 자주 만듦, 미래에 대한 희망감, 새롭고 신나는 일을 추구함. 다소 두려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좋아함, 불법적인 일은 하는 것은 멋짐, 어지러우면 두려워짐. 생각없이 행동함. 심장박동이 뛰면 두려워짐. 스스로가 가치없는 사람으로 느껴짐 등 23개 항목	Patricia A. Woick et al./2009
HBM-based substance abuse prevention questionnaire(HB M-SAPQA)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 Perceived self-efficacy 5개	마약사용자의 성향(강한 성격, 마약사용 친구나 친척), 마약사용의 결과(질병, 가정 파탄, 사망, 폭력 증가, 삶의 계획 파괴 등) 마약 권유의 거절 어려움, 마약사용의 심각함에 대한 인식, 부모 교사, 교장의 마약에 대한 인식, 마약 예방 행동, 거절 자신감, 도움 요청에 대한 인식 등 38개	Kanali Mohammadi et al./2020
Attitude to Drug Use		마약사용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태도(즐거움, 위험성, 마약사용의 끝은 후회, 관련 법을 엄격하게 해야 함, 마약사용은 최악, 학교 예방교육, 경찰의 마약사용 청소년에 대한 태도, 마약사용은 삶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임 등) 12개	Harmon/1993
Social Distance Scale		(가상의 물질 사용자(A)에 대한 삽화(vignette)와 스토리를 보여주고)A에게 방을 임대해줄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고용할지, 자녀가 A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할지, 내가 아는 젊은 여자에게 A를 소개할지, 친구가 일하는 직장에 A를 추천할 용의가 있는지/ 7개 항목	Emory Bogardus/1924

2. 국내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실태 및 도구개발 조사

- 마약사용 혹은 마약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거의 없음. 또한, 국내에서는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조사 시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기보다는 마약류 폐해에 대하여 몇 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약류에 대한 태도, 즉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인식조사라고 하기보다는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가 대부분임. 물론 약물남용에 마약류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약물과 불법적인 약물이 구분되지 않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정확한 태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아주대학교·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이범진 외, 2020)의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았고 태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평소 마약류에 대해 관심이 높다.' 72%, 마약 오남용 정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59%,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다.' 90%로 나타났음.
- 윤연옥 외(2001)⁸⁾는 대구지역의 3,482명의 중학생(남 1,768명, 여 1,714명)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실태와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약물사용을 경험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9.4%였고 진정제 0.3%, 진통제 8.9%, 각성제 0.2%, 마약 0.3%, 진해거담제와 항히스타민제 0.2%, 흡입제 0.3%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21.1%가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있었고 신경안정제 0.8%, 진통제 20.1%, 각성제 1.5%, 수면제 1.5%, 진해거담제와 항히스타민제 1.6%, 흡입제 0.2%, 대마초와 마리화나 0.1% 순이었음. 한편 필로폰, 아편, 몰핀, 데티딘, 메타돈, 헤로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음. 약물남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남자 중학생의 경우, 종교, 결혼 가정, 가족의 화목정도, 부모의 관심과 부부관계, 학교성적, 학교에서의 처벌 경험이었고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관심과 부부관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음주나 흡연 정도, 학교성적, 약물사용 친구, 결혼 가정 여부 등이 주요 영향 요인이었다. 또한, 약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음(윤연옥 외, 대구지역 중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1), 2001)
- 한경순 외(2000)⁹⁾은 서울과 경기 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539명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실태와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지식 조사의 경우 권인숙(1991)의 52개 항목 설문지, 태도 조사의 경우 권인숙(1991)의 18개 항목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약물사용 태도는 전공계열, 학교생활 만족도, 약물 경험, 부모와의 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지식의 경우는 지식이 높은 경우 '복용조절을 한 적이 있다'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음. '마약은 신체정신을 중독시켜 폐인을 만든다.' 대한 지식점수가 가장 높았고 태도의 경우 '약물은 곧 독이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마약의 유해성과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8) 윤연옥 외, 대구지역 중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1), 2001

9) 한경순 외, 대학생의 약물사용 실태·지식 및 태도(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376-389, 2000

갖고 있었으나 약물의 복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지식과 태도 수준이 낮았음.

- 양태경 외(1999)¹⁰)은 경상북도 소재 일반고교 3학년 학생 735명과 실업계 3학년 학생 482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음. 51.3%의 학생들이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고 사용한 경험이 있는 약물은 알코올 42.1%, 담배 23.3%, 각성제 6.7%, 수면제 3.5%, 본드 1.6%, 진정제 1.5%, 마약 0.9%, 헬륨가스 0.5% 순이었고, 호기심으로 인한 경우 18.1%, 환경적 요인 13.0% 등이었음(양태경 외,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999)
- 김용석 외(2019)¹¹)는 마약중독자들을 다루는 사회복지사들의 중독자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에 대한 5개 요인 43개 문항을 가진 한국어판 Substance Abuse Attitude Survey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이 한국어판은 원본 도구에서 일부 문항이 삭제되었으나 원본 도구에서 다섯 가지 요인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이 한국어판은 유사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들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위요인들 간 구분도 명확하여 척도의 타당도가 확보되었음. 다만 척도의 신뢰계수의 범위가 .51 ~ .68로 다소 낮은 편이었고 후속 연구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음(김용석 외, 한국어판 물질남용에 대한 태도 척도(Substance Abuse Attitude Survey)의 타당화 연구-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71, 2019, 41-76)

나. 국외 마약폐해인식에 대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현황

1. 국외 국가기관 주도 일반인구 대상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 미국

- 미국은 1992년 설립된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관리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SAMHSA)에서 주로 일반인구의 마약류 사용 행동양식 및 관련 인식 등을 조사 및 관리하고 있음.
- SAMHSA는 크게 4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행동건강통계품질센터(Center for Behavioral Health Statistics and Quality, 이하 CBHSQ)가 각종 건강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 출판 책임을 맡고 있음.
- SAMHSA는 2010년 발표한 8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이는 각각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악화 예방, 사법 영역에서의 정신적 외상 관리, 군장병 가족 건강 관리, 의료개혁, 주거불안정 및 노

10) 양태경 외,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999

11) 김용석 외, 한국어판 물질남용에 대한 태도 척도(Substance Abuse Attitude Survey)의 타당화 연구-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71, 2019, 41-76

속자 건강 관리, 보건의료인에게 건강정보기술 전달, 자료 분석 및 성과 관리, 대중의 인지 제고 등임.

- SAMHSA에서 실시하는 조사 중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국립약물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조사(N-SUMHSS), 국립마약류사용및건강조사(NSDUH) 등이 있음. N-SUMHSS가 각종 치료기관 등을 거점으로 하여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보고를 종합한 자료인 반면, NSDUH는 온·오프라인 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임.
- NSDUH(The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는 미국의 12세 이상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그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됨. 담배, 알코올, 마약류의 사용 경험 및 약물남용장애, 정신건강 문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질문함. 해당 조사는 주로 역학적 관심 하에 마약류 사용의 인구 분포를 확인하며, 대중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문항은 거의 수록되지 않음. NSDUH의 2022년 결과는 다음의 주소로 확인 가능함.

(<https://www.samhsa.gov/data/release/2022-national-survey-drug-use-and-health-nsduh-releases>)

- 국가 차원의 승인통계가 아닌 조사들 중에서는 미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산하 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이하 NIDA)에서 지원하고 미시건 대학의 조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미래관찰조사(Monitoring the Future)가 마약류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님
- 미래관찰조사는 시계열과 패널조사가 혼합된 형태로, 1975년 이후 매년 약 50,00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초 설문을 실시한 후,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19~30세 기간에는 2년마다, 그 이후는 5년마다 추적 설문을 실시하는 초대형 조사임. 해당 조사에는 담배, 알코올, 대마를 포함한 각종 마약류 사용 경험 및 빈도,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약물에 대한 접근성 인식, 동료와의 약물 사용,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 건강 수준 및 생활 습관,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 성과, 심리 및 정서적 안녕감 등을 묻고 있음
- 태도에 대한 문항으로는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 인식, 사회적 관용도,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대 및 평가, 건강에 대한 우려, 법적 결과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함. 미래관찰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의 주소로 확인 가능함.

(<https://monitoringthefuture.org/results/annual-reports/>)

- 그 외에도 미국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주관하는 행동위험요인감시체계(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등의 설문조사가 있으나, 대부분의 설문조사는 약물 사용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보다는 관련된 행동 및 결과를 감시 및 추적하는 데 관심이 있음

○ 영국

- 영국은 2021년 이후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산하에 잉글랜드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의 후신인 건강증진청(Office for Health Improvement and Disparities, 이하 OHID)을 설치하여 대중 차원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힘쓰고 있음.
- OHID는 국립마약류치료모니터링체계(National Drug Treatment Monitoring System)를 구축하여 약물 및 알코올 치료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함. 여기에는 크게 성인 약물남용치료통계, 청소년 약물남용치료통계, 알코올 및 마약류 전문치료의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됨.

- 영국의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설문조사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 범죄 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이나, 해당 조사는 마약류 사용을 일탈행위로 보아 인구 중 해당 행동의 발생 빈도 등을 보고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그 외의 조사로는 잉글랜드 청소년 흡연, 음주, 마약류 사용 조사(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among Young People in England)가 대표적임. 해당 조사는 보건부의 지원 하에 국립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Digital)가 주관하여 1982년 이후 거의 매년 실시되었음. 매년 약 13,000명 안팎의 11~15세 잉글랜드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문서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임.
- 설문 목적은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에 대한 자료 수집으로 흡연경험, 흡연상태, 흡연빈도, 최초 흡연 시기, 음주 경험, 음주 빈도, 음주량, 최초 음주 시기, 만취 경험, 약물남용 경험, 사용한 약물의 종류, 약물남용 빈도, 최초 약물남용 시기, 주관적 건강, 각종 건강 상태, 물질 관련 태도, 건강 위협에 대한 지식 등을 질문함.
- 이 중 마약류 사용 관련 태도에 대한 질문으로는 주변 동료들의 관용 여부와 사회적 관용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에 대한 질문으로는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 민감성 인식 등을 포함함. 해당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의 주소로 확인 가능함.

(<https://digital.nhs.uk/data-and-information/publications/statistical/smoking-drinking-and-drug-use-among-young-people-in-england>)

- 영국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게 각 부처에서 생산한 승인통계를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 자료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조율 및 협력 추구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불필요한 중복 통계의 생산 및 관리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결과 환류시에도 특정 부처의 사이트만이 아닌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캐나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 대마, 아편계 약물, 캐나다인을 위한 노력으로 특히 마약류 사용 대응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음
- 캐나다 보건부의 주관 하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캐나다 알코올 및 마약류 사용 모니터링 조사(Canadian Alcohol and Drug Use Monitoring Survey)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캐나다 담배, 알코올 및 마약류 조사(Canadian Tobacco, Alcohol and Drugs Survey)로 개정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되다가, 이후 다시 흡연 조사가 떨어져나가며 현재 캐나다 알코올 마약류 조사(Canadian Alcohol and Drugs Survey, 이하 CADS)가 실시 하고 있음.
- CADS는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15세 이상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회차마다 차이는 있으나 약 10,000여개의 사례수를 확보하고 있음.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대마 및 아편계 물질,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경험을 묻고 있으며 태도 및 지식 등에 대한 문항은 없음. 해당 조사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anadian-alcohol-drugs-survey.html>)

- 캐나다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조사는 더욱 큰 사례 수에 대해 세밀하게 실시되고 있음. 캐나

다의 캐나다 학생 담배, 알코올, 마약류 조사(Canadian Student Tobacco, Alcohol and Drugs Survey, 이하 CSTADS)는 청소년 흡연조사(Youth Smoking Survey)의 후신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음

- CSTADS는 매 회 약 60,000여명의 12~18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흡연 상태, 흡연 시작 연령, 사용하는 담배 제품 종류, 음주 경험 유무, 음주 빈도, 음주량, 만취경험, 마약류 사용 경험, 사용 마약류 종류, 마약류 사용 빈도, 각종 약물 관련 건강 문제 경험, 정신건강 수준, 스트레스 수준, 동료들의 마약류 사용 관련 관용도,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 법적 제재 수준에 대한 지식,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제공하는 예방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이 있음. 해당 조사의 정보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anadian-student-tobacco-alcohol-drugs-survey.html>)

○ 호주

- 호주는 건강정책 수립 및 통계 생산에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로,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매 10년마다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2017~2026년 국가 마약류 전략(National Drug Strategy)에 의하면 호주 보건부는 마약류 위해의 최소화를 위해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위해 감소의 3가지 접근법을 수립하였으며, 7개 세부 목표(근거 중심 정보 접근성 강화, 공유된 자료 및 연구 개발, 새로운 대응책 개발, 대중 참여 과정 증대, 역반응 감소, 마약류 접근 경로 차단, 국가적 환경 개선), 7개 표적 집단(어보리진 등 선주민, 정신건강 취약집단, 청소년, 노인, 사법대상자, 문화다양성 집단, 젠더 및 섹슈얼리티 소수집단), 7개 최우선 대응 약물(메스암페타민, 알코올, 담배, 대마, 비처방 항정신성 약물, 아편계 약물, 신흥 항정신성 약물)을 제시함



그림 1-10. 호주 보건부 국가마약류전략(National Drug Strategy 2017~2026) 3개 전략 목표

■ NDSHS

- 호주의 마약류 관련 정책수립 및 수행에 주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1985년 이래로 시행된 국립마약류전략가구조사(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 이하 NDSHS)임. 해당 조사는 호주 정부 산하 기관인 호주보건복지통계국(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주관하고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이 협력하여, **매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가장 최근 공개된 2022~2023년 조사에서는 14세 이상 성인 21,5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우편 및 온라인을 이용해 설문을 실시하였음. 조사항목은 마약류 사용 경험, 사용 빈도, 마약류 사용과 건강, 정신건강 상태,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의견, 마약류 사용이 삶에 미치는 사회적·개인적 영향,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경험 등을 포괄함.
- NDSHS는 특히 국가의 중장기적 마약류 대응 전략과 깊이 결부되어 실시되며, 이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수정 및 보완된다는 점에서 본받을 점이 있음. 해당 조사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가능함.
<https://www.aihw.gov.au/about-our-data/our-data-collections/national-drug-strategy-household-survey>
-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호주학생알코올마약류조사(Australian Secondary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를 별도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설문 문항은 NDSHS와 대동소이함

■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이하 EMCDDA)는 EU와 연계된 조직으로 1995년 창립되었으며, 유럽 전역의 마약류 사용 자료 수집 및 환류를 목표로 함
- EMCDDA에서는 유럽 각국에서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마약류 사용 경험 관련 조사를 수집하여 처리한 뒤 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2023년 기준으로 EMCDDA는 유럽 30개국의 정보를 환류하고 있으며, 이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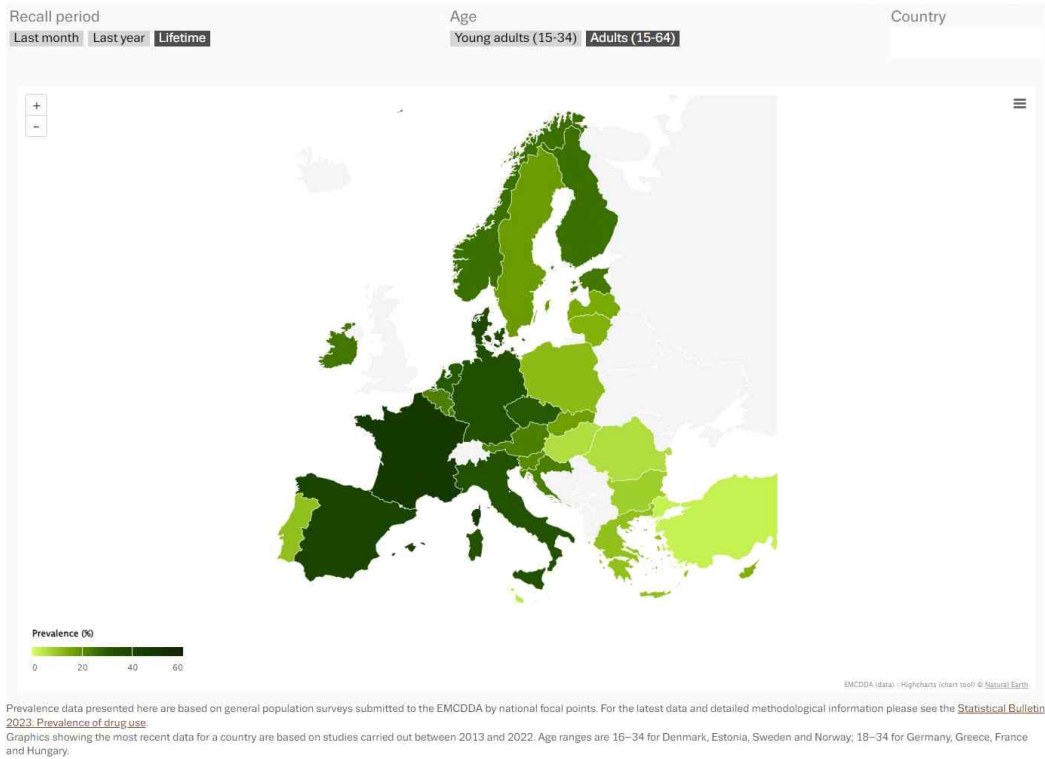


그림 1-11. 유럽 일부 국가의 평생 대마 사용 경험 비율

2. 국외 민간 주도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도구개발

○ 국외 조사에 의하면 마약(drug)과 물질사용(substance use) 태도에 대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마약류 폐해인식 혹은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있음.

- Bryan et al. (2016)¹²⁾은 스코틀랜드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마약사용자에 대한 스티그마 문제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하였음. 이 연구는 2010년에 이미 실시한 연구의 연장으로 수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총 1,114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응답자의 20%가 향락을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41%가 마약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1%는 아는 사람 중 마약사용자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마약의존에 대해서는 3%가 스스로 의존증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족 9%, 직장동료 9%, 친구 13%, 지인 13%로 나타났음. 42%가 의지가 약해서 중단이 어렵다, 37%가 중단하고자 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8%가 ‘마약 의존증은 질병이다.’에 동의하였음. ‘마약 의존증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50%가 동의하였고 ‘마약중독 회복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에는 46%가 비동의 23%가 동의하였음. ‘누구라도 마약중독자가 될 수 있다.’에는 73%가 동의하였고 ‘약물중독에 회복되고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64%가 동의하였음. ‘좋은 부모를 가진 사람은 마약중독자가 되지 않는다.’에는 12%가 동의하였고 ‘마약중독으로부터 절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에는 37%가 동의, 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12) Ruth Bryan et al., Public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rug dependence and people in recovery, Scottish Families Affected by Alcohol and Drugs (SFAD), 2016

- 국외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도구개발: 국외에서는 마약류 폐해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과 물질사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주로 기존에 마약이나 물질사용에 대한 태도 도구를 사용하였고, 자기 나라의 문화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국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사용이나 물질사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도구로 대표적인 것으로 물질사용 태도(The Substance Use Attitudes Questionnaire, SUAQ), 마약 및 물질남용 태도 척도(The Drug and Substance Abuse Attitude Scale, DSAAS), 물질사용의견설문조사(The Substance Use Opinion Survey, SUOS) 등이 있음.
- 물질사용 태도(The Substance Use Attitudes Questionnaire, SUAQ) - 성인의 물질사용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 설문지임. 항목은 약물사용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인식, 약물중독에 대한 신념, 약물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음. SUAQ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우수한 심리측정 특성(예: 신뢰도, 타당도)이 입증되었음.
- 마약 및 물질남용 태도 척도(The Drug and Substance Abuse Attitude Scale, DSAAS) -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 및 물질남용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임. 항목은 약물사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신념, 약물치료에 대한 태도, 약물사용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 등의 주제를 다룬다. DSAAS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우수한 심리측정 특성이 입증되었음.
- 물질사용의견설문조사(The Substance Use Opinion Survey, SUOS) - 성인의 물질사용 및 알코올 사용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 설문지임. 항목은 물질사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한 태도, 물질사용의 결과에 대한 신념, 물질사용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SUOS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우수한 심리측정 특성을 입증되었음.
- Kanali Mohammadi et al.(2020)은 약물남용 예방 행동에 대한 아프간 학생들의 신념을 평가하기 위한 HBM(Health Belief Model) 기반 설문지를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해 평균 연령 23세 아프간 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음¹³⁾.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고 첫째, 문헌고찰과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설문지 항목을 설계하여 HBM-SAPQA(HBM-based Substance Abuse Preventio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음. 다음 단계에서는 formal 타당도, 내용타당도 -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CVR),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그리고 요인설명분석(Factor Exploratory Analysis)을 통한 구조모형검증(structural validity)을 하여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Cronbach's alpha

13) Kanali Mohammadi et al.,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BM- based Substance Abuse Prevention Questionnaire (HBM-SAPQA) among Afghanian students, 2020, <https://doi.org/10.21203/rs.3.rs-30141/v1>(not peer reviewed)

를 통한 consistency compatibility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internal correlation)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질적 연구와 문헌 검토를 통해 74개 항목의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정량적 항목의 formal validity 측정에서는 모두 1.5 이상의 효과계수(effect coefficient)가 나타났고 각 항목의 CVR은 0.8 이상(평균 0.93), CVI는 0.79 이상이었다. FEA에서 HBM의 주요 구성과 관련된 40개 항목을 평가하여 2개 항목을 제거하여 5개 요소의 38개 항목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structural validity)을 확인했으며 internal compatibility 과정에서는 모든 요인에 대해 Cronbach's alpha의 허용값인 0.71~0.81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HBM-SAPQA 도구는 약물남용 예방 행동에 관한 아픈간 학생들의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수용 가능한 타당성/신뢰성을 보였다

○ **마약사용자에 대한 편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있음**

- Wing Hong Chui, et al.(2011)¹⁴은 중국의 청소년 마약사용자들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였음. 위험 청소년과 비위험 청소년을 포함하여 13-20세 남자 청소년 15명과 여자 청소년 11명을 5개의 초점집단으로 나누어 면담을 하였음. 위험 청소년들은 처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모집하였고 면담 후 25개 항목의 질문을 생성하였음. 13-17세 남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고 도구를 정교화하기 위해 요인의 구조를 더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5개 요인을 중심으로 12개 질문 항목을 가진 도구를 개발하여 **Chinese Youth Attitude toward Young Drug Users**로 명칭하였음. 향후 좀 더 많은 샘플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 마약사용에 대한 낙인(Stigma)은 치료 행위를 억제하는 부정적 역할을 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Seth Brown(2011)¹⁵은 3가지 물질사용 낙인(stigma) 측정도구의 심리 측정(psychometric) 특징을 평가하고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드웨스턴 대학 18-25세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만든 물질사용 낙인의 3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음.** The social distance scale for substance users(SDS-SU) 그리고 Affect scale for substance users(AS-SU)는 수용할만한 범위의 반응 정도, 양호한 내적 일치, 적은 중복 등의 특성을 보였지만 다른 한 가지 도구(Dangerousness Scale for Substance Users)는 그렇지 못하였음.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물질사용에 대한 낙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도구들이 표준화되면 높은 수준의 약물사용 낙인을 갖게 되는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임
- Annalee et al.(2021)¹⁶은 마약사용 청소년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은 물질사용 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도구는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실시하였음. 연구를 통해 Attribution questionnaire를 개정하여 **attribution questionnaire substance use disorder (AQ-SUD)**를 개발하였음. 그리고 다른 스티그마에 대한 도구로부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AQ-SUD의 특성과 어른들의 물질사용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사전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였음. 304명의 성인들에게 4가지 vignette를 보여주었고 AQ-SUD와 3가지 다른 측정도구도 작성하도록 하였음. 결

14) Wing Hong Chui et al. The Chinese Youth Attitudes toward Young Drug Users scale: An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refinement, Drug and Alcohol Review, 2012, 31, 477-482

15) Seth Brown, Standardized measures for substance use stigma, Drug Alcohol Depend, 2011, 116(1-3):137-141

16) Annalee Johnson-Kwochka et al, Development and examination of the attribution questionnaire substance use disorder (AQ-SUD) to measure public stigma towards adolescents experiencing substance use disorde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21(2021)

과적으로 AQ-SUD는 우수한 심리측정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네 가지 요인(부정적 정서, 책임감진단, 사회단절, 공감부족, negative emotions, assessment of responsibility, social disengagement and lack of empathy)의 하위척도를 보여주었음. 다른 측정도구들도 역시 좋은 특성을 보여주었고 타당성도 높았음.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태도는 다른 물질사용에 대한 태도와 크게 차이를 보였음. 이 도구를 사용한 예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태도는 다른 약물에 비해 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런 청소년들이 치료를 하도록 지지하고자 하는 동기 형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음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1절. 연구 개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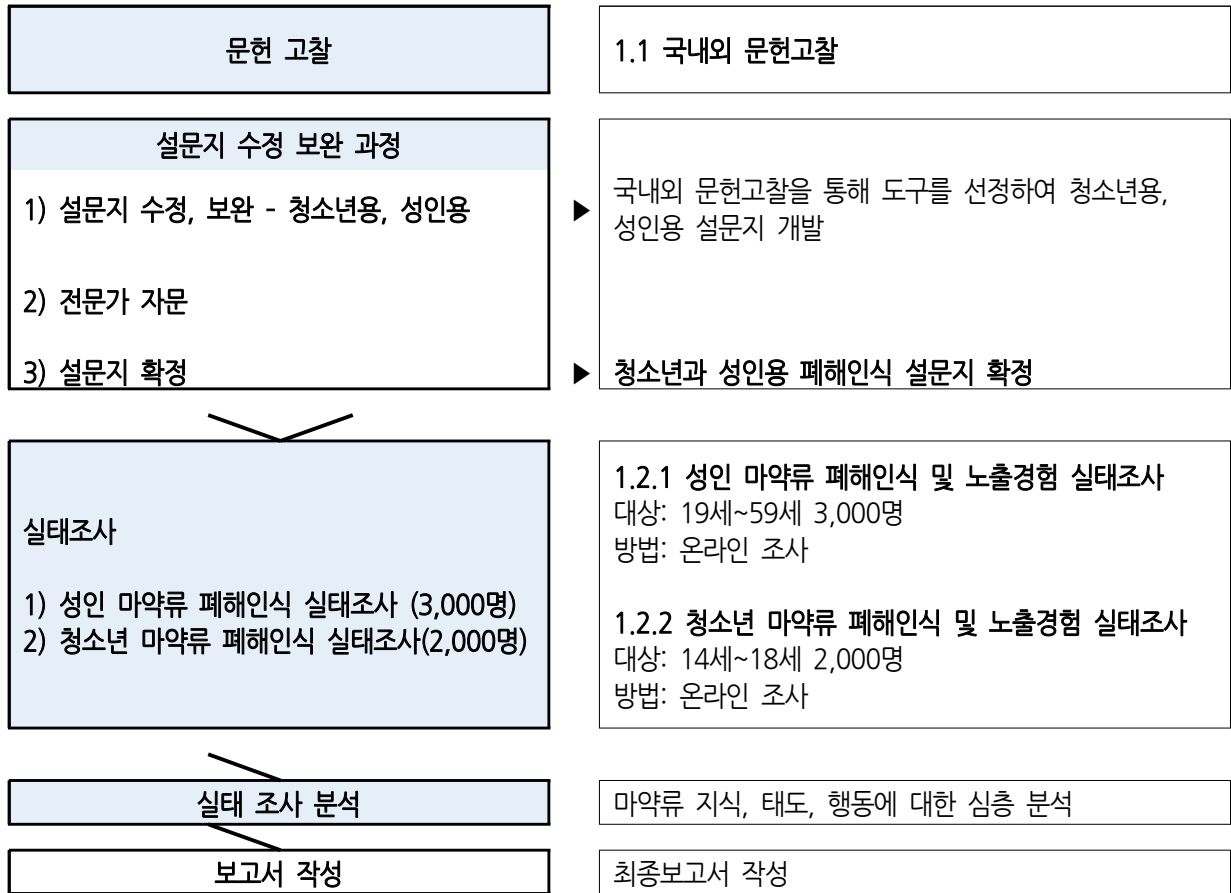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전체적인 범위와 흐름은 다음과 같음

표 2-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 내용		연구 범위
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	1.1 문헌고찰	1.1.1 국내 문헌고찰 - 마약류 인식 및 사용경험 관련 실태조사 - 기관 보고서 검토 - 마약류 범죄백서 - 마약류 사범 추이 분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실태조사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1.1.2 국외 문헌고찰 - 국외 마약류 인식 및 사용경험 관련 실태조사 - 국가 차원의 기관보고서 검토 - 미국 보건복지부 약물남용 정신 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SAMHSA) - 미국 약물남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 WHO-유엔(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마약류 폐해인식 관련 논문 검토
	1.2 실태조사 및 분석	1.3.1 청소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 - 2,000명 1.3.2 성인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 - 3,000명
과제2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 ·시설 현황 등 조사	2.1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	2.1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문헌고찰 및 리스트 확보
		2.1.2 마약류 예방·재활·시설 대상 관리자 설문조사

○ 연구용역 세부 과제1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청소년, 성인용 설문지 개발과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임.

○ 문헌고찰-> 청소년용과 성인용의 설문지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설문지 개발-> 전문가 감수 -> 실태조사 -> 최종 보고서 완성의 단계로 이루어짐.



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분석 추진전략 개요도

- 연구용역 세부과제 2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하고 있음.

문헌 고찰

2.1 국내외 문헌고찰

-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조사
- 1)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분류
 - 2)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기관의 홈페이지 분석
 - 3)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지 개발
 - 4) 전문가 자문회의

▶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분류 및 리스트 확보

▶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기관의 홈페이지 분석

▶ 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지 개발

▶ 전문가 자문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기관 대상자 설문조사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과제 2.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 조사

2절.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

가. 조사 도구 정교화

○ 2024년도 마약류 폐해인식 구성영역 및 변수(표 2-2).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 ^{함께}한걸음센터, ^{용기}한걸음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마약류 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인식

표 2-2. 2024년 설문지 구성영역 및 측정 변수

영역	변수	2024년 문항
A.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마약류 관련 인식조사 평가지표: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9개
B.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 대처, 사회, 긍정효과, 부정효과	15개
	마약류 예방행동 관련 건강신념모형: 노출가능성, 심각성, 장애요인, 예방행동의 유익성, 자기효능감	15개
	마약류 관련 지식	20개
C.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스트레스 및 외로움	2개
	마약류 사용 관련 자기과신	3개
D.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낙인: 마약류 중독에 대한 낙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낙인,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대마초 합법화, 마약류 검사, 마약류 예방 정책 예산 증대)	9개
E.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	흡연경험: 흡연여부 및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	2개
	음주경험: 음주빈도 및 음주량	2개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 16종 물질에 대한 인지 여부	16개
	구체적인 마약류 물질 사용 여부	1개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전통 마약, 술 깨는 약, 신종 마약	6개
	확인되지 않은 약물의 주변 사용 목적: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전통 마약, 술 깨는 약, 신종 마약	6개
	마약류 및 중독물질 중 사용경험	1개
	마약류 물질 사용 동기 및 획득 경로: 사용 동기, 획득 경로,	3개

영역	변수	2024년 문항
F.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획득 용이성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정책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 여부	2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 각종 캠페인 인지, 대중매체 인지, 중독예방 상담 인지, 예방교육 인지	4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 한걸음센터 및 1342 인지 여부	2개
인구사회적 특성	^{함께} 한걸음센터 사회재활자 낙인: 주관적 의견, 사회적 거리감	2개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 직업, 근로형태, 고용상태 등	14개

○ 마약류 사용 동기, 예방행동 관련 신념, 사회적 낙인 문항의 경우 지표의 구성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타당도를 재측정하였으며, 최초 설문지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통계량이 도출됨

표 2-3. 지표 내적 타당도

지표명	변수명	문항	Cronbach-α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재미 추구	0.840
		성적 즐거움 추구	
		창의력 향상	
	대처동기	스트레스 대처	0.899
		우울 대처	
		신체적 고통 대처	
	사회동기	사교 생활 향상	0.916
		사람들과 어울림	
		사회 집단 참여	
	긍정 효과 기대	피로 회복	0.793
		체중감량	
		각성효과	
부정 효과 기대	수면장애	0.925	
	소화장애		
	외모변화		
마약류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호기심에 의한 노출	0.853
		정서적 어려움에 의한 노출	
		파티 및 클럽 노출	
	심각성	정신적 문제 발생	0.926
		충동 조절 문제 발생	
		일상생활 위기	
	예방장애요인	낙인 공포	0.647
		예방 교육 부족	
		예방 인식 부족	
	예방유익성	경제적 손실 예방	0.884
		사회 문제 예방	

지표명	변수명	문항	Cronbach- α
	예방실천도	중독예방	0.880
		친구 권유 거절 가능	
		미사용 의지	
		파티 및 클럽 노출 회피	
마약류 관련 사회적 낙인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	0.856
		사회적 문제 인식	
		초계층적 문제 인식	
	중독자 개인에 대한 낙인	사용자 도덕성 부족	0.855
		사용자 사생활 문란	
		사용자 범죄자 인식	
사회적 낙인 여부 인식	처벌보다 재활 강조	0.758	
	낙인 및 오해 존재		
	공감 및 관심 강조		

나. 조사 진행

- 180만 명 규모의 온라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조사회사인 마크로밀 엠브레인 주관으로 조사가 수행 됨.
- 성인의 경우 총 응답자는 3,000명이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층화표집을 실시하여 남성과 여성 각각 1,500명,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로 각각 750명(25.0%)을 조사하였음.

3절. 시설 실태 조사

- 시설 실태 조사의 경우 실제 진행 중인 마약류 관련 사업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메일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함(설문지 전문은 부록 3 참고).
-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4. 시설 실태조사 설문 주요 내용

대분류	중분류	설문 문구 및 소분류
1. 기관의 기본 사항	설립 연도	귀 기관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년)
	기관 구성원	귀 기관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중사상 지위에 따른 직원 수 파악] (명)
2. 기관 사업	사업 시행 여부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업을 2024년 현재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3. 마약류 관련 사업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귀 기관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 외에 '마약류'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마약류' 관련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마약류 관련 사업 시행 연도(시점)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년)
	마약류 관련 사업 구성원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각 인원은 정규직인가요, 임시직인가요?
	마약류 관련 사업 인력 전문성 정도	해당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전문 자격(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투입된 인력이 전문 자격이 없을 경우, 그들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4. [치료보호기관만 해당]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 관련 환자 치료보호 현황	'마약류' 관련 환자 병상 수	귀 치료보호기관(병원)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병상 수는 ○○개로 나타납니다. 귀 기관은 현재(2024년) '마약류' 관련 환자를 위해 평균 몇 개의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마약류' 관련 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전에도 사용된 병상 수가 비슷했는지,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인지 최근 경향을 설명해 주세요.

- 조사 기관
 - 문헌 검토 및 전자 자료 검색, 식약처 제공 리스트, 한국마퇴본부 제공 리스트를 통합하여 활용
 - 정부가 2023년 전국 3곳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늘리고,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음.¹⁷⁾ 심야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의 마약류 중독 상담을 위해서임. 경찰청 통계(2021년)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야간 시간(오후 6시~오전 9시)에 54.4%가 발생해 심야 대응 공백을 메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음. 2024년 11월 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함께}한걸음센터(구: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운영중이고, 24시간 마약류 중독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도 운영 중에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함께}한걸음센터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전국의 지역별 중독관리 통합센터, 치료보호기관, 교

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0753#home>

육기관, 자조모임, 민간기관을 2024년 9월에 조사하였음.

표 2-5. 조사기관 목록(지역별 중독관리통합센터)

구분	지역	센터명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센터	서울(3)	강북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부산(3)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대구(2)	대구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인천(5)	인천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광주(5)	광주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대전(4)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울산(2)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경기(9)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강원(3)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충북(1)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남(2)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북(3)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남(2)	목포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경북(2)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경남(5)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제주(2)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합계	53개	

표 2-6. 법무부 관련 기관

구분	주소	연락처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700	055-740-558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청소년분류심사원	031-451-2683
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041-840-54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 김천시 혁신1로 8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054-911-8650

표 2-7. 자조 모임

자조 모임명	위치
International N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나눔 N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자유 NA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16, 인정빌딩 4층 인천마약류중독재활센터
서울경기북부 NA	한국 중독당사자 지원센터 1층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28길 112
어울림 NA	https://us06web.zoom.us/j/4041306206?pwd=ofkHRkhjzg9cgtDUkb1lkhVhE24RvG.1
학동 NA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8, 서울 영동교회 3층 호산나홀
열매 NA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광주 NA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6 네오빌딩 5층

부산 NA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5, 2층 (연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오늘 하루만 N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 온라인 모임(ZOOM)
당산 NA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4층
해냄 NA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 페이퍼칼라 302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중독재활센터 프로그램실
무지개 NA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대구대동 NA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69 대동병원, 대동병원 8층 소강당
온유 NA	인천 미추홀구 독정리로96(송의동) 2층 202호
오름 NA	서귀포시 화순 서서로 64번길 22
우리 NA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참사랑 NA	인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인천 참사랑병원 본관 1층 프로그램실
한일 NA	온라인 모임(ZOOM), 모임 진행방식: 각 나라 대표경험담 1인 스피치 15분, 자유발언 및 Q&A 30분
치유 NA	인천 미추홀구 독정리로 96, 202호
어울림 NA	https://us06web.zoom.us/j/4041306206?pwd=ofkHRkhjzg9cgtDUkb1lkhVhE24RvG.1
계	21개

표 2-8. 주거제공시설 등 민간기관

재활시설명	위치
서울다르크	-
경기도다르크	-
인천다르크	-
대구다르크	-
김해다르크(리본하우스)	경남 김해시 평전로 93번길 10-19
행복을 만드는 집	-
삼나무집	-
카프향나무집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47 (영일빌딩 3층)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	부산 수영로교회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절. 성인 조사의 주요 발견

가. 요약

1. 2024년도 성인 마약류 폐해 조사 결과

- 마약류 폐해에 관한 조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음. 조사는 5점 또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고, 환산 방식은 아래와 같음. 환산 과정에서 과도한 이상치를 제거하였음.

5점 리커트 척도 환산	4점 리커트 척도 환산
1점 = 0점	1점 = 0점
2점 = 25점	2점 = 33.3점
3점 = 50점	3점 = 66.7점
4점 = 75점	4점 = 100점
5점 = 100점	

- 이러한 방식으로 환산된 점수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를 통해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마약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것임.
- 1.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여부 및 접근성: 성인 응답자 중 83.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15.5%에 불과했음.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는 64.8%는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2.9%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하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 장벽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2. 마약의 상업적 용어 사용의 영향: '마약김밥'이나 '마약커피'와 같은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46.0%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26.5%으로 나타나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에 비해 19.5%p가량 높았음.
- 3. 마약류 사용 동기: 응답자들은 마약류 사용 동기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대처동기 36.0점,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67.0점(역코딩시 33.0점), 고양동기 30.3점,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25.1점, 사회동기 16.4점 순으로 응답했음.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처, 성적 쾌락, 각성효과 기대에

대한 마약류 사용 동기가 높았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처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통할 때 가장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홍보해야 함. 둘째,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성적 쾌감의 향상이나 재미의 정도가 대중의 기대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려야 함. 셋째,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은 그보다 훨씬 큰 부작용을 반드시 초래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함.

- 4.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마약류 노출 가능성 인식 점수는 19.2점,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82.0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마약류 예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은 65.5점, 예방의 유의성은 79.0점, 예방 실천도는 84.8점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인 문항을 살폈을 때는 ‘마약하는 사람’이라는 낙인 때문에 상담받기 두렵다는 응답자가 26.6%로 나타난 한편,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때 거절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85.9%였음. 또한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76.6%를 기록함. 즉 한국인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한편, 주변에서 권했을 때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 중독된 이후 치료를 받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함. 따라서 향후 마약류 사용 예방 정책은 마약류 예방 교육을 통해 대중의 민감성을 높이고, 낙인 등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장애 요인을 완화하여 예방을 용이하게 하고, 개개인의 성찰성 및 조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5. 마약류 관련 지식: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로 응답자 중 25.8%가 맞다, 29.4%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전체 중 55.2%가 오답을 선택하였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시작점으로 마약에 중독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용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인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합법적 사용과 남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오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금년도 조사부터 문항을 20개로 확대하였을 때 지식 점수는 77.2점을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2점 가량 높은 점수를 기록함.
- 6. 마약류 사용에 대한 낙인 인식: 낙인과 관련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90.3점,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낙인은 63.3점, 처벌보다 재활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54.5점으로 나타났음. 마약류 사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치료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된 한편, 마약류를 사용한 개인이 문란하다거나,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여러 문항 통틀어 절반 정도가 공유하고 있었음. 마약류 범죄에 대한 관점 측면에서는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이 23.8%, 재활을 강조하는 입장이 49.6%로, 재활 관점이 25.8%p 가량 높게 나타남. 그 외에 기타 규범 관련하여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11.9%가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74.7%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7. 마약류 물질에 대한 인지도: 16종의 마약류 물질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남성의 경우 대마초(93.7%), 코카인 (92.4%), 헤로인(88.0%)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여성은 대마초(96.9%), 코카인 (94.5%),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3.1%)의 인지도가 높았음. 주로 처방전이 필요한 각종 약물에 대한 여성의 마약류 물질 인지가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빼는 약의 경우 여성은 51.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38.7%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13.0%p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 8. 주변의 약물 사용 목적 경험의 경우 많은 순서대로 살빼는 약이 16.3%, 공부 잘하는 약이 8.1%, 술집 및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이 5.8%, 대마 4.5%,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가 3.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2.7%로 나타남. 가장 빈번하게 사용이 목격된 살 빼는 약의 경우 여성 응답자의 21.1%가 사용을 목격하여 남성의 11.5%에 비해 9.6%p 가량 높게 나타남.
- 9.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를 물었을 때 한 명 이상 대마초를 피운다는 응답이 4.0%,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10.4%,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마약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남.
- 10. 마약류 사용경험: 본 설문조사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공부잘하는 약, 살 빼는 약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경험자(구체적으로 제시된 마약류 물질 외 각종 흡입제, ‘술 깨는 약’ 등 포함)는 전체 9.3%(전년도 유사문항 기준 12.9%), 남성 8.7%(전년도 11.1%), 여성 9.9%(전년도 14.7%)로 나타났음. 반면 보다 좁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마약류 중독 물질 사용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전체 2.5%(전년도 3.1%), 남성 2.0%(전년도 3.5%), 여성 2.9%(전년도 2.7%)가 평생 마약류 사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여성 전체 응답자 중 7.8%(전년도 10.5%)가 살 빼는 약 사용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수치임
- 11. 마약류 사용 동기: 구체적인 마약류 중독 물질 사용자의 사용 동기는 살을 빼기 위해서가 70.3%, 호기심 때문에 56.8%, 주변인의 권유가 43.2% 순이었음. 남성은 호기심 때문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86.7%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81.8%로 가장 많았음.
- 12. 마약류 및 중독 물질 획득 경로: 마약류 중독 물질 획득 경로는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짜로 얻었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남성(43.3%)과 여성(40.9%) 모두 동일했음.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가까운 주변에 마약류 물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중독 행태가 전파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 전파자의 통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1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26.8%(전년도 18.6%)로, 남성 27.6%(전년도 18.6%), 여성 25.9%(전년도 18.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년도에 비해 향상됨. 함께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2%(남성 8.6%, 여성 5.9%)였으며, 용기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0.7%(남성 12.4%, 여성 8.9%)였음.
- 14.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마약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광범위한 마약류

사용자(E5, E9, E10)는 전체 응답자의 9.3%로 나타났으며, 성별이 여성, 해외 거주 경험, 마약류 노출 가능성(민감성)에 대한 높은 인식, 낮은 중독 낙인, 마약류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자의 경우, 여성, 해외 거주 경험, 마약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낮은 중독 낙인, 마약류 정책 인지도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분석됨.

- 주변의 마약류 사용 목적 경험(E7)은 전체 응답자의 21.6%로, 성별이 여성, 높은 가구소득, 해외 거주 경험, 마약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은 노출 가능성 인식, 낮은 예방행동 실천도, 낮은 중독 낙인, 높은 사회적 낙인 인식, 마약류 정책 인지도가 목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주변의 마약류 사용자 유무(E8)에서는 성별이 여성, 연령이 낮은 경우, 해외 거주 경험, 마약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은 노출 가능성 인식, 낮은 예방행동 유의성, 낮은 중독 낙인, 마약류 정책 인지도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분석됨.
-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F1)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F2)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마약류 관련 지식, 노출 가능성 인식, 홍보 및 교육 경험 등이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정책 인지에서는 남성, 높은 교육 수준, 예방실천도, 예방장애요인의 낮음, 사회적 낙인 인식이 인지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됨.

나. 성인 연구대상자 특징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층화표집을 실시하여 남성과 여성 각각 1,500명,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로 각각 750명(25.0%)을 조사하였음.
- 교육수준은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자가 4명(0.1%), 중학교 졸업자가 6명(0.2%), 고등학교 졸업 611명(20.4%), 전문대 졸업자가 513명(17.1%),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1,586명(52.9%), 대학원 이상이 280명(9.3%)으로 대학교 졸업자가 과반을 차지함.
-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1,465명(48.8%), 동거 및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25명(47.5%), 사별이 8명(0.3%), 이혼 혹은 별거가 102명(3.4%)이었음.
- 근로형태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2,007명(88.8%)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8명(3.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52명(6.7%), 무급가족종사자가 22명(1.0%)이었음.
- 고용상태는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1,818명(90.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근로자가 148명(7.4%),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41명(2.0%)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 근로자 중 1,651명(82.3%)이 정규직이었고, 356명(17.7%)이 비정규직
-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1,273명(42.4%), 없는 경우가 1,727명(57.6%)이었음.

표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성별	남성	1500	100.0	1500	100.0		
	여성	1500	100.0			1500	100.0
연령대	19-29	750	25.0	375	25.0	375	25.0
	30-39	750	25.0	375	25.0	375	25.0
	40-49	750	25.0	375	25.0	375	25.0
	50-59	750	25.0	375	25.0	375	25.0
교육수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	4	0.1	2	0.1	2	0.1
	중학교 졸업	6	0.2	4	0.3	2	0.1
	고등학교 졸업	611	20.4	316	21.1	295	19.7
	전문대 졸업	513	17.1	238	15.9	275	18.3
	(4년제)대학교 졸업	1586	52.9	786	52.4	800	53.3
	대학원 이상	280	9.3	154	10.3	126	8.4
혼인상태	미혼	1465	48.8	772	51.5	693	46.2
	배우자 있음(동거, 사실혼 포함)	1425	47.5	681	45.4	744	49.6
	사별	8	0.3	2	0.1	6	0.4
	이혼 혹은 별거	102	3.4	45	3.0	57	3.8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2007	88.8	1050	86.2	957	91.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8	3.5	57	4.7	21	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2	6.7	99	8.1	53	5.1
	무급가족종사자	22	1.0	12	1.0	10	1.0
고용상태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1818	90.6	970	92.4	848	88.6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148	7.4	57	5.4	91	9.5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41	2.0	23	2.2	18	1.9
정규직 유무	정규직	1651	82.3	914	87.0	737	77.0
	비정규직	356	17.7	136	13.0	220	23.0
자녀 유무	있다	1273	42.4	612	40.8	661	44.1
	없다	1727	57.6	888	59.2	839	55.9

다. 성인 본조사 결과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1) 마약류에 대한 인식

- A1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물음**에 응답자 중 2,494명(83.1%)이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긍정 응답자는 464명(15.5%)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 A2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2,744명(91.5%)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명(6.8%)에 그쳤음.
- A3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는 35명(1.2%)이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334명(11.1%)이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반면, 1,944명(64.8%)은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687명(22.9%)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하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 장벽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A4 **마약류의 종류와 특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212명(7.1%),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772명(25.7%)으로 나타남. 반면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1,976명(65.9%)으로 가장 많았고,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답은 40명(1.3%)이었음.
- A5 **물질의 위험 인식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 마약류, 임시마약류로 세분화하여 물었을 때** 환각물질이 위험하다는 응답은 2,752명(91.8%), 마약류가 위험하다는 응답은 2,907명(96.9%), 임시마약류가 위험하다는 응답은 2,545명(84.9%)으로 상대적으로 임시마약류가 낮게 나타남. 임시마약류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47명(11.6%)으로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라는 표현에 대중이 친숙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마약류 사용 위험의 공감도, 실천도

- A6 **“마약김밥”이나 “마약커피” 등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친숙한 느낌을 주느냐**는 물음에는 1,380명(46.0%)이 그렇다라는 응답을, 794명(26.5%)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하여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에 비해 19.5%p 가량 지지자가 많았음.
- A7 **마약류 사용 위험의 실천도를 물었을 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느냐는 물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은 2,542명(84.8%), 요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45명(4.8%)으로 나타났음.
- A8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2,406명(80.2%)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86명(2.9%)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A9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향이 있는
 으냐는 물음엔 2,217명(73.9%)이 긍정적인 응답을, 131명(4.4%)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음.

표 3-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귀하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549	18.3	274	18.3	275	18.3
	그렇지 않다	1945	64.8	922	61.5	1023	68.2
	그렇다	368	12.3	227	15.1	141	9.4
	매우 그렇다	96	3.2	60	4.0	36	2.4
	모르겠다	42	1.4	17	1.1	25	1.7
2)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11	0.4	7	0.5	4	0.3
	심각하지 않다	191	6.4	132	8.8	59	3.9
	심각하다	1400	46.7	698	46.5	702	46.8
	매우 심각하다	1344	44.8	643	42.9	701	46.7
3) 귀하는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35	1.2	24	1.6	11	0.7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334	11.1	213	14.2	121	8.1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44	64.8	958	63.9	986	65.7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687	22.9	305	20.3	382	25.5
4)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212	7.1	89	5.9	123	8.2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772	25.7	378	25.2	394	26.3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1976	65.9	1001	66.7	975	65.0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40	1.3	32	2.1	8	0.5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	전혀 위험하지 않다	8	0.3	4	0.3	4	0.3
	위험하지 않다	175	5.8	99	6.6	76	5.1
	위험하다	1472	49.1	723	48.2	749	49.9
	매우 위험하다	1280	42.7	647	43.1	633	42.2
	잘 모르겠다	65	2.2	27	1.8	38	2.5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2) 마약류	전혀 위험하지 않다	3	0.1	3	0.2	0	0.0
	위험하지 않다	19	0.6	13	0.9	6	0.4
	위험하다	429	14.3	250	16.7	179	11.9
	매우 위험하다	2478	82.6	1196	79.7	1282	85.5
	잘 모르겠다	71	2.4	38	2.5	33	2.2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	전혀 위험하지 않다	6	0.2	5	0.3	1	0.1
	위험하지 않다	102	3.4	67	4.5	35	2.3
	위험하다	1160	38.7	600	40.0	560	37.3
	매우 위험하다	1385	46.2	666	44.4	719	47.9
	잘 모르겠다	347	11.6	162	10.8	185	12.3
6)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 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135	4.5	74	4.9	61	4.1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659	22.0	361	24.1	298	19.9
	보통	826	27.5	437	29.1	389	25.9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1198	39.9	549	36.6	649	43.3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182	6.1	79	5.3	103	6.9
7) 만약 귀하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24	0.8	16	1.1	8	0.5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121	4.0	59	3.9	62	4.1
	보통	313	10.4	183	12.2	130	8.7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1268	42.3	639	42.6	629	41.9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1274	42.5	603	40.2	671	44.7
8)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경우, 귀하는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11	0.4	9	0.6	2	0.1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75	2.5	48	3.2	27	1.8
	보통	508	16.9	300	20.0	208	13.9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1608	53.6	779	51.9	829	55.3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798	26.6	364	24.3	434	28.9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9)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귀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5	0.5	11	0.7	4	0.3
	그렇지 않다	116	3.9	66	4.4	50	3.3
	보통	652	21.7	351	23.4	301	20.1
	그렇다	1604	53.5	785	52.3	819	54.6
	매우 그렇다	613	20.4	287	19.1	326	21.7

2.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1) 마약류 사용 동기

- B1(1) 마약류 사용 고양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라는 질문에 긍정(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831명(27.7%), 부정(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자는 1,836명(61.2%)으로 부정 응답자가 더 많았음.
- B1(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912명(30.4%)이 긍정적 응답을, 1,643명(54.7%)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1(3) 마약류 사용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지문에는 310명(10.4%)이 긍정적 응답을, 2,264명(75.5%)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1(1)~(3) 마약류 사용의 고양동기는 기분을 상승시키는 등 사람을 들뜨게 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됨. 고양동기 세 개 문항의 평균값은 2.21/5.00점으로, 표준편차는 1.10점. 3개 고양동기 중에서는 성적인 동기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B1(4) 마약류 사용 대처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응답을 한 사람은 768명(25.6%),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아니라는 응답은 1,787명(59.6%)으로 부정 응답자가 34.0%p 더 많았음.
- B1(5) 마약류 사용이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는 790명(26.3%), 부정적인 응답자는 1,766명(58.8%)이었음.
- B1(6) 마약류 사용이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응답자 중 1,087명(36.2%)이 긍정 응답을, 1,357명(45.2%)가 부정 응답을 보여 부정응답이 9.0%p 가량 더 높았음.
- B1(4)~(6) 마약류 사용의 대처동기는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으로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것임. 대처동기의 평균값은 2.44/5.00점으로, 표준편차는 1.20점. 3

개 대처동기 중에서는 신체 고통 대처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B1(7) 마약류 사용 사회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이 사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185명(6.1%), 부정 응답자는 2,468명(82.3%)이었음.
- B1(8) 마약류 사용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참여자 중 201명(6.7%),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448명(81.6%)이었음.
- B1(9) 마약류 사용이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라는 물음에 긍정 응답자는 155명(5.2%), 부정 응답자는 2,548명(85.0%)으로 나타남.
- B1(7)~(9) 마약류 사용의 사회동기는 응답자들이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됨. 사회동기에 대한 평균값은 1.66/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86점. 3개 사회동기 중에서는 사교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B1(10) 마약류 사용 효과의 긍정인식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246명(8.2%), 부정 응답자가 2,343명(78.1%)으로 기록됨.
- B1(11) 마약류 사용이 신체 에너지를 증가시켜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물음에는 257명(8.6%)이 긍정 응답을, 2,344명(78.2%)이 부정 응답을 보임.
- B1(12) 마약류 사용이 각성효과에 도움을 준다는 물음에는 853명(28.5%)이 긍정 응답을, 1,605명(53.5%)이 부정 응답을 보였음.
- B1(10)~(12) 마약류 사용 효과의 긍정인식 혹은 긍정적 기대(positive expectancy)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가 본인의 신체 및 정신에 미치는 효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임. 긍정인식 평균값은 2.00/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94점. 3개 긍정인식 중에서는 각성효과에 대한 긍정인식이 가장 높았음.
- B1(13) 마약류 사용 효과의 부정인식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시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는 2,048명(68.3%)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545명(18.1%)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B1(14) 마약류 사용으로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는 1,822명(60.7%)이 긍정 응답을, 587명(19.6%)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1(15) 마약류 사용으로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084명(69.5%)이 긍정적인 응답을, 522명(17.4%)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1(13)~(15) 마약류 사용 효과의 부정인식 혹은 부정적 기대(negative expectancy)는 마약류가 본인의 신체 및 정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나타내는 것임. 부정인식에 대한 평균값은 3.68/5.00점(역코딩시 2.32점)으로, 표준편차는 1.20점. 3개 부정인식 문항 중에서는 소화장애에 대한 부정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5개 동기를 비교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대처동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표 3-3.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성인)

	고양동기	대처동기	사회동기	마약류효과 긍정인식	마약류효과 부정인식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2.21(1.10)	2.44(1.20)	1.66(0.86)	2.00(0.94)	3.68(1.20)
2024년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30.34(27.62)	35.98(29.88)	16.43(21.44)	25.12(23.55)	67.04(29.98)
2023년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31.3(27.57)	37.8(29.65)	15.9(20.84)	26.2(24.24)	71.8(26.41)

표 3-4.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 통계량(성인)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2.31(1.31)	32.82(32.82)
2) 마약류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2.45(1.34)	36.18(33.58)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88(1.04)	22.03(26.11)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30(1.29)	32.52(32.37)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33(1.29)	33.37(32.33)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68(1.34)	42.05(33.56)
7) 마약류 사용은 사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70(0.93)	17.49(23.29)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1.68(0.95)	16.97(23.80)
9) 마약류 사용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1.59(0.90)	14.84(22.41)
10)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77(1.00)	19.27(24.91)
11)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79(1.01)	19.84(25.13)
12)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45(1.33)	36.26(33.17)
13)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3.70(1.28)	67.44(32.04)
14)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3.55(1.27)	63.87(31.65)
1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3.79(1.31)	69.83(32.80)

- 성인의 마약류 사용 동기를 살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동기 요인은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처, 성적 쾌락, 각성효과 기대였음. 따라서 당국은 첫째,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처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통할 때 가장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홍보해야 함. 둘째,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성적 쾌감의 향상이나 재미의 정도가 대중의 기대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려야 함. 셋째,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기능’은 그보다 훨씬 큰 부작용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됨을 주지시켜야 함.

표 3-5.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81	39.4	604	40.3	577	38.5
	그렇지 않다	655	21.8	330	22.0	325	21.7
	보통	333	11.1	187	12.5	146	9.7
	그렇다	706	23.5	315	21.0	391	26.1
	매우 그렇다	125	4.2	64	4.3	61	4.1
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93	36.4	547	36.5	546	36.4
	그렇지 않다	550	18.3	282	18.8	268	17.9
	보통	445	14.8	247	16.5	198	13.2
	그렇다	747	24.9	336	22.4	411	27.4
	매우 그렇다	165	5.5	88	5.9	77	5.1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43	48.1	701	46.7	742	49.5
	그렇지 않다	821	27.4	432	28.8	389	25.9
	보통	426	14.2	218	14.5	208	13.9
	그렇다	269	9.0	123	8.2	146	9.7
	매우 그렇다	41	1.4	26	1.7	15	1.0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96	39.9	591	39.4	605	40.3
	그렇지 않다	591	19.7	333	22.2	258	17.2
	보통	445	14.8	227	15.1	218	14.5
	그렇다	651	21.7	287	19.1	364	24.3
	매우 그렇다	117	3.9	62	4.1	55	3.7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41	38.0	563	37.5	578	38.5
	그렇지 않다	625	20.8	341	22.7	284	18.9
	보통	444	14.8	221	14.7	223	14.9
	그렇다	669	22.3	310	20.7	359	23.9
	매우 그렇다	121	4.0	65	4.3	56	3.7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886	29.5	451	30.1	435	29.0
	그렇지 않다	471	15.7	268	17.9	203	13.5
	보통	556	18.5	294	19.6	262	17.5
	그렇다	885	29.5	403	26.9	482	32.1
	매우 그렇다	202	6.7	84	5.6	118	7.9
7) 마약류 사용은 사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646	54.9	793	52.9	853	56.9
	그렇지 않다	822	27.4	431	28.7	391	26.1
	보통	347	11.6	186	12.4	161	10.7
	그렇다	157	5.2	71	4.7	86	5.7
	매우 그렇다	28	0.9	19	1.3	9	0.6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743	58.1	851	56.7	892	59.5
	그렇지 않다	705	23.5	371	24.7	334	22.3
	보통	351	11.7	179	11.9	172	11.5
	그렇다	175	5.8	83	5.5	92	6.1
	매우 그렇다	26	0.9	16	1.1	10	0.7

9)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853	61.8	899	59.9	954	63.6
	그렇지 않다	695	23.2	365	24.3	330	22.0
	보통	297	9.9	156	10.4	141	9.4
	그렇다	128	4.3	64	4.3	64	4.3
	매우 그렇다	27	0.9	16	1.1	11	0.7
10)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616	53.9	771	51.4	845	56.3
	그렇지 않다	727	24.2	394	26.3	333	22.2
	보통	411	13.7	221	14.7	190	12.7
	그렇다	221	7.4	99	6.6	122	8.1
	매우 그렇다	25	0.8	15	1.0	10	0.7
11)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65	52.2	774	51.6	791	52.7
	그렇지 않다	779	26.0	418	27.9	361	24.1
	보통	399	13.3	208	13.9	191	12.7
	그렇다	224	7.5	87	5.8	137	9.1
	매우 그렇다	33	1.1	13	0.9	20	1.3
12)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70	35.7	533	35.5	537	35.8
	그렇지 않다	535	17.8	304	20.3	231	15.4
	보통	542	18.1	281	18.7	261	17.4
	그렇다	680	22.7	305	20.3	375	25.0
	매우 그렇다	173	5.8	77	5.1	96	6.4
13)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337	11.2	184	12.3	153	10.2
	그렇지 않다	208	6.9	131	8.7	77	5.1
	보통	407	13.6	216	14.4	191	12.7
	그렇다	1121	37.4	537	35.8	584	38.9
	매우 그렇다	927	30.9	432	28.8	495	33.0
14)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339	11.3	186	12.4	153	10.2
	그렇지 않다	248	8.3	142	9.5	106	7.1
	보통	591	19.7	293	19.5	298	19.9
	그렇다	1054	35.1	521	34.7	533	35.5
	매우 그렇다	768	25.6	358	23.9	410	27.3
15)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332	11.1	181	12.1	151	10.1
	그렇지 않다	190	6.3	120	8.0	70	4.7
	보통	394	13.1	209	13.9	185	12.3
	그렇다	935	31.2	468	31.2	467	31.1
	매우 그렇다	1149	38.3	522	34.8	627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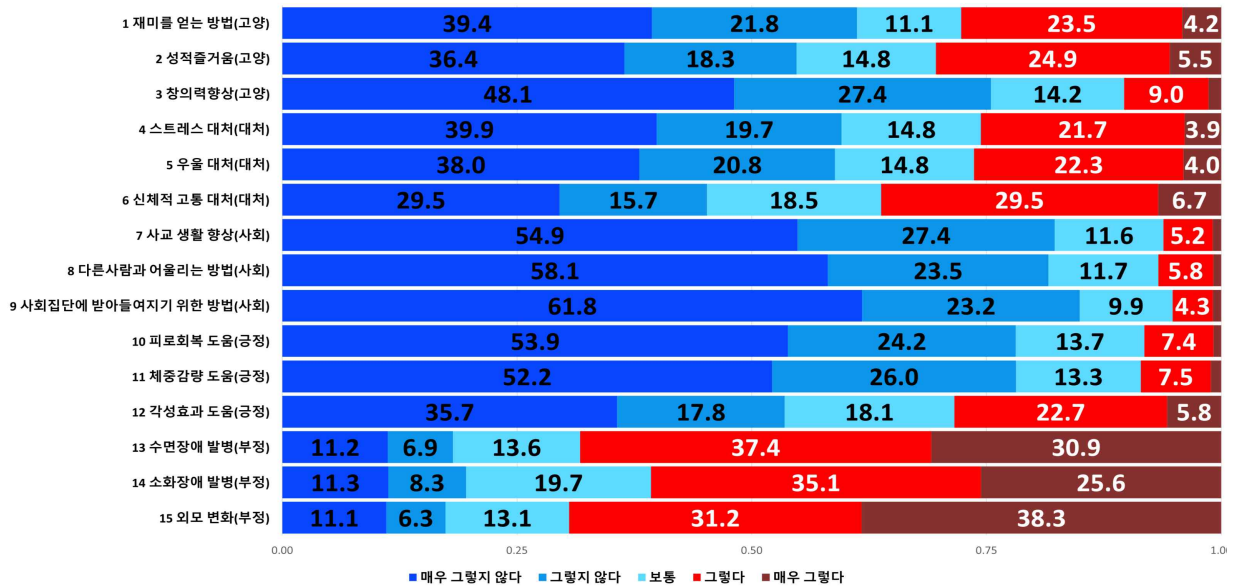


그림 3-1.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성인)

2)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 B2(1) 마약류 사용의 민감성에 대해 물었을 때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41명(8.0%),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451명(81.7%)이었음.
- B2(2)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는 318명(10.6%)이 긍정적 응답을, 2,309명(76.9%)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2(3)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는 313명(10.4%)이 긍정적 응답을, 2,402명(80.2%)이 부정적 응답을 기록하였음.
- B2(1)~(3) 마약류 사용의 민감성에 대한 평균값은 1.77/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91이었음. 3개 민감성 문항 중에서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 노출 가능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B2(4) 마약류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315명(77.2%),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501명(16.7%)이었음.
- B2(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2,356명(78.6%)이 긍정 응답을, 458명(15.3%)이 부정 응답을 보임.
- B2(6) 마약류 사용이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486명(82.8%)이 긍정 응답을, 351명(11.7%)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2(4)~(6) 마약류 사용의 심각성에 대한 평균값은 4.10/5.00점으로 표준편차는 1.21이었음. 3개 심각성 문항 중에서는 일상적인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B2(7)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하는 사람’이라는 낙인 때문에 상담받기 두렵다는 응답자는 796명(26.6%)이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1,549명(51.6%)이었음.
- B2(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2,299명(76.6%), 부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288명(9.6%)이었음.
- B2(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268명(75.6%),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310명(10.3%)이었음.
- B2(7)~(9)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3.49/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86이었음. 3개 장애요인 문항 중에서는 예방 교육 부족 긍정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B2(10)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이득요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예방 교육이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2,251명(75.1%),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340명(11.4%)이었음.
- B2(11) 마약류 예방 교육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2,342명(78.1%), 부정 응답자는 253명(8.4%)이었음.
- B2(12) 마약류 예방 교육이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325명(77.5%)이 긍정적 응답을, 229명(7.6%)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2(10)~(12)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이득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3.99/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94였음. 3개 이득요인 문항 중에서는 사회문제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음.
- B2(13)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자기효능감에 관해서는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때 거절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2,576명(85.9%),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203명(6.8%)으로 기록됨.
- B2(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2,403명(80.1%), 부정 응답자가 233명(7.8%)이었음.
- B2(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2,254명(75.2%), 부정 응답자가 271명(9.0%)으로 나타남.
- B2(13)~(15) 마약류 예방행동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균값은 4.23/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94였음. 3개 자기효능감 문항 중에서는 친구가 마약류를 권할 때 거절할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6.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성인)

	노출가능성 (민감도)	마약류 심각성	예방장애요인*	예방유익성	예방실천도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77(0.91)	4.10(1.21)	3.49(0.86)	3.99(0.94)	4.23(0.94)
2024년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9.23(22.82)	82.01(25.99)	65.48(17.81)	79.03(18.38)	84.78(17.43)
2023년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9.8(23.62)	81.8(26.83)	65.0(19.19)	79.1(20.00)	84.9(19.39)

* 예방장애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요인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낮은 점수가 바람직한 점수임

표 3-7.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성인)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민감성	호기심 노출 가능성	1.74(0.98)	18.30(24.37)
	우울감 노출 가능성	1.86(1.06)	21.56(26.64)
	파티·클럽 노출 가능성	1.72(1.08)	17.83(27.10)
심각성	환각·환청 정신 문제 가능성	3.99(1.34)	79.04(30.31)
	충동조절 불가능성	4.06(1.31)	80.98(29.07)
	일상적 삶 위협 가능성	4.26(1.22)	86.01(25.85)
장애요인 (역코딩)*	사회적 낙인 가능성	2.56(1.24)	40.55(31.06)
	예방교육 부족정도 인식	3.97(1.04)	78.22(21.46)
	사용예방 인식 부족 정도	3.95(1.06)	77.66(21.97)
유익성	예방교육 경제적 손실 예방정도	3.94(1.11)	77.67(23.93)
	예방교육 사회적 손실 예방정도	4.04(1.03)	80.18(21.07)
	예방교육 중독예방정도	4.01(0.99)	79.25(19.65)
자기효능감	친구 마약권유 거절 효능감	4.38(1.01)	88.71(19.17)
	타인관계 문제 효능감	4.20(1.04)	84.06(20.79)
	파티·클럽 효능감	4.10(1.09)	81.57(22.77)
전체 (장애요인 역코딩 후 계산)*		3.32(1.04)	66.10(10.70)

* 예방장애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요인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전체 점수를 계산 시에는 역코딩 후 합산하였음

- 건강신념모형 기반 마약류 사용 신념에 대한 조사 결과 전년도 조사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낮은 민감성, 높은 심각성, 높은 장애 및 이득 요인, 매우 높은 자기효능감이 발견됨. 따라서 향후 마약류 사용 예방 정책은 대중의 민감성 수준 제고, 장애 요인 완화, 개개인의 성찰성 및 조심성 강

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605	53.5	698	46.5	907	60.5
	그렇지 않다	846	28.2	459	30.6	387	25.8
	보통	308	10.3	195	13.0	113	7.5
	그렇다	204	6.8	122	8.1	82	5.5
	매우 그렇다	37	1.2	26	1.7	11	0.7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92	49.7	730	48.7	762	50.8
	그렇지 않다	817	27.2	415	27.7	402	26.8
	보통	373	12.4	197	13.1	176	11.7
	그렇다	258	8.6	131	8.7	127	8.5
	매우 그렇다	60	2.0	27	1.8	33	2.2
3) 나는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824	60.8	835	55.7	989	65.9
	그렇지 않다	578	19.3	324	21.6	254	16.9
	보통	285	9.5	173	11.5	112	7.5
	그렇다	241	8.0	130	8.7	111	7.4
	매우 그렇다	72	2.4	38	2.5	34	2.3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344	11.5	184	12.3	160	10.7
	그렇지 않다	157	5.2	101	6.7	56	3.7
	보통	184	6.1	124	8.3	60	4.0
	그렇다	825	27.5	434	28.9	391	26.1
	매우 그렇다	1490	49.7	657	43.8	833	55.5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312	10.4	175	11.7	137	9.1
	그렇지 않다	146	4.9	97	6.5	49	3.3
	보통	186	6.2	123	8.2	63	4.2
	그렇다	767	25.6	419	27.9	348	23.2
	매우 그렇다	1589	53.0	686	45.7	903	60.2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245	8.2	144	9.6	101	6.7
	그렇지 않다	106	3.5	70	4.7	36	2.4
	보통	163	5.4	122	8.1	41	2.7
	그렇다	604	20.1	340	22.7	264	17.6
	매우 그렇다	1882	62.7	824	54.9	1058	70.5
7)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	매우 그렇지 않다	768	25.6	407	27.1	361	24.1
	그렇지 않다	781	26.0	360	24.0	421	28.1
	보통	655	21.8	346	23.1	309	20.6
	그렇다	605	20.2	299	19.9	306	20.4
	매우 그렇다	191	6.4	88	5.9	103	6.9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132	4.4	88	5.9	44	2.9
	그렇지 않다	156	5.2	111	7.4	45	3.0
	보통	413	13.8	259	17.3	154	10.3
	그렇다	1269	42.3	650	43.3	619	41.3
	매우 그렇다	1030	34.3	392	26.1	638	42.5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135	4.5	91	6.1	44	2.9
	그렇지 않다	175	5.8	113	7.5	62	4.1
	보통	422	14.1	282	18.8	140	9.3
	그렇다	1251	41.7	614	40.9	637	42.5
	매우 그렇다	1017	33.9	400	26.7	617	41.1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70	5.7	91	6.1	79	5.3
	그렇지 않다	170	5.7	98	6.5	72	4.8
	보통	409	13.6	230	15.3	179	11.9
	그렇다	1163	38.8	597	39.8	566	37.7
	매우 그렇다	1088	36.3	484	32.3	604	40.3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26	4.2	80	5.3	46	3.1
	그렇지 않다	127	4.2	84	5.6	43	2.9
	보통	405	13.5	240	16.0	165	11.0
	그렇다	1196	39.9	591	39.4	605	40.3
	매우 그렇다	1146	38.2	505	33.7	641	42.7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6	3.5	68	4.5	38	2.5
	그렇지 않다	123	4.1	75	5.0	48	3.2
	보통	446	14.9	241	16.1	205	13.7
	그렇다	1298	43.3	654	43.6	644	42.9
	매우 그렇다	1027	34.2	462	30.8	565	37.7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4	3.8	60	4.0	54	3.6
	그렇지 않다	89	3.0	63	4.2	26	1.7
	보통	221	7.4	150	10.0	71	4.7
	그렇다	695	23.2	366	24.4	329	21.9
	매우 그렇다	1881	62.7	861	57.4	1020	68.0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0	3.7	69	4.6	41	2.7
	그렇지 않다	123	4.1	58	3.9	65	4.3
	보통	364	12.1	192	12.8	172	11.5
	그렇다	873	29.1	448	29.9	425	28.3
	매우 그렇다	1530	51.0	733	48.9	797	53.1
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5	3.8	63	4.2	52	3.5
	그렇지 않다	156	5.2	80	5.3	76	5.1
	보통	475	15.8	236	15.7	239	15.9
	그렇다	809	27.0	415	27.7	394	26.3
	매우 그렇다	1445	48.2	706	47.1	739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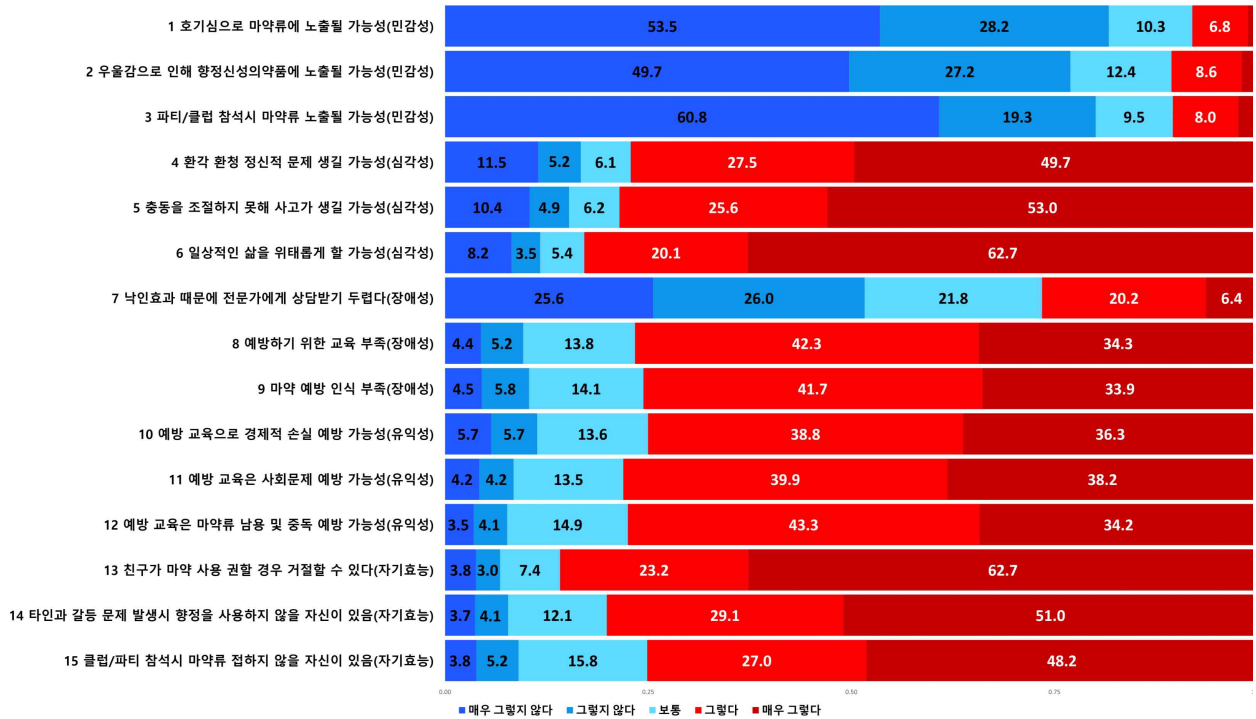


그림 3-2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성인)

3) 약물 사용 관련 지식(기본)

- B3(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는 물음에는 2,692명(89.7%)이 맞다, 69명(2.3%)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239명(8.0%)는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89.7%였음.
- B3(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687명(89.6%)이 맞다, 66명(2.2%)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247명(8.2%)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89.6%였음.
- B3(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물음에는 1,687명(56.2%)이 맞다, 130명(4.3%)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183명(39.4%)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56.2%였음.
- B3(4)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는 물음에는 2,276명(75.9%)이 맞다, 79명(2.6%)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645명(21.5%)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75.9%였음.
- B3(5)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775명(25.8%)이 맞다, 1,342명(44.7%)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883명(29.4%)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44.7%였음.
- B3(6) GHB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1,870명(62.3%)이 맞다, 64명(2.1%)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066명(35.5%)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62.3%였음.
- B3(7) 대마초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448명(14.9%)이 맞다, 1,881명(62.7%)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671명(22.4%)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62.7%였음.

- B3(8) 본드, 부탄가스, 테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는 물음에는 2,609명(87.0%)이 맞다, 76명(2.5%)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315명(10.5%)가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89%였음.
- B3(9) 마약은 한 번 사용으로는 중독되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361명(12.0%)이 맞다, 1,995명(66.5%)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644명(21.5%)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66.5%였음.
- B3(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물음에는 2,660명(88.7%)이 맞다, 81명(2.7%)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259명(8.6%)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88.7%였음.
- 10개 기본 지식문항 중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물음에 대한 오답자가 가장 많았음.

4) 약물 사용 관련 지식(추가)

- B4(1)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해도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중독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613명(87.1%)이 맞다, 92명(3.1%)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295명(9.8%)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87.1%였음.
- B4(2) 마약류인지 모르고 운반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2,547명(84.9%)이 맞다, 98명(3.3%)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355명(11.8%)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84.9%였음.
- B4(3) 마약류를 사용하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496명(83.2%)이 맞다, 81명(2.7%)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423명(14.1%)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83.2%였음.
- B4(4) 마약류를 사용하면 심각한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는 2,751명(91.7%)이 맞다, 60명(2.0%)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89명(6.3%)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91.7%였음.
- B4(5) 마약류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면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학적인 도움은 필요없다는 물음에는 372명(12.4%)이 맞다, 2,410명(80.3%)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218명(7.3%)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80.3%였음.
- B4(6)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310명(10.3%)이 맞다, 2,200명(73.3%)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490명(16.3%)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73.3%였음.
- B4(7) 필로폰(히로뽕)에 중독되면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물음에는 1,944명(64.8%)이 맞다, 76명(2.5%)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980명(32.7%)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64.8%였음.
- B4(8) 살빼는 약(펜타민, 나비약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295명(9.8%)이 맞다, 1,933명(64.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772명(25.7%)가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64.4%였음.
- B4(9) 주의력결핍장애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잘하는 약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물음에는 431명(14.4%)이 맞다, 1,425명(47.5%)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144명(38.1%)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47.5%였음.

- B4(10) 엑스터시와 같은 클럽 약물은 환각이나 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224명(7.5%)이 맞다, 2,132명(71.1%)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644명(21.5%)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정답률은 71.1%였음.
- 10개 추가 지식문항 중에서는 주의력결핍장애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약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물음에 대한 오답자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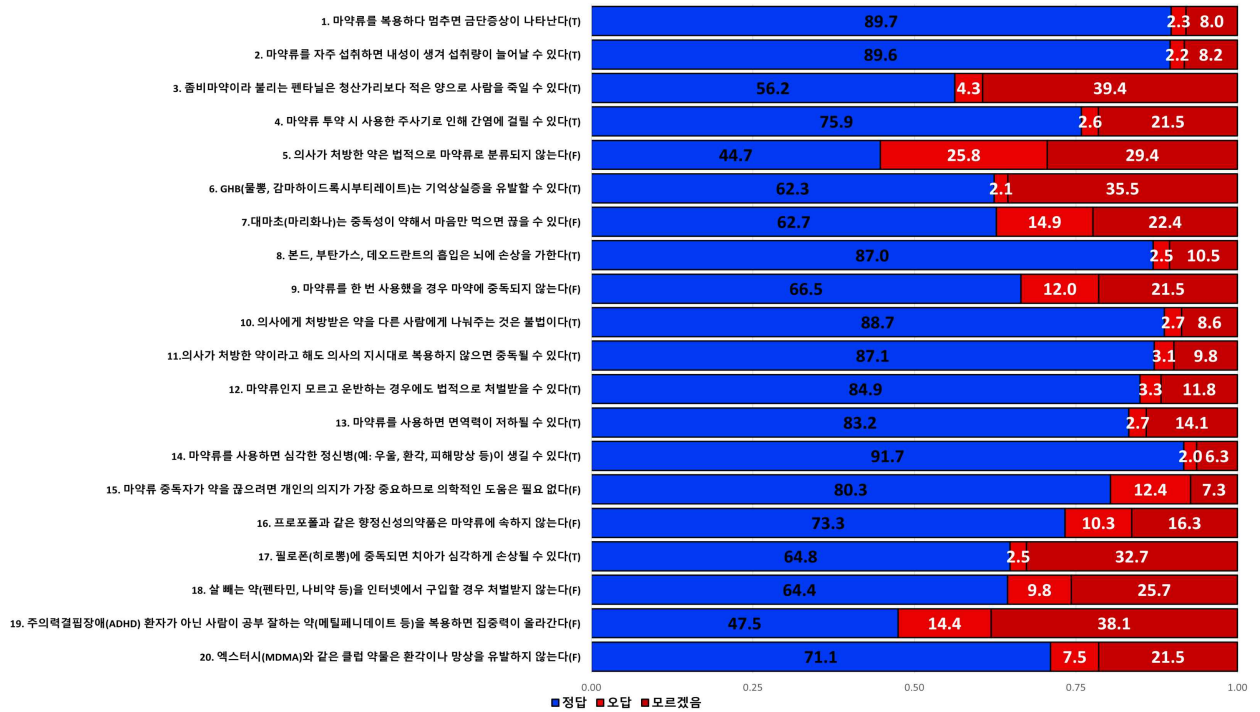


그림 3-3. 마약류 지식 정답률(성인)

표 3-9. 마약류 지식 정답률(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마약류를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T)	2692	89.7	1304	86.9	1388	92.5
2) 마약류를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T)	2687	89.6	1305	87.0	1382	92.1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T)	1687	56.2	851	56.7	836	55.7
4) 마약류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감염에 걸릴 수 있다(T)	2276	75.9	1144	76.3	1132	75.5
5)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F)	1342	44.7	673	44.9	669	44.6
6) GHB(물병,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T)	1870	62.3	933	62.2	937	62.5
7)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F)	1881	62.7	914	60.9	967	64.5
8)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T)	2609	87.0	1282	85.5	1327	88.5
9) 마약류를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F)	1995	66.5	988	65.9	1007	67.1
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T)	2660	88.7	1296	86.4	1364	90.9
11)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해도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중독될 수 있다(T)	2613	87.1	1281	85.4	1332	88.8
12) 마약류인지 모르고 운반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T)	2547	84.9	1244	82.9	1303	86.9
13) 마약류를 사용하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T)	2496	83.2	1223	81.5	1273	84.9
14) 마약류를 사용하면 심각한 정신병(예: 우울, 환각, 피해망상 등)이 생길 수 있다(T)	2751	91.7	1339	89.3	1412	94.1
15) 마약류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면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학적인 도움은 필요 없다(F)	2410	80.3	1142	76.1	1268	84.5
16)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속하지 않는다(F)	2200	73.3	1071	71.4	1129	75.3
17) 필로폰(히로뽕)에 중독되면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T)	1944	64.8	978	65.2	966	64.4
18) 살 빼는 약(펜타민, 나비약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F)	1933	64.4	954	63.6	979	65.3
19) 주의력결핍장애(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등)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F)	1425	47.5	745	49.7	680	45.3
20) 엑스터시(MDMA)와 같은 클럽 약물은 환각이나 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F)	2132	71.1	1048	69.9	1084	72.3
전체 평균(표준편차)	77.18(17.31)		77.10(17.77)		77.25(16.87)	

T=True, F=False;

3.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1) 자각된 스트레스와 외로움

- C1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는 물음에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 187명(6.2%), 조금 느끼는 편이다 1,670명(55.7%), 많이 느끼는 편이다 913명(30.4%), 대단히 많이 느낀다 230명(7.7%)으로 나타남.
- C2 귀하는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는지는 물음에 자주 혹은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414명(13.8%)이었음.

표 3-10. 자각된 스트레스 및 외로움(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230	7.7	101	6.7	129	8.6
	많이 느끼는 편이다	913	30.4	458	30.5	455	30.3
	조금 느끼는 편이다	1670	55.7	845	56.3	825	55.0
	거의 느끼지 않는다	187	6.2	96	6.4	91	6.1
외로움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256	8.5	141	9.4	115	7.7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876	29.2	428	28.5	448	29.9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1454	48.5	720	48.0	734	48.9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343	11.4	174	11.6	169	11.3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71	2.4	37	2.5	34	2.3

2) 한국인의 성향

- C3(1) 한국인의 성향 중 자기 과신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데 937명(31.2%)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2,063명(68.8%)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C3(2)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766명(25.6%)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234명(74.5%)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C3(3)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물음에는 407명(13.6%)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 반면, 2,593명(86.5%)은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음.
- C3(1)~(3) 자기 과신 문항의 평균은 1.95/4.00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78이었음. 3개 문항 가운데서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물음의 긍정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지난 조사에서와 유사한 결과값이 나타나, 한국인 성인 인구의 상당수는 여전히 마약류 사용의 악영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표 3-11. 성향(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873	29.1	454	30.3	419	27.9
	동의하지 않음	1190	39.7	555	37.0	635	42.3
	동의함	598	19.9	316	21.1	282	18.8
	매우 동의함	339	11.3	175	11.7	164	10.9
2)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80	32.7	492	32.8	488	32.5
	동의하지 않음	1254	41.8	605	40.3	649	43.3
	동의함	542	18.1	285	19.0	257	17.1
	매우 동의함	224	7.5	118	7.9	106	7.1
3)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70	45.7	692	46.1	678	45.2
	동의하지 않음	1223	40.8	585	39.0	638	42.5
	동의함	299	10.0	166	11.1	133	8.9
	매우 동의함	108	3.6	57	3.8	5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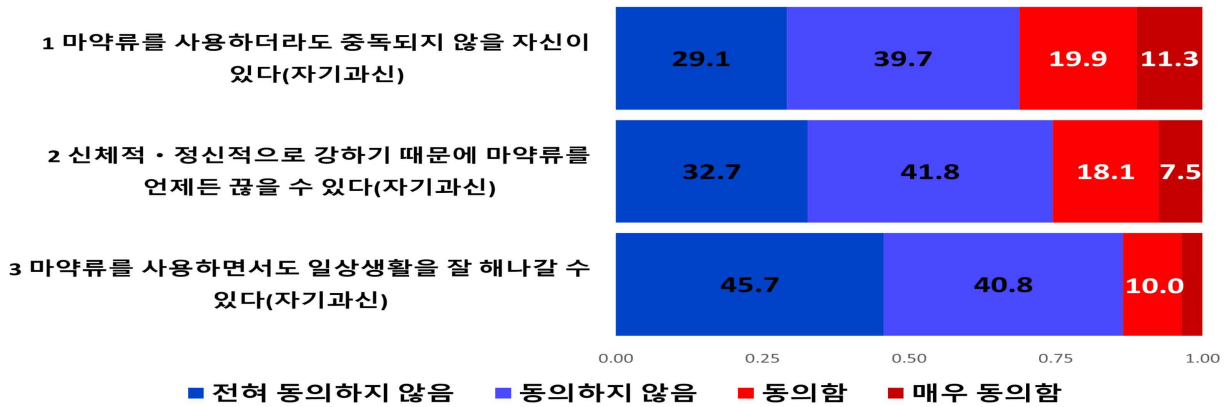


그림 3-4. 성향 통계량(성인)

표 3-12. 성향 통계량(성인)

	4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자기 과신 (C31, C32, C33의 평균)	1.95(0.78)	31.69(5.84)

4.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낙인) 인식

- D1(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 중 중독에 대한 낙인 인식을 살폈을 때,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777명(92.6%)이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61명(2.0%)이었음.
- D1(2) 마약류 사용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2,764명(92.1%)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56명(1.8%)이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3)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2,739명(91.3%)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70명(2.3%)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1)~(3)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은 평균 4.53/5.00점을 기록하였고, 표준편차는 0.64였음. 세 문항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기록하여 마약류 사용 및 중독을 사회적인 규범 이탈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음.
- D1(4)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낙인 인식을 살폈을 때,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1,567명(52.2%)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582명(19.4%)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라는 물음에는 1,597명(53.2%)이 긍정 응답자였으며, 538명(17.9%)은 부정 응답자였음.
- D1(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 1,468명(48.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585명(18.7%)은 부정적으로 답변함.
- D1(4)~(6)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낙인은 평균 3.50/5.00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94였음. 세 문항 가운데서는 마약류 사용자가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D1(7)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대한 인식을 살폈을 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가 1,490명(49.6%)이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715명(23.8%)이었음.
- D1(8)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1,050명(35.0%)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028명(34.2%)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유사한 수치를 기록
- D1(9)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1,189명(39.7%)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833명(27.7%)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7)~(9)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관한 인식은 평균 3.17/5.00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94였음. 세 문항 가운데서는 처벌보다는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13.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 평균(성인)

D1	d1_d1d3	d1_d4d6	d1_d7d9
(rec: 8)	마약류 중독에 대한 낙인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 낙인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5점 만점 평균 (표준편차)	4.53(0.64)	3.50(0.94)	3.17(0.94)
100점 만점 평균 (표준편차)	90.29(13.05)	63.32(22.74)	54.48(22.70)

2) 기타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 D1(10)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357명(11.9%)가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2,241명(74.7%)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D1(11)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에는 329명(11.0%)이 동의한 반면, 2,266명(75.5%)은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음.
- D1(12)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는 데는 1,793명(59.8%)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였고, 265명(8.8%)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표 3-14.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1	0.7	14	0.9	7	0.5
	동의하지 않음	40	1.3	26	1.7	14	0.9
	보통	162	5.4	119	7.9	43	2.9
	동의함	908	30.3	514	34.3	394	26.3
	매우 동의함	1869	62.3	827	55.1	1042	69.5
2)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9	0.6	11	0.7	8	0.5
	동의하지 않음	37	1.2	27	1.8	10	0.7
	보통	180	6.0	134	8.9	46	3.1
	동의함	777	25.9	443	29.5	334	22.3
	매우 동의함	1987	66.2	885	59.0	1102	73.5
3)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	0.5	11	0.7	4	0.3
	동의하지 않음	55	1.8	30	2.0	25	1.7
	보통	191	6.4	135	9.0	56	3.7
	동의함	880	29.3	500	33.3	380	25.3
	매우 동의함	1859	62.0	824	54.9	1035	69.0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4)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4	3.1	44	2.9	50	3.3
	동의하지 않음	488	16.3	194	12.9	294	19.6
	보통	851	28.4	438	29.2	413	27.5
	동의함	931	31.0	499	33.3	432	28.8
	매우 동의함	636	21.2	325	21.7	311	20.7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7	3.2	41	2.7	56	3.7
	동의하지 않음	441	14.7	162	10.8	279	18.6
	보통	865	28.8	406	27.1	459	30.6
	동의함	982	32.7	561	37.4	421	28.1
	매우 동의함	615	20.5	330	22.0	285	19.0
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88	2.9	39	2.6	49	3.3
	동의하지 않음	475	15.8	183	12.2	292	19.5
	보통	969	32.3	455	30.3	514	34.3
	동의함	912	30.4	512	34.1	400	26.7
	매우 동의함	556	18.5	311	20.7	245	16.3
7)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22	7.4	143	9.5	79	5.3
	동의하지 않음	493	16.4	233	15.5	260	17.3
	보통	795	26.5	413	27.5	382	25.5
	동의함	937	31.2	465	31.0	472	31.5
	매우 동의함	553	18.4	246	16.4	307	20.5
8)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325	10.8	189	12.6	136	9.1
	동의하지 않음	703	23.4	340	22.7	363	24.2
	보통	922	30.7	447	29.8	475	31.7
	동의함	749	25.0	373	24.9	376	25.1
	매우 동의함	301	10.0	151	10.1	150	10.0
9)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56	8.5	141	9.4	115	7.7
	동의하지 않음	577	19.2	241	16.1	336	22.4
	보통	978	32.6	496	33.1	482	32.1
	동의함	875	29.2	474	31.6	401	26.7
	매우 동의함	314	10.5	148	9.9	166	11.1
1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93	49.8	599	39.9	894	59.6
	동의하지 않음	748	24.9	394	26.3	354	23.6
	보통	402	13.4	274	18.3	128	8.5
	동의함	242	8.1	167	11.1	75	5.0
	매우 동의함	115	3.8	66	4.4	49	3.3
11)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91	49.7	618	41.2	873	58.2
	동의하지 않음	775	25.8	412	27.5	363	24.2
	보통	405	13.5	263	17.5	142	9.5
	동의함	207	6.9	141	9.4	66	4.4
	매우 동의함	122	4.1	66	4.4	56	3.7
12)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7	3.9	57	3.8	60	4.0
	동의하지 않음	148	4.9	61	4.1	87	5.8
	보통	942	31.4	472	31.5	470	31.3
	동의함	1128	37.6	581	38.7	547	36.5
	매우 동의함	665	22.2	329	21.9	336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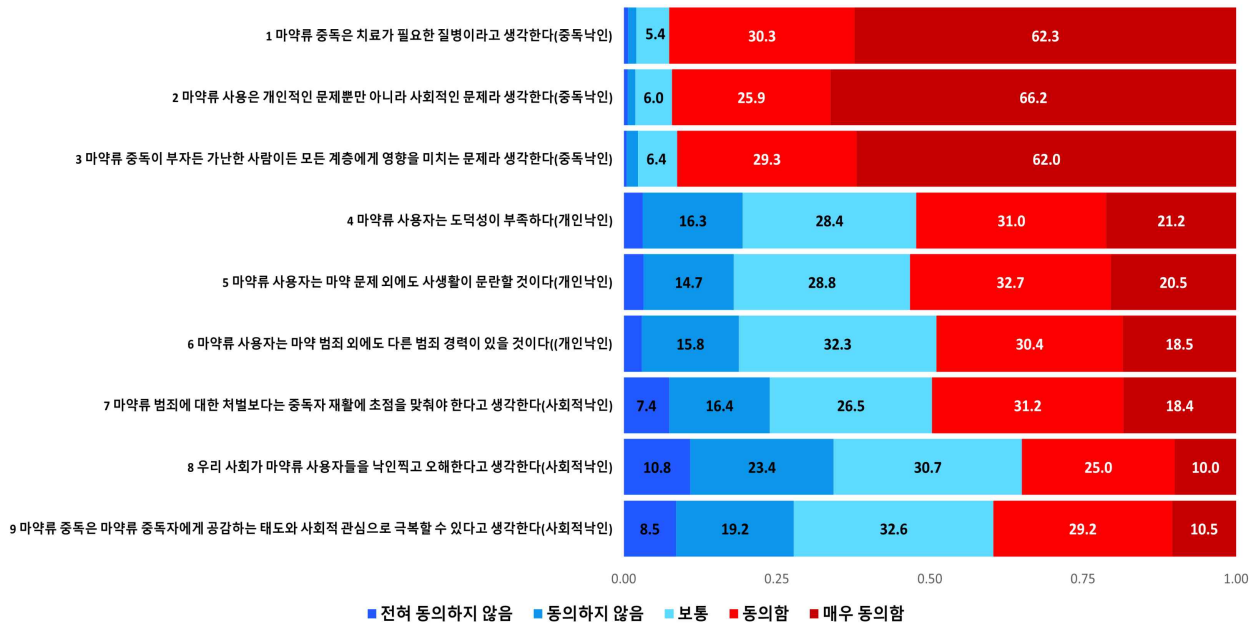


그림 3-5.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성인)

5. 마약류 및 중독약물 경험

1) 흡연 및 음주

- E1 흡연 여부를 물었을 때 514명(17.1%)이 매일, 129명(4.3%)가 가끔 피운다고 응답하여 총 643명(21.4%)이 현재흡연자였음. 남성이 512명(34.1%), 여성이 131명(8.8%)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25.3%p였음.
- E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남녀 모두 쉐련이 가장 많았음. 설문에 참여한 흡연자 767명 중 454명이 쉐련을, 162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151명은 쉐련형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함.
- E3 음주빈도의 경우 남성 응답자 중 1,278명(85.2%)이 연간음주자였으며 612명(40.8%)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하였음.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1,179명(78.6%)이 연간음주자였으며 355명(23.7%)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함.
- E4 1회 음주량은 남성은 소주 1병 가량이라는 응답이 251명(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맥주 한 캔 정도라는 응답이 476명(40.4%)로 가장 많았음. 회당 소주 1병 이상 음주자는 남성 667명(52.2%), 여성 284명(24.1%)이었음.

표 3-15. 흡연과 음주 행동(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현재 흡연 유무	매일 피운다	514	17.1	417	27.8	97	6.5
	가끔 피운다	129	4.3	95	6.3	34	2.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542	18.1	374	24.9	168	11.2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815	60.5	614	40.9	1201	80.1
흡연하는 담배 종류	궐련(일반 담배)	454	59.2	372	60.8	82	52.9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162	21.1	117	19.1	45	29.0
	궐련형 전자담배	151	19.7	123	20.1	28	18.1
평소 음주 빈도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543	18.1	222	14.8	321	21.4
	한 달에 1번 미만	665	22.2	251	16.7	414	27.6
	한 달에 1번 정도	334	11.1	170	11.3	164	10.9
	한 달에 2-3번 정도	491	16.4	245	16.3	246	16.4
	일주일에 1번 정도	432	14.4	263	17.5	169	11.3
	일주일에 2-3번 정도	426	14.2	265	17.7	161	10.7
	일주일에 4-5번 이상	109	3.6	84	5.6	25	1.7
1회 음주량	소주 1잔(=맥주 1캔)	660	26.9	184	14.4	476	40.4
	소주 2잔	92	3.7	46	3.6	46	3.9
	소주 3잔(=맥주 2캔)	397	16.2	194	15.2	203	17.2
	소주 4잔(=맥주 3캔)	176	7.2	85	6.7	91	7.7
	소주 5잔	80	3.3	42	3.3	38	3.2
	소주 6잔(=맥주 4캔)	101	4.1	60	4.7	41	3.5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367	14.9	251	19.6	116	9.8
	소주 1병 반(=맥주 8캔)	266	10.8	178	13.9	88	7.5
	소주 2병(=맥주 10캔)	190	7.7	141	11.0	49	4.2
	소주 2병 반(=맥주 13캔)	71	2.9	52	4.1	19	1.6
	소주 3병(=맥주 15캔)	39	1.6	31	2.4	8	0.7
	소주 3병 반(=맥주 18캔)	8	0.3	5	0.4	3	0.3
	소주 4병(=맥주 20캔)	8	0.3	8	0.6	0	0.0
	소주 5병 이상	2	0.1	1	0.1	1	0.1

2)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 여부

- E5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테오드란트 등 흡입제 사용 경험을 물었을 때 **응답자 중 67명(2.2%)**이 유경험자였음. 이 중 남성이 52명(3.6%), 여성은 15명(1.0%)으로 나타남.

표 3-16.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 여부(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평생 동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몇 번이나 흡입하였습니까?	전혀 없음	2933	97.8	1448	96.5	1485	99
	1~2회	31	1	25	1.7	6	0.4
	3~5회	24	0.8	16	1.1	8	0.5
	6~9회	7	0.2	7	0.5	0	0
	10회 이상	5	0.2	4	0.3	1	0.1

3)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

- E6 총 16종의 마약류 물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음. 남성의 경우 대마초 1,405명 (93.7%), 코카인 1,386명(92.4%), 헤로인 1,320명(88.0%)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여성은 대마초 1,453명 (96.9%), 코카인 1,418명(94.5%),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 1,397명(93.1%)의 인지도가 높았음.
- 지난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처방전이 필요한 각종 약물에 대한 여성의 마약류 물질 인지가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의 경우 여성은 775명(51.7%)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580명(38.7%)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13.0%p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율 차이가 가장 큰 마약류 물질은 LSD 및 기타 환각제였음(남성 598명, 39.9%; 여성 431명, 28.7%).

표 3-17.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성인)

(‘예’라고 응답한 기준)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1972	65.7	974	64.9	998	66.5
2) 코카인(크랙 등)	2804	93.5	1386	92.4	1418	94.5
3) 헤로인	2602	86.7	1320	88.0	1282	85.5
4)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2155	71.8	1097	73.1	1058	70.5
5)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2858	95.3	1405	93.7	1453	96.9
6)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컹크, 조커 등)	728	24.3	411	27.4	317	21.1
7) LSD 및 기타 환각제	1029	34.3	598	39.9	431	28.7
8) GHB(물병 등)	2032	67.7	968	64.5	1064	70.9
9) 케타민(K, 캣 발름 등)	840	28.0	392	26.1	448	29.9
10)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167	5.6	116	7.7	51	3.4
11)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2186	72.9	1067	71.1	1119	74.6
1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뎴-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2322	77.4	1086	72.4	1236	82.4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2685	89.5	1288	85.9	1397	93.1
14)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648	21.6	294	19.6	354	23.6
15)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1355	45.2	580	38.7	775	51.7
16) 마약버섯	392	13.1	228	15.2	164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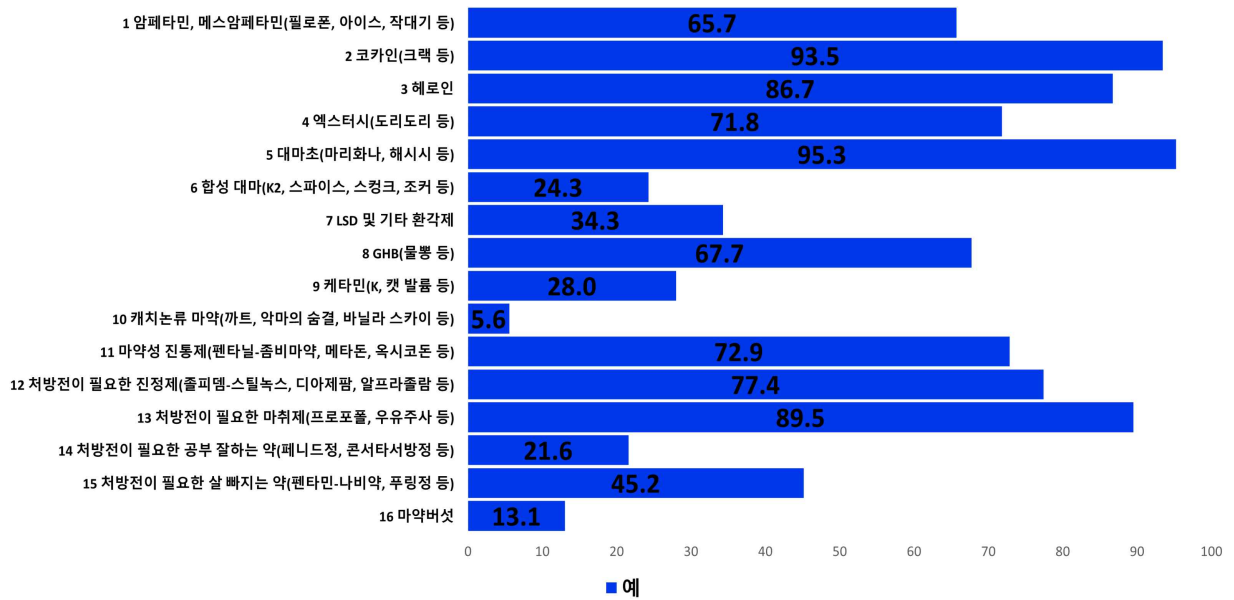


그림 3-6.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성인)

4)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

- E7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주변의 약물 사용 목격 경험의 경우,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빼는 약의 사용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0명(16.3%), 공부 잘하는 약이 244명(8.1%), 대마가 136명(4.5%),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가 105명(3.5%), 술집 및 유흥업소 등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이 173명(5.8%),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80명(2.7%)이었음. 여성은 살 빼는 약 사용 목격이 317명(21.1%)으로 남성의 173명(11.5%)에 비해 9.6%p 가량 높았음.

표 3-18.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성인)

(‘있다’라고 응답한 기준)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살 빼는 약	490	16.3	173	11.5	317	21.1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244	8.1	114	7.6	130	8.7
3) 마리화나, 해시시와 같은 대마	136	4.5	84	5.6	52	3.5
4)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105	3.5	64	4.3	41	2.7
5)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73	5.8	110	7.3	63	4.2
6)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80	2.7	59	3.9	21	1.4
7) 한 가지 이상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	647	21.6	271	18.1	376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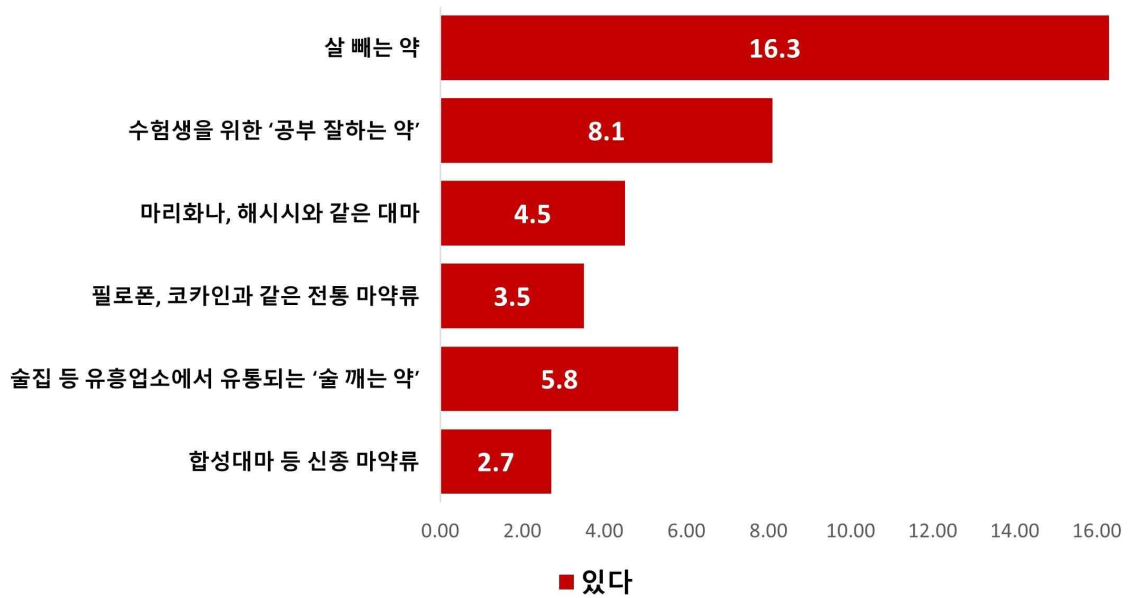


그림 3-7.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성인)

5)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

- E8(1) 응답자의 주변 사람이 중독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흡연의 경우 몇 명 있음이 1,530명(51.0%), 꽤 많음이 1,080명(36.0%)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두 다 121명(4.0%) 이었고 한 명도 없음은 193명(6.4%)이었음.
- E8(2) 술을 마신다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는 38명(1.3%)에 그쳤으며, 몇 명 있음이 644명(21.5%), 꽤 많음이 1,540명(51.3%), 거의 모두 다 736명(24.5%)이었음.
- E8(3) 술에 취한다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는 123명(4.1%), 몇 명 있는 경우는 1,071명(35.7%), 꽤 많음이 1,338명(44.6%), 거의 모두 다 389명(13.0%)으로 나타남.
- E8(4) 대마초 흡연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2,556명(85.2%), 몇 명 있음이 62명(2.1%), 꽤 많음이 35명(1.2%), 거의 모두 다 22명(0.7%)이었음. 한 명 이상 주위에 대마초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119명(4.0%)으로 나타남.
- E8(5) 향정신성 약물 사용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2,327명(77.6%), 몇 명 있음이 248명(8.3%), 꽤 많음이 44명(1.5%), 거의 모두 다 19명(0.6%)이었음. 한 명 이상 주위에 향정신성 약물 사용자가 있는 경우는 311명(10.4%)으로 나타남.
- E8(6) 마약 사용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2,597명(86.6%), 몇 명 있음이 40명(1.3%), 꽤 많음이 28명(0.9%), 거의 모두 다 27명(0.9%)이었음. 한 명 이상 주위에 마약 사용자가 있는 경우는 95명(3.1%)으로 나타남.

표 3-19.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담배를 피운다	한 명도 없음	193	6.4	43	2.9	150	10.0
	몇 명 있음	1530	51.0	647	43.1	883	58.9
	꽤 많음	1080	36.0	692	46.1	388	25.9
	거의 모두 다	121	4.0	78	5.2	43	2.9
	모름	76	2.5	40	2.7	36	2.4
2) 술을 마신다	한 명도 없음	38	1.3	18	1.2	20	1.3
	몇 명 있음	644	21.5	244	16.3	400	26.7
	꽤 많음	1540	51.3	839	55.9	701	46.7
	거의 모두 다	736	24.5	368	24.5	368	24.5
	모름	42	1.4	31	2.1	11	0.7
3) 술에 취한다	한 명도 없음	123	4.1	44	2.9	79	5.3
	몇 명 있음	1071	35.7	478	31.9	593	39.5
	꽤 많음	1338	44.6	736	49.1	602	40.1
	거의 모두 다	389	13.0	198	13.2	191	12.7
	모름	79	2.6	44	2.9	35	2.3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4) 대마초를 피운다	한 명도 없음	2556	85.2	1252	83.5	1304	86.9
	몇 명 있음	62	2.1	38	2.5	24	1.6
	꽤 많음	35	1.2	28	1.9	7	0.5
	거의 모두 다	22	0.7	12	0.8	10	0.7
	모름	325	10.8	170	11.3	155	10.3
5)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한 명도 없음	2327	77.6	1206	80.4	1121	74.7
	몇 명 있음	248	8.3	82	5.5	166	11.1
	꽤 많음	44	1.5	25	1.7	19	1.3
	거의 모두 다	19	0.6	12	0.8	7	0.5
	모름	362	12.1	175	11.7	187	12.5
6)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한 명도 없음	2597	86.6	1281	85.4	1316	87.7
	몇 명 있음	40	1.3	23	1.5	17	1.1
	꽤 많음	28	0.9	21	1.4	7	0.5
	거의 모두 다	27	0.9	18	1.2	9	0.6
	모름	308	10.3	157	10.5	151	10.1
7) 대마, 향정, 마약을 사용하는 주변인이 있는 경우	1명 이상	358	11.9	148	9.9	210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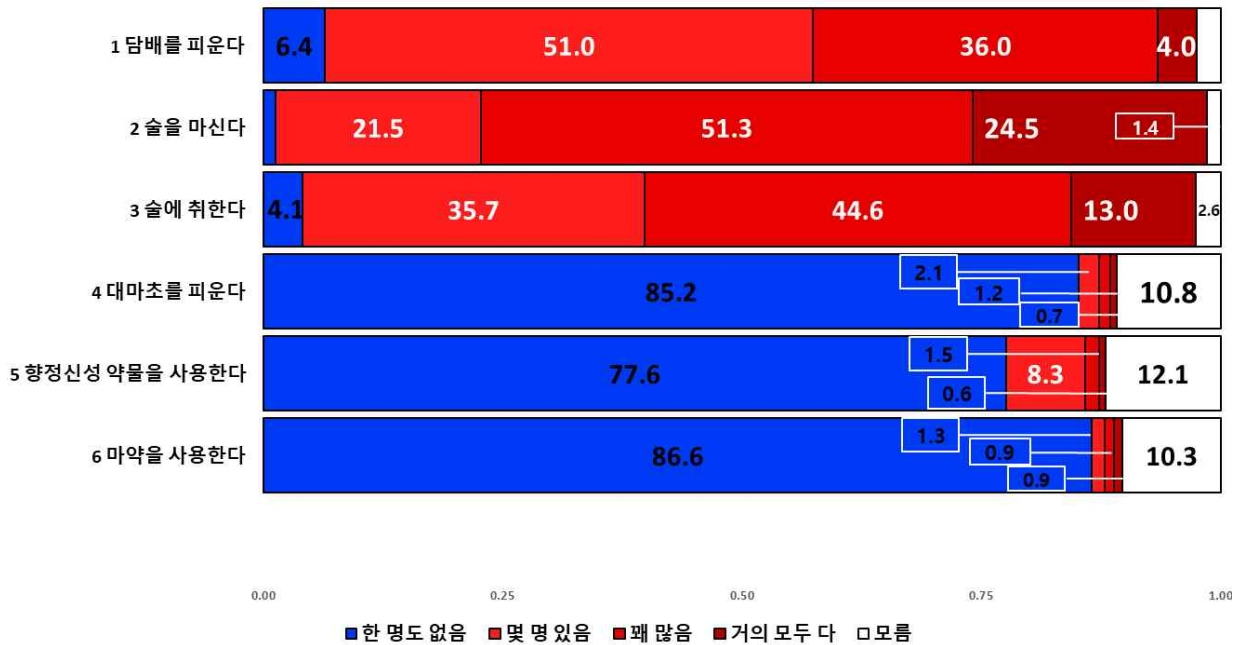


그림 3-8.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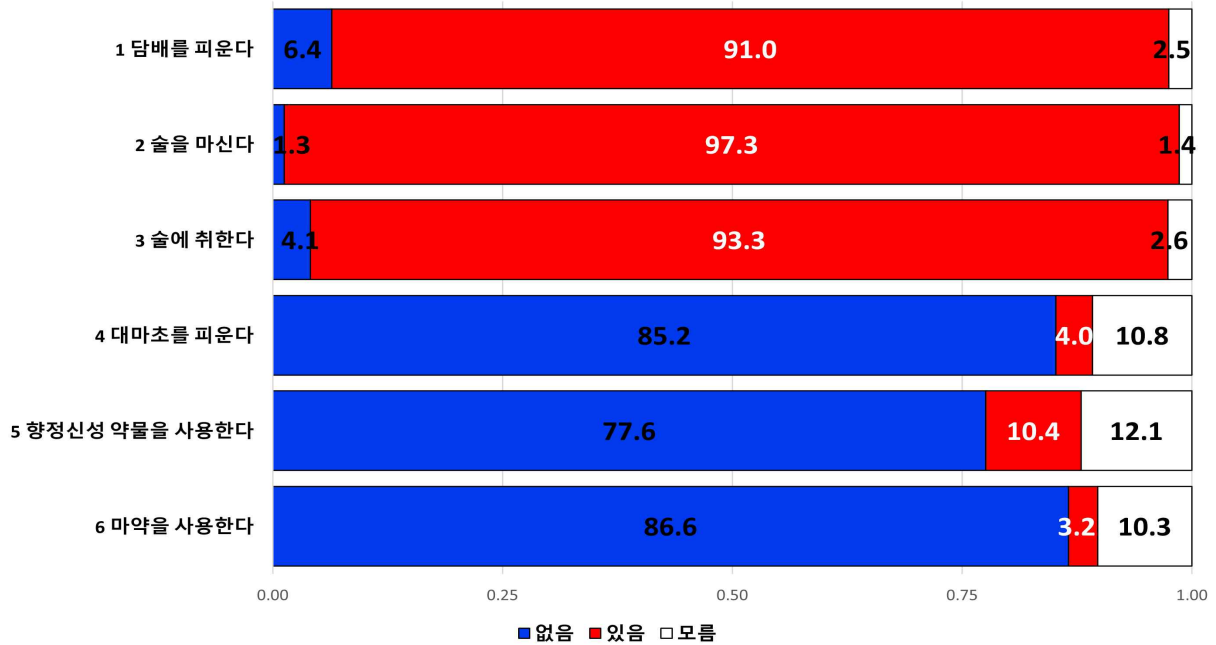


그림 3-9.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없음/있음/모름)

6)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

- E9(1) 마약류 물질의 본인 사용 여부를 물었을 때 살 빼는 약 사용 경험자는 177명(5.9%)으로 남성 60명(4.0%), 여성 117명(7.8%)이었음.
- E9(2) ‘공부 잘하는 약’ 사용 경험자는 60명(2.0%)으로 남성 35명(2.3%), 여성 25명(1.7%)이었음.
- E9(3) 마리화나, 헤시시와 같은 대마 사용 경험자는 44명(1.5%)으로 남성 34명(2.3%), 여성 10명(0.7%)이었음.
- E9(4)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사용 경험자는 30명(1.0%)으로 남성 23명(1.5%), 여성 7명(0.5%)이었음.
- E9(5) 술집 및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사용 경험자는 60명(2.0%)으로 남성 41명(2.7%), 여성 19명(1.3%)이었음.
- E9(6)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사용 경험자는 28명(0.9%)으로 남성 21명(1.4%), 여성 7명(0.5%)이었음.

표 3-20.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성인)

(‘있다’라고 응답한 기준)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살 빼는 약	177	5.9	60	4.0	117	7.8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60	2.0	35	2.3	25	1.7
3) 마리화나, 해시시와 같은 대마	44	1.5	34	2.3	10	0.7
4)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30	1.0	23	1.5	7	0.5
5)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60	2.0	41	2.7	19	1.3
6)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28	0.9	21	1.4	7	0.5
7) 한 가지 이상 약물 사용 경험	236	7.9	101	6.7	135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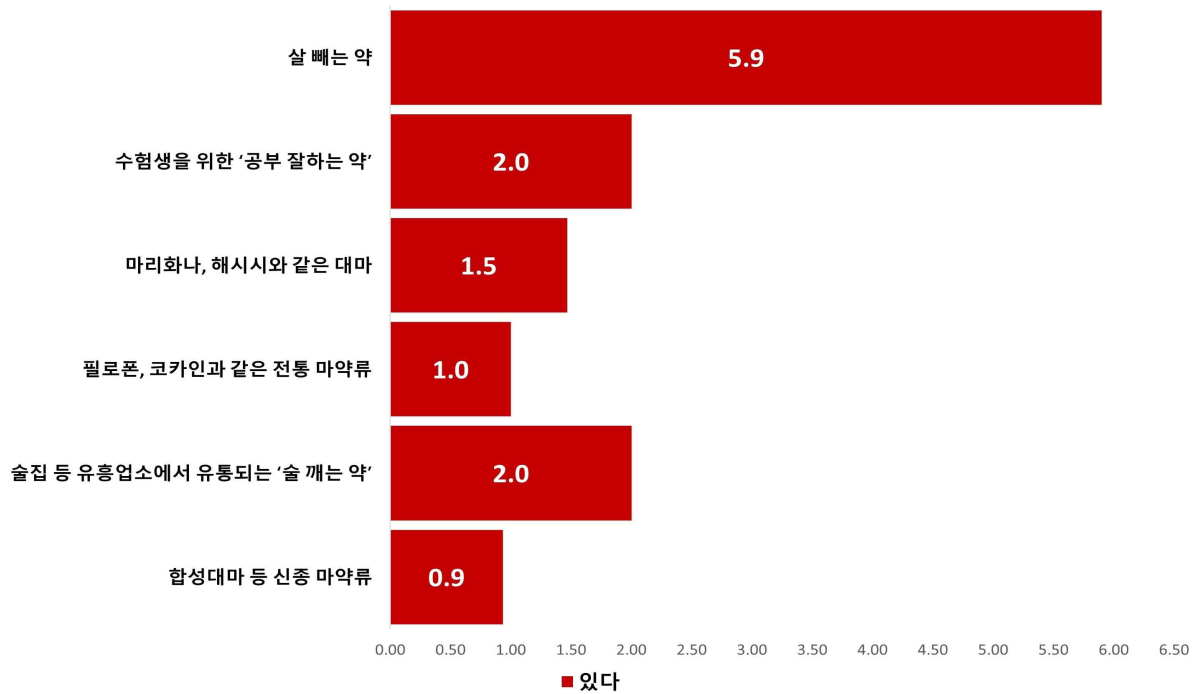


그림 3-10.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성인)

표 3-21. 세대별 마약류 사용자 및 주변의 마약류 사용 빈도(성인)

		전체 (N=3,000)		20~30대 (N=1,500)		40~50대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마약류 사용자 여부 (E9)	사용자 아님	2764	92.1	1382	92.1	1382	92.1
	마약류 사용자	236	7.9	118	7.9	118	7.9
주변의 마약류 사용 목적 (E7)	목적 없음	2353	78.4	1166	77.7	1187	79.1
	마약류 사용 목적	647	21.6	334	22.3	313	20.9

7) 마약류 물질 사용 여부

- E10 각종 마약류 물질의 본인 사용 여부를 물었을 때,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4명(2.5%)으로, 남성이 30명(2.0%) 여성이 44명(2.9%)으로 나타남.

표 3-22.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여부(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74	2.5	30	2.0	44	2.9
	없다	2926	97.5	1470	98.0	1456	97.1

- (의사의 처방 없이) 처방해야 구할 수 있는 살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마약성 진통제, 진정제, 마취제 등
- 대마초, 해시시 등 대마
- 헤로인, 필로폰, 암페타민, 코카인, 크랙, 대마초, 메타돈, 케타민, 엑스터시, GHB, LSD, 마약버섯 등의 마약류

-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과 관련된 문항들 중 E9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물질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거나, E5에 해당하는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이 있거나, E10에 해당하는 각종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합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280명(9.3%)이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살 빼는 약의 사용으로 인해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기록되었음.

표 3-23.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	사용하지 않음	2720	90.7	1369	91.3	1351	90.1
	사용함	280	9.3	131	8.7	149	9.9

표 3-24. 연령별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성인)

		전체 (N=3,000)		20~30대 (N=1,500)		40~50대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	사용하지 않음	2720	90.7	1359	90.6	1361	90.7
	사용함	280	9.3	141	9.4	139	9.3

8) 마약류 및 중독 물질 사용 동기

- E10-1(1) E10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4명을 대상으로 사용 동기를 모두 체크해달라고 질문하였음. 호기심 때문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42명(56.8%)으로 남성 26명(86.7%), 여성 16명(36.4%)이었으며, 남성에게서는 가장 많은 사용 동기였고, 여성에게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음.
- E10-1(2)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은 24명(32.4%)으로 남성 19명(63.3%), 여성 5명(11.4%)으로 나타남. 남성에게서는 두 번째로 많은 동기였으나, 여성에게서는 빈번한 동기가 아니었음.
- E10-1(3) 주변인의 권유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32명(43.2%)으로 남성 16명(53.3%), 여성 16명(36.4%)이었음. 남성에게서는 세 번째로 많은 동기였으며, 여성에게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음.
- E10-1(4)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다들 하고 있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23명(31.1%)으로 남성 12명(40.0%), 여성 11명(25.0%)으로 나타남.
- E10-1(5) 살을 빼기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은 52명(70.3%)으로 남성 16명(53.3%), 여성 36명(81.8%)으로 나타남. 남성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동기였으며, 여성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었음.
- E10-1(6) 각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19명(25.7%)으로 남성 12명(40.0%), 여성 7명(15.9%)으로 나타남.
- E10-1(7) 집중력을 높이고 싶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18명(24.3%)으로 남성 8명(26.7%), 여성 10명(22.7%)으로 나타남.
- E10-1(8)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17명(23.0%)으로 남성 11명(36.7%), 여성 6명(13.6%)으로 나타남.

- E10-1(9) 다른 약물의 효과를 늘리려고 사용했다는 응답은 12명(16.2%)으로 남성 9명(30.0%), 여성 3명(6.8%)으로 나타남.
- E10-1(10)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15명(20.3%)으로 남성 8명(26.7%), 여성 7명(15.9%)으로 나타남.
- E10-1(11) 중독되어 끊기 어려워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12명(16.2%)으로 남성 9명(30.0%), 여성 3명(6.8%)으로 나타남.
- E10-1(12) 기타 응답자는 총 5명이었으며 남성이 4명(스트레스 해소 등), 여성이 1명(자기도 모르는 새 강제 섭취)이었음.

표 3-25.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사용 동기(성인)

		전체 (N=74)		남성 (N=30)		여성 (N=44)	
		명	%	명	%	명	%
전체		74	100.0	30	100.0	44	100.0
1) 호기심 때문에	예	42	56.8	26	86.7	16	36.4
	아니오	32	43.2	4	13.3	28	63.6
2) 기분 좋아지려고	예	24	32.4	19	63.3	5	11.4
	아니오	50	67.6	11	36.7	39	88.6
3) 주변인의 권유로	예	32	43.2	16	53.3	16	36.4
	아니오	42	56.8	14	46.7	28	63.6
4)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다들 하고 있어서	예	23	31.1	12	40.0	11	25.0
	아니오	51	68.9	18	60.0	33	75.0
5) 살을 빼기 위해	예	52	70.3	16	53.3	36	81.8
	아니오	22	29.7	14	46.7	8	18.2
6) 각성하기(깨어있기) 위해서	예	19	25.7	12	40.0	7	15.9
	아니오	55	74.3	18	60.0	37	84.1
7) 집중력을 높이고 싶어서	예	18	24.3	8	26.7	10	22.7
	아니오	56	75.7	22	73.3	34	77.3
8)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예	17	23.0	11	36.7	6	13.6
	아니오	57	77.0	19	63.3	38	86.4
9) 다른 약물의 효과를 늘리려고	예	12	16.2	9	30.0	3	6.8
	아니오	62	83.8	21	70.0	41	93.2
10)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예	15	20.3	8	26.7	7	15.9
	아니오	59	79.7	22	73.3	37	84.1
11) 중독되어 끊기 어려워서	예	12	16.2	9	30.0	3	6.8
	아니오	62	83.8	21	70.0	41	93.2
12)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이유에서	예	5	6.8	4	13.3	1	2.3
	아니오	69	93.2	26	86.7	43	97.7

9) 마약류 및 중독 물질 획득 경로

- E10-2(1) 마약류 및 중독 물질 구매 경로를 모두 응답해달라고 하였을 때,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

짜로 얻었다는 응답이 31명(41.9%)이었으며, 남성은 13명(43.3%) 여성 18명(40.9%)이었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 E10-2(2)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16명(21.6%)으로 남성은 8명(26.7%) 여성은 8명(18.2%)이었음.
- E10-2(3) 친구 혹은 친지들의 것을 몰래 가져왔다는 응답이 10명(13.5%)으로 남성은 8명(26.7%), 여성은 2명(4.5%)이었음.
- E10-2(4) 오프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17명(23.0%)으로 남성은 6명(20.0%), 여성이 11명(25.0%)이었음.
- E10-2(5)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13명(17.6%)으로 남성은 6명(20.0%), 여성이 7명(15.9%)이었음.
- E10-2(6) 기타 응답은 총 12개였음. ‘네이버 검색 후 구매(1)’, ‘아주 오래 전 다른 나라에서(1)’, ‘온라인(1)’, ‘외국에서 경험하였기에 대부분 특정 가게에서 판매함(1)’, ‘인스타그램 광고(2)’, ‘인터넷 쇼핑몰(1)’, ‘인터넷 쇼핑몰(쿠팡, 스마트스토어)나 병원 구매(1)’, ‘전화마케팅(1)’, ‘타인에게 속아서 먹음(1)’, ‘해외(1)’, ‘SNS(1)’
- E10-3 마약류 및 중독물질 획득 난이도를 물었을 때 거의 불가능했다는 응답이 17명(23.0%), 많이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12명(16.2%), 보통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18명(24.3%),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15명(20.3%), 노력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12명(16.2%)이었음.

표 3-26.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획득 경로 및 난이도(성인)

		전체 (N=74)		남성 (N=30)		여성 (N=44)	
		명	%	명	%	명	%
전체		74	100.0	30	100.0	44	100.0
마약류 및 중독 물질 구매 경로 [모두 선택]	1)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짜로 얻음	31	41.9	13	43.3	18	40.9
	2)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16	21.6	8	26.7	8	18.2
	3) 친구 혹은 친지들의 것을 몰래 가져옴	10	13.5	8	26.7	2	4.5
	4) 오프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17	23	6	20	11	25
	5) 온라인(텔레그램 등)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13	17.6	6	20	7	15.9
	6)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12	16.2	4	13.3	8	18.2
마약류 및 중독 물질 획득 난이도	1) 거의 불가능했다	17	23	9	30	8	18.2
	2) 많이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	12	16.2	6	20	6	13.6
	3) 보통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었다	18	24.3	8	26.7	10	22.7
	4)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	15	20.3	6	20	9	20.5
	5) 노력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12	16.2	1	3.3	11	25

6.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

1)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

- F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 수립, 사업 추진을 알고 있었던 응답자는 730명(24.3%)으로, 남성 398명(26.5%), 여성 332명(22.1%)이 긍정 응답함.
- F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03명(26.8%)으로, 남성 414명(27.6%), 여성은 389명(25.9%)이 긍정 응답함.
- F2(1)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 여부 중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각종 캠페인 등 홍보 인지의 경우 362명(12.1%)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185명(12.3%), 여성은 177명(11.8%)이 긍정 응답함.
- F2(2)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홍보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긍정응답자가 1,084명(36.1%)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543명(36.2%), 여성은 541명(36.1%)이 긍정 응답함.
- F2(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73명(15.8%)이 긍정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229명(15.3%), 여성은 244명(16.3%)이 긍정 응답함.
- F2(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업 인지 여부의 경우 긍정응답자가 378명(12.6%)이었으며, 남성 184명(12.3%), 여성 194명(12.9%)이 긍정 응답하였음.

표 3-27.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 수립·사업 추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730	24.3	398	26.5	332	22.1
	모른다	2270	75.7	1102	73.5	1168	77.9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 여부	알고 있다	803	26.8	414	27.6	389	25.9
	모른다	2197	73.2	1086	72.4	1111	74.1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인지]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예	362	12.1	185	12.3	177	11.8
	아니오	1876	62.5	946	63.1	930	62.0
	모르겠다	762	25.4	369	24.6	393	26.2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인지] 2)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예	1084	36.1	543	36.2	541	36.1
	아니오	1241	41.4	623	41.5	618	41.2
	모르겠다	675	22.5	334	22.3	341	22.7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인지]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예	473	15.8	229	15.3	244	16.3
	아니오	1780	59.3	910	60.7	870	58.0
	모르겠다	747	24.9	361	24.1	386	25.7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인지] 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예	378	12.6	184	12.3	194	12.9
	아니오	1807	60.2	921	61.4	886	59.1
	모르겠다	815	27.2	395	26.3	420	28.0

2) 한걸음센터 활동 인지도

- F4 ^{함께}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17명(7.2%)으로, 남성 129명(8.6%), 여성 88명(5.9%)이 긍정 응답함.
- F5 ^{용기}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20명(10.7%)으로 남성 186명(12.4%), 여성 134명(8.9%)이 긍정 응답함.
- F6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상담 등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묻은 결과, 도덕성이 부족하여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15명(3.8%),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499명(16.6%), 마약류 사용은 본인 책임이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재활을 도와야한다는 응답이 1,606명(53.5%), 사회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780명(26.0%)이었음.
- F7(1)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의향을 물었을 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은 1,670명(55.7%)이었으며, 남성은 792명(52.8%) 여성은 878명(58.5%)이 긍정 응답함.
- F7(2) 친구나 직장 동료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은 1,365명(45.5%)으로 남성이 669명(44.6%). 여성은 696명(46.4%)이 긍정 응답함.
- F7(3) 결혼 상대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190명(6.3%)으로 남성이 145명(9.7%), 여성은 45명(3.0%)이 긍정 응답함.

표 3-28.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4. ^{함께} 한걸음센터 인지 여부	알고 있다	217	7.2	129	8.6	88	5.9
	모른다	2783	92.8	1371	91.4	1412	94.1
5. ^{용기} 한걸음센터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20	10.7	186	12.4	134	8.9
	모른다	2680	89.3	1314	87.6	1366	91.1
6.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상담 등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성이 부족하여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15	3.8	80	5.3	35	2.3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	499	16.6	273	18.2	226	15.1
	마약류 사용은 본인 책임이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재활을 도와야 한다.	1606	53.5	777	51.8	829	55.3
	사회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80	26	370	24.7	410	27.3
[7.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의향] 1)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그렇다	1670	55.7	792	52.8	878	58.5
	아니다	1330	44.3	708	47.2	622	41.5
[7.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의향] 2) 친구나 직장 동료로 지낼 수 있다	그렇다	1365	45.5	669	44.6	696	46.4
	아니다	1635	54.5	831	55.4	804	53.6
[7.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의향] 3) 결혼 상대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	190	6.3	145	9.7	45	3
	아니다	2810	93.7	1355	90.3	1455	97

라. 마약류 이용 및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영향 요인

-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자(E5의 흡입제 사용 경험, E9의 6개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중 1개 이상 경험, E10의 구체적 마약류 사용 경험)는 전체 응답자의 9.3%(남성 8.7%, 여성 9.9%)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성별이 여성인 경우,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노출가능성(민감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낮은 경우,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 사용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29.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변수명	β	S.E.	p	Odds Ratio	Upper CI	Lower CI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51	.14	.000	1.66	1.26	2.19
	연령	.00	.01	.554	1.00	.99	1.02
	교육수준	-.12	.07	.111	.89	.77	1.03
	가구소득	.03	.03	.258	1.03	.98	1.08
	해외거주경험	.40	.18	.025	1.49	1.05	2.10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0	.02	.917	1.00	.97	1.03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08	.11	.479	1.08	.87	1.35
	대처동기	-.04	.11	.704	.96	.77	1.19
	사회동기	.12	.11	.287	1.13	.90	1.40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12	.12	.318	1.12	.89	1.42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09	.07	.218	.92	.80	1.05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45	.08	.000	1.56	1.34	1.82
	심각성	-.06	.08	.428	.94	.80	1.10
	예방장애요인	-.05	.11	.648	.95	.77	1.18
	예방유익성	-.01	.11	.896	.99	.80	1.21
	예방실천도	-.17	.10	.075	.84	.70	1.02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44	.12	.000	.65	.51	.81
	개인적 낙인	.08	.08	.300	1.09	.93	1.27
	사회적 낙인	.03	.08	.735	1.03	.87	1.21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07	.09	.421	1.08	.90	1.29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23	.06	.000	1.25	1.12	1.40
상수항		-1.66	.67	.013	.19		
Nagelkerke R ²		0.15					
-2log likelihood		1647.05					

2.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자(E9의 6개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중 1개 이상 경험)는 전체 응답자의 7.9%(남성 6.7%, 여성 9.0%)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성별이 여성인 경우,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노출가능성(민감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낮은 경우,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 사용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30.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변수명	β	S.E.	p	Odds Ratio	Upper CI	Lower CI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69	.15	.000	2.00	1.48	2.69
	연령	.01	.01	.319	1.01	.99	1.02
	교육수준	-.07	.08	.354	.93	.80	1.09
	가구소득	.03	.03	.244	1.03	.98	1.09
	해외거주경험	.48	.18	.009	1.62	1.13	2.32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1	.02	.718	.99	.96	1.03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08	.12	.520	1.08	.85	1.37
	대처동기	-.07	.12	.571	.94	.74	1.18
	사회동기	.07	.12	.569	1.07	.85	1.36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15	.13	.223	1.16	.91	1.49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01	.08	.909	.99	.85	1.15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43	.08	.000	1.54	1.31	1.81
	심각성	-.13	.08	.125	.88	.75	1.04
	예방장애요인	-.05	.12	.694	.96	.76	1.20
	예방유익성	-.02	.11	.827	.98	.79	1.21
	예방실천도	-.15	.10	.162	.87	.71	1.06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40	.13	.001	.67	.53	.86
	개인적 낙인	.15	.09	.081	1.16	.98	1.38
	사회적 낙인	-.01	.09	.878	.99	.83	1.17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12	.10	.212	1.13	.93	1.37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24	.06	.000	1.27	1.13	1.42
상수항		-2.80	.73	.000	.06		
Nagelkerke R ²		0.13					
-2log likelihood		1477.17					

3.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 보다 구체적인 마약류 물질 사용자(E10의 마약류 물질 중 1개 이상 사용 경험)는 전체 응답자의 2.5%(남성 2.0%, 여성 2.9%)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노출가능성(민감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 사용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31.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변수명	β	S.E.	p	Odds Ratio	Upper CI	Lower CI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51	.26	.054	1.66	.99	2.79
	연령	.00	.01	.820	1.00	.97	1.02
	교육수준	.07	.14	.632	1.07	.81	1.41
	가구소득	.03	.05	.477	1.03	.94	1.13
	해외거주경험	1.14	.27	.000	3.14	1.86	5.30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1	.03	.643	.99	.93	1.05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05	.20	.814	.95	.65	1.41
	대처동기	-.20	.19	.302	.82	.56	1.20
	사회동기	.28	.19	.141	1.32	.91	1.92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38	.20	.060	1.46	.99	2.16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16	.15	.280	1.18	.88	1.58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29	.14	.038	1.33	1.02	1.75
	심각성	.28	.19	.139	1.32	.91	1.90
	예방장애요인	.03	.20	.875	1.03	.70	1.53
	예방유익성	-.14	.18	.453	.87	.61	1.24
	예방실천도	-.28	.18	.125	.75	.53	1.08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19	.23	.391	.82	.53	1.28
	개인적 낙인	-.15	.14	.268	.86	.65	1.13
	사회적 낙인	.00	.15	.987	1.00	.75	1.33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09	.17	.612	1.09	.78	1.53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22	.10	.026	1.25	1.03	1.52
상수항		-5.43	1.36	.000	.00		
Nagelkerke R ²		0.13					
-2log likelihood		615.93					

4.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적 영향 요인

-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적(E7의 6개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주변 사용 목적 중 1개 이상 경험)는 전체 응답자의 21.6%(남성 18.1%, 여성 25.1%)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성별이 여성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마약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노출가능성(민감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예방행동의 실천도(예방효능감)가 낮은 경우,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낮은 경우,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높다고 인지한 경우,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경우 목적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32.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적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변수명	β	S.E.	<i>p</i>	Odds Ratio	Upper CI	Lower CI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57	.10	.000	1.76	1.45	2.14
	연령	-.01	.00	.171	.99	.99	1.00
	교육수준	.00	.05	.969	1.00	.91	1.11
	가구소득	.04	.02	.026	1.04	1.01	1.08
	해외거주경험	.48	.13	.000	1.61	1.26	2.06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0	.01	.771	1.00	.98	1.03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09	.08	.217	1.10	.95	1.27
	대처동기	-.12	.07	.116	.89	.77	1.03
	사회동기	-.05	.08	.554	.95	.81	1.12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16	.08	.045	1.17	1.00	1.37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02	.05	.656	1.02	.93	1.12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25	.06	.000	1.29	1.15	1.44
	심각성	-.06	.05	.285	.95	.85	1.05
	예방장애요인	.05	.07	.479	1.05	.91	1.22
	예방유익성	.05	.07	.457	1.05	.92	1.21
	예방실천도	-.17	.07	.012	.84	.74	.96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26	.09	.003	.77	.65	.92
	개인적 낙인	.06	.05	.273	1.06	.96	1.17
	사회적 낙인	.11	.06	.049	1.11	1.00	1.24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11	.06	.074	1.12	.99	1.27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19	.04	.000	1.21	1.12	1.31
상수항		-2.24	.52	.000	.11		
Nagelkerke R ²		0.10					
-2log likelihood		2937.97					

5.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 영향 요인

-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E8의 주변의 대마, 향정신성 약물, 마약 3개 중 1개 이상의 물질 사용자가 1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1.9%(남성 9.9%, 여성 14.0%)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성별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마약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노출가능성(민감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예방행동의 유익성이 낮은 경우,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낮은 경우,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경우 주변에 마약류 사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33.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변수명	β	S.E.	p	Odds Ratio	Upper CI	Lower CI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57	.13	.000	1.76	1.37	2.25
	연령	-.02	.01	.003	.98	.97	.99
	교육수준	.03	.07	.642	1.03	.91	1.18
	가구소득	.01	.02	.807	1.01	.96	1.05
	해외거주경험	.42	.16	.007	1.52	1.12	2.06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1	.02	.468	1.01	.98	1.04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16	.09	.096	1.17	.97	1.40
	대처동기	-.11	.09	.222	.89	.75	1.07
	사회동기	-.11	.10	.256	.90	.74	1.08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27	.10	.006	1.31	1.08	1.59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03	.07	.649	1.03	.91	1.17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45	.07	.000	1.57	1.37	1.80
	심각성	.14	.08	.090	1.15	.98	1.35
	예방장애요인	.11	.10	.267	1.11	.92	1.35
	예방유익성	-.25	.09	.005	.78	.66	.93
	예방실천도	-.12	.09	.201	.89	.75	1.06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27	.11	.016	.77	.62	.95
	개인적 낙인	.05	.07	.486	1.05	.92	1.20
	사회적 낙인	.01	.07	.854	1.01	.88	1.16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04	.08	.669	1.04	.88	1.22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18	.05	.001	1.19	1.08	1.32
상수항		-2.81	.65	.000	.06		
Nagelkerke R ²		0.13					
-2log likelihood		1982.54					

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영향 요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F1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는 응답자의 24.3%(남성 26.5%, 여성 22.1%)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성별이 남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마약류 관련 지식이 많은 경우, 마약류 노출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경우, 예방장애요인을 낮게 느끼는 경우, 예방실천도가 높은 경우,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캠페인 등으로 각종 홍보를 접한 경우,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 예방교육을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3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변수명	β	S.E.	p	Odds Ratio	Upper CI	Lower CI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21	.10	.043	.81	.67	.99
	연령	.00	.01	.675	1.00	.99	1.01
	교육수준	.20	.06	.000	1.23	1.10	1.37
	가구소득	-.03	.02	.119	.97	.93	1.01
	해외거주경험	.17	.14	.223	1.18	.90	1.54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9	.01	.000	1.09	1.06	1.12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14	.06	.017	1.15	1.03	1.30
	심각성	-0.04	.05	.410	.96	.87	1.06
	예방장애요인	-.31	.07	.000	.74	.64	.85
	예방유익성	.06	.07	.423	1.06	.92	1.23
	예방실천도	.15	.07	.040	1.16	1.01	1.35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12	.10	.202	.89	.73	1.07
	개인적 낙인	.00	.05	.999	1.00	.90	1.11
	사회적 낙인	.13	.06	.023	1.13	1.02	1.26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인터넷, 캠페인 등 각종 홍보 인지	1.12	.14	.000	3.06	2.33	4.01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인지	1.24	.10	.000	3.47	2.83	4.25
	마약류 상담 인지	.06	.14	.687	1.06	.81	1.39
	예방교육 인지	.87	.15	.000	2.39	1.80	3.18
상수항		-3.50	.55	.000	.03		
Nagelkerke R ²		0.29					
-2log likelihood		2682.35					

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 영향 요인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존재를 인지하는 경우(F2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는 응답자의 26.8% (남성 27.6%, 여성 25.9%)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연령이 높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마약류 관련 지식이 많은 경우, 마약류 노출가능성을 높게 느끼는 경우, 마약류의 심각성을 낮게 느끼는 경우, 인터넷이나 캠페인 등으로 각종 홍보를 접한 경우,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 예방교육을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3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 영향 요인 분석 결과(성인)

	변수명	β	S.E.	p	Odds Ratio	Upper CI	Lower CI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07	.11	.532	.94	.76	1.15
	연령	.01	.01	.011	1.01	1.00	1.02
	교육수준	.12	.06	.033	1.13	1.01	1.27
	가구소득	-.01	.02	.522	.99	.95	1.03
	해외거주경험	.14	.14	.339	1.15	.87	1.51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10	.02	.000	1.11	1.08	1.14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18	.06	.003	1.20	1.06	1.36
	심각성	-.12	.05	.022	.89	.80	.98
	예방장애요인	-.10	.08	.192	.91	.78	1.05
	예방유익성	.04	.08	.625	1.04	.89	1.21
	예방실천도	.03	.08	.662	1.03	.89	1.20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08	.10	.430	1.08	.89	1.32
	개인적 낙인	.02	.06	.719	1.02	.92	1.14
	사회적 낙인	.06	.06	.334	1.06	.95	1.18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인터넷, 캠페인 등 각종 홍보 인지	1.52	.15	.000	4.56	3.40	6.12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인지	1.75	.11	.000	5.74	4.68	7.05
	마약류 상담 인지	.02	.14	.898	1.02	.77	1.35
	예방교육 인지	.91	.15	.000	2.49	1.84	3.35
상수항		-5.08	.59	.000	.01		
Nagelkerke R ²					0.40		
-2log likelihood					2536.13		

2절. 청소년 조사의 주요 발견

가. 요약

1. 2024년도 청소년 마약류 폐해 조사 결과

1.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여부 및 접근성: 청소년의 63.4%는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으며, 93.3%는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79.2%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마약 접근성이 영상 매체 등을 통해 마약 접근성이 과대평가 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예방 실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행 의사가 있는 경우는 70.3%이고, 주변 사람에게 마약류 예방 행동에 영향을 줄 의향이 있는 경우는 71.1%였음.

2. 마약의 상업적 용어 사용의 영향: 청소년 중 마약 김밥 등의 용어가 마약류 친숙도를 높인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정도였음(47.1%). 반면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은 24.8%로 나타나 친숙하게 한다는 응답이 22.3%p 높았음. 상업적 용어의 사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류에 대한 친숙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업적 용어 사용과 관련한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3. 마약류 사용 동기: 청소년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또래와 어울리기 위한 목적(사회동기, 15.78점), 즐거움을 위한 목적(고양동기, 23.96점)보다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대처동기, 31.50점)을 더 강한 마약류 사용 동기로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마약류 사용이 신체적 고통, 우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의 점수가 35.13점으로 높았는데, 각성효과는 학업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학생에게 주요 관심사인 경우가 많고, ADHD 치료제 등이 각성도를 높여 공부를 잘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부분에 다수(66.5%)가 동의하였고 특히 여학생의 동의율이 74.4%로 더 높았음. 청소년들이 외모를 특히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가 외모를 변형시킨다는 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적절히 소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가능성(민감도)은 100점 만점 중 19.97점으로 낮았음. 예방장애요인은 62.41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마약류 예방 유익성은 63.16점, 마약류 심각성은

64.54점, 예방실천도는 74.30점으로 높았음.

5.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지식의 경우 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63.97점, 표준편차 25.61점이었음.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인 ‘주의력결핍장애(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등)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F)’의 정답률이 41.5%로 20문항 중 가장 낮았음. 청소년의 과업 특성상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공부 잘하는 약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에 맞다 29.9%, 틀리다 42.8%, 모르겠다가 27.4%였음. 오답인 ‘맞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9.9%로 높아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청소년의 경우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막연히 의료전문직이 윤리 준수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음. 비슷한 맥락에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에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가 15.4%이었으므로 의료전문직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이 필요함(맞다 78.0%, 틀리다 6.7%).
- 본드 등의 환각물질은 청소년의 마약류 이용 경로에서 진입 물질 역할을 하므로 더욱 정확한 지식이 필요함. 그런데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0.8%가 있어서(맞다 73.3%, 틀리다 6.0%), 예방 교육 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한국인의 마약류 사용 관련 성향: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마약류 노출 및 중독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4.8%,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1.7%나 되었음.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 경우도 29.9%로 상당한 수준이었음. 이는 청소년들이 절대적인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마약류의 위험성 자체에 관한 판단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마약류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비합리적인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지식 및 예방 교육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향을 요인별로 묶어서 평균 점수를 구해 보면, 자기과신의 평균점은 2.26점임(4점 만점).

7. 청소년의 경우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낙인이 약하였음(평균점수 3.16, 1~5 리커트 척도).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35.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40.6%에 불과하였음.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의 경우 동의율이 37.3% 정도로 더 낮았음. 이는 청소년이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편견이 덜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려 깊은 관용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청소년기 특유의 도덕적 무규범 상태의 표출일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8. 마약류 물질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들은 현재 이슈가 되거나 영화 등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물질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이전 세대에 유행했던 물질의 경우 인지도가 낮았음. 대마초의 인지도가 88.0%로 가장 높은데, 2023년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연예인 마약 사건 등에 자주 언급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코카인(87.2%),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75.7%)의 인지도도 높았음.

화제성이 높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

9. 주변 마약류 물질 사용자 수와 인지에 대한 질문: 청소년의 5.3%가 주변인이 대마초를 피운다고 응답하였음. 청소년의 11.8%는 주변인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4.9%가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음.

10. 마약류 사용경험: 청소년 중 1.7%가 마약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본인 사용률이 가장 높은 물질은 살 빼는 약이었음(5.7%). 공부 잘하는 약도 사용률이 3.5%였음.

11. 마약류 및 중독 물질 사용 동기: 청소년 마약류 사용 경험자 34명 중 사용 동기를 호기심으로 응답한 경우가 20명(58.8%)으로 가장 많았음. 호기심이 동기인 경우는 남자 청소년 13명(72.2%), 여자 청소년 7명(43.8%)이었으며, 남자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용 동기였음. 살을 빼기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은 24명(70.6%)으로 남자 청소년 9명(50.0%), 여자 청소년 15명(93.8%)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었음.

12. 마약류 및 중독 물질 획득 경로: 오프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15명(38.5%)으로 남자 청소년은 10명(47.6%), 여자 청소년이 5명(27.8%)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이었음.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짜로 얻었다는 응답이 9명(23.1%)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은 4명(19%) 여자 청소년 5명(27.8%)이었고,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응답이었음.

13.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 식약처의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 수립·사업 추진 인지 여부는 18.3%,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도는 19.6%, 홈페이지나 SNS 등의 캠페인 인지도는 16.2%로 낮은 편이었음. 그러나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25.6%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추론됨.

- 함께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53명(11.8%)으로, 용기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00명(20.0%)으로 인지도가 낮지 않았음.
-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상담 등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묻은 결과, 마약류 사용은 본인 책임이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885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577명(28.8%)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나. 청소년 연구대상자 특징

- 14세~18세의 청소년,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할당
-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 총 유효 응답자수 2,000명
- 조사 시기: 2024년 중반기

표 3-36.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자 청소년	1,000	100.0	1000	100.0		
	여자 청소년	1,000	100.0			1,000	100.0
연령	14	131	6.6	84	8.4	47	4.7
	15	425	21.3	245	24.5	180	18
	16	468	23.4	249	24.9	219	21.9
	17	488	24.4	205	20.5	283	28.3
	18	488	24.4	217	21.7	271	27.1
학년	초등학교 6학년	2	0.1	2	0.2	0	0
	중학교 1학년	3	0.2	1	0.1	2	0.2
	중학교 2학년	135	6.8	89	8.9	46	4.7
	중학교 3학년	423	21.3	245	24.6	178	18
	고등학교 1학년	460	23.2	245	24.6	215	21.8
	고등학교 2학년	478	24.1	201	20.2	277	28.1
	고등학교 3학년	482	24.3	213	21.4	269	27.3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1838	91.9	881	88.1	957	95.7
	친척 집에서 살고 있다	16	0.8	11	1.1	5	0.5
	하숙, 자취(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	48	2.4	40	4	8	0.8
	기숙사	72	3.6	47	4.7	25	2.5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26	1.3	21	2.1	5	0.5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가구원 수	혼자 살고 있다	34	1.7	28	2.8	6	0.6
	2명	140	7.0	67	6.7	73	7.3
	3명	427	21.4	213	21.3	214	21.4
	4명	943	47.2	482	48.2	461	46.1
	5명 이상	456	22.8	210	21	246	24.6
가구형태	단독주택	184	9.2	103	10.3	81	8.1
	아파트	1481	74.1	734	73.4	747	74.7
	연립·다세대주택	276	13.8	128	12.8	148	14.8
	기타(기숙사 등)	59	3.0	35	3.5	24	2.4
주택소유	부모님 소유	1305	65.3	673	67.3	632	63.2
	전세	409	20.5	167	16.7	242	24.2
	보증금 있는 월세	214	10.7	110	11	104	10.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37	1.9	25	2.5	12	1.2
	무상 임대	35	1.8	25	2.5	10	1.0
아버지 최종학력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81	4.1	53	5.3	28	2.8
	중학교 졸업	212	10.6	108	10.8	104	10.4
	고등학교 졸업	568	28.4	282	28.2	286	28.6
	전문대 졸업	171	8.6	92	9.2	79	7.9
	(4년제) 대학교 졸업	820	41.0	395	39.5	425	42.5
	대학원 이상	148	7.4	70	7	78	7.8
어머니 최종학력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1	1.1	15	1.5	6	0.6
	중학교 졸업	52	2.6	29	2.9	23	2.3
	고등학교 졸업	624	31.2	297	29.7	327	32.7
	전문대 졸업	228	11.4	121	12.1	107	10.7
	(4년제) 대학교 졸업	943	47.2	468	46.8	475	47.5
	대학원 이상	132	6.6	70	7	62	6.2
가정의 경제상태	상	116	5.8	76	7.6	40	4.0
	중상	548	27.4	304	30.4	244	24.4
	중	930	46.5	430	43	500	50
	중하	348	17.4	160	16	188	18.8
	하	58	2.9	30	3	28	2.8
가족 외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	없다	1574	78.7	792	79.2	782	78.2
	있다	426	21.3	208	20.8	218	21.8

다. 청소년 본조사 결과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1) 마약류에 대한 인식

- A1 청소년의 63.4%는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음.
- A2 93.3%는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현 정부에서 마약 관련 이슈를 중요시하고, 마약 관련 보도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A3 79.2%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이 마약 접근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A4 절반 이상의 청소년(52.2%)이 마약류의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38.7%가 '한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라고 하여 절대다수가 마약류의 이름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5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과 '마약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각각 82.2%, 90.3%). 그런데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나(76.2%) 모르겠다는 응답이 16.7%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라는 용어 자체가 청소년에게 생소하게 다가가는 것으로 보임.

2) 마약류 사용 위험의 공감도, 실천도

- A6 마약 김밥 등의 용어가 마약류 친숙도를 높인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정도였음(47.1%).
- A7~A8 마약류 중독증상 등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76.2%인 반면, 마약류 예방 실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행 의사가 있는 경우는 70.3%였음. 예방행동에 대한 실천 의지는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A9 주변 사람에게 마약류 예방 행동에 영향을 줄 의향이 경우는 71.1%였음.

표 3-37.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244	12.2	122	12.2	122	12.2
	그렇지 않다	1024	51.2	478	47.8	546	54.6
	그렇다	458	22.9	246	24.6	212	21.2
	매우 그렇다	124	6.2	78	7.8	46	4.6
	모르겠다	150	7.5	76	7.6	74	7.4
2. 여러분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27	1.4	17	1.7	10	1
	심각하지 않다	285	14.3	152	15.2	133	13.3
	심각하다	993	49.7	488	48.8	505	50.5
	매우 심각하다	561	28.1	274	27.4	287	28.7
	모르겠다	134	6.7	69	6.9	65	6.5
3. 여러분은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63	3.2	37	3.7	26	2.6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353	17.7	207	20.7	146	14.6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1147	57.4	521	52.1	626	62.6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37	21.9	235	23.5	202	20.2
4.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119	6	72	7.2	47	4.7
	한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773	38.7	357	35.7	416	41.6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1043	52.2	527	52.7	516	51.6
	종류와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65	3.3	44	4.4	21	2.1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 (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전혀 위험하지 않다	27	1.4	23	2.3	4	0.4
	위험하지 않다	158	7.9	82	8.2	76	7.6
	위험하다	977	48.9	460	46	517	51.7
	매우 위험하다	666	33.3	344	34.4	322	32.2
	잘 모르겠다	172	8.6	91	9.1	81	8.1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2) 마약류(예: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필로폰, 엑스터시 등)	전혀 위험하지 않다	14	0.7	12	1.2	2	0.2
	위험하지 않다	38	1.9	30	3	8	0.8
	위험하다	400	20	225	22.5	175	17.5
	매우 위험하다	1406	70.3	654	65.4	752	75.2
	잘 모르겠다	142	7.1	79	7.9	63	6.3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 (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전혀 위험하지 않다	18	0.9	15	1.5	3	0.3
	위험하지 않다	124	6.2	75	7.5	49	4.9
	위험하다	899	45	428	42.8	471	47.1
	매우 위험하다	625	31.3	321	32.1	304	30.4
	잘 모르겠다	334	16.7	161	16.1	173	17.3
6.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104	5.2	54	5.4	50	5.0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391	19.6	169	16.9	222	22.2
	보통	563	28.2	318	31.8	245	24.5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830	41.5	393	39.3	437	43.7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112	5.6	66	6.6	46	4.6
7. 만약 여러분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21	1.1	18	1.8	3	0.3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120	6.0	61	6.1	59	5.9
	보통	335	16.8	202	20.2	133	13.3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783	39.2	373	37.3	410	41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741	37.1	346	34.6	395	39.5
8.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여러분은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19	1	12	1.2	7	0.7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103	5.2	60	6	43	4.3
	보통	472	23.6	275	27.5	197	19.7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917	45.9	424	42.4	493	49.3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489	24.5	229	22.9	260	26
9.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3	1.2	13	1.3	10	1.0
	그렇지 않다	88	4.4	48	4.8	40	4
	보통	468	23.4	268	26.8	200	20
	그렇다	977	48.9	465	46.5	512	51.2
	매우 그렇다	444	22.2	206	20.6	238	23.8

2.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1) 마약류 사용 동기

- B1 청소년의 경우 다른 동기에 비해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평균 3.62점, 1~5 리커트 척도)과 대처동기(평균 2.26점)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구와는 달리 또래와 어울리기 위한 사회동기는 매우 낮았음(평균 1.63점). 재미와 즐거움 등 고양동기도 낮았음(평균 1.96점).
- 고양 동기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로 2.12점이었음. ‘마약류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는 이보다 다소 낮아서 1.98점,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는 더 낮아서 1.78점이었음.
- 대처동기는 전반적으로 고양동기보다 점수가 높았음. 그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이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로 2.42점이었음. 이어서 우울 대처가 2.22점, 스트레스 대처가 2.15점이었음.
- 사회동기는 고양동기와 대처동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특히 ‘마약류 사용은 사교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항목이 1.62점으로 낮아 사교 목적의 마약류 사용이 한국의 맥락에서는 강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도 1.64점으로 낮았고, ‘마약류 사용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도 1.64점으로 낮았음.
- 마약류 효과 긍정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았음.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가 1.73점으로 가장 낮았고, ‘마약류 사용은 신체 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가 1.78점으로 그다음으로 낮았음.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2.40점으로 다른 긍정 인식에 비해 높았으나 부정 인식에 비해서는 낮았음.
- 마약류 효과 부정 인식은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었음.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가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로 3.62점, 마지막으로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이 3.52점이었음.

표 3-38.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청소년)

	고양동기	대처동기	사회동기	마약류효과 긍정인식	마약류효과 부정인식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96(0.99)	2.26(1.16)	1.63(0.88)	1.97(0.96)	3.62(1.29)
2024년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23.96(24.85)	31.50(28.99)	15.78(22.03)	24.30(24.00)	65.55(32.13)
2023년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22.80(24.58)	31.94(28.86)	11.95(18.69)	24.50(23.33)	74.82(25.43)

표 3-39.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 통계량(청소년)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2.12(1.18)	27.94(29.39)
2) 마약류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98(1.15)	24.50(28.86)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78(1.04)	19.45(25.95)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15(1.25)	28.70(31.21)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22(1.27)	30.39(31.76)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42(1.33)	35.40(33.20)
7)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62(0.93)	15.52(23.29)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1.64(0.97)	15.93(24.14)
9) 마약류 사용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1.64(0.95)	15.89(23.86)
10)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73(1.01)	18.19(25.13)
11)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78(1.05)	19.57(26.36)
12)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40(1.35)	35.13(33.86)
13)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3.62(1.34)	65.58(33.41)
14)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3.52(1.35)	63.10(33.78)
1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3.72(1.41)	67.97(35.20)

- 특히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에 동의한 경우가 26.9%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6.1%로 그다음으로 많았음. 각성효과는 학업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학생에게 주요 관심사인 경우가 많고, ADHD 치료제 등이 각성도를 높여 공부를 잘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아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음.
-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의 경우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에 65.5%가 동의하여 동의율이 매우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72.7%로 더 높았음. 여학생들이 수면장애에 더욱 민감하게 응답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부분에도 다수(66.5%)가 동의하였고 특히 여학생의 동의율이 74.4%로 더 높았음. 청소년들이 외모를 특히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가 외모를 변형시킨다는 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적절히 소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40.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816	40.8	386	38.6	430	43
	그렇지 않다	542	27.1	267	26.7	275	27.5
	보통	286	14.3	159	15.9	127	12.7
	그렇다	303	15.2	148	14.8	155	15.5
	매우 그렇다	53	2.7	40	4	13	1.3
2) 마약류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951	47.50	438	43.8	513	51.3
	그렇지 않다	487	24.3	241	24.1	246	24.6
	보통	265	13.3	152	15.2	113	11.3
	그렇다	245	12.3	134	13.4	111	11.1
	매우 그렇다	52	2.6	35	3.5	17	1.7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87	54.4	492	49.2	595	59.5
	그렇지 않다	494	24.7	246	24.6	248	24.8
	보통	233	11.7	150	15	83	8.3
	그렇다	148	7.4	82	8.2	66	6.6
	매우 그렇다	38	1.9	30	3	8	0.8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890	44.5	422	42.2	468	46.8
	그렇지 않다	391	19.6	191	19.1	200	20
	보통	327	16.4	190	19	137	13.7
	그렇다	317	15.9	149	14.9	168	16.8
	매우 그렇다	75	3.8	48	4.8	27	2.7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837	41.9	410	41	427	42.7
	그렇지 않다	407	20.4	210	21	197	19.7
	보통	339	17	178	17.8	161	16.1
	그렇다	322	16.1	145	14.5	177	17.7
	매우 그렇다	95	4.8	57	5.7	38	3.8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739	37	368	36.8	371	37.1
	그렇지 않다	341	17.1	182	18.2	159	15.9
	보통	399	20	203	20.3	196	19.6
	그렇다	391	19.6	169	16.9	222	22.2
	매우 그렇다	130	6.5	78	7.8	52	5.2
7) 마약류 사용은 사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226	61.3	560	56	666	66.6
	그렇지 않다	444	22.2	227	22.7	217	21.7
	보통	218	10.9	130	13	88	8.8
	그렇다	86	4.3	61	6.1	25	2.5
	매우 그렇다	26	1.3	22	2.2	4	0.4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236	61.8	573	57.3	663	66.3
	그렇지 않다	414	20.7	207	20.7	207	20.7
	보통	221	11.1	135	13.5	86	8.6
	그렇다	98	4.9	60	6	38	3.8
	매우 그렇다	31	1.6	25	2.5	6	0.6
9) 마약류 사용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232	61.6	580	58	652	65.2
	그렇지 않다	411	20.6	212	21.2	199	19.9
	보통	241	12.1	143	14.3	98	9.8
	그렇다	86	4.3	43	4.3	43	4.3
	매우 그렇다	30	1.5	22	2.2	8	0.8
10)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52	57.6	541	54.1	611	61.1
	그렇지 않다	419	21	195	19.5	224	22.4
	보통	278	13.9	175	17.5	103	10.3
	그렇다	124	6.2	68	6.8	56	5.6
	매우 그렇다	27	1.4	21	2.1	6	0.6
11)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16	55.8	530	53	586	58.6
	그렇지 않다	427	21.4	206	20.6	221	22.1
	보통	266	13.3	156	15.6	110	11
	그렇다	157	7.9	84	8.4	73	7.3
	매우 그렇다	34	1.7	24	2.4	10	1
12)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761	38.1	376	37.6	385	38.5
	그렇지 않다	352	17.6	167	16.7	185	18.5
	보통	350	17.5	184	18.4	166	16.6
	그렇다	390	19.5	198	19.8	192	19.2
	매우 그렇다	147	7.4	75	7.5	72	7.2
13)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264	13.2	164	16.4	100	10
	그렇지 않다	147	7.4	91	9.1	56	5.6
	보통	279	14	162	16.2	117	11.7
	그렇다	699	35	298	29.8	401	40.1
	매우 그렇다	611	30.6	285	28.5	326	32.6
14)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276	13.8	170	17	106	10.6
	그렇지 않다	175	8.8	105	10.5	70	7
	보통	346	17.3	184	18.4	162	16.2
	그렇다	631	31.6	264	26.4	367	36.7
	매우 그렇다	572	28.6	277	27.7	295	29.5
1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272	13.6	171	17.1	101	10.1
	그렇지 않다	155	7.8	100	10	55	5.5
	보통	244	12.2	144	14.4	100	10
	그렇다	521	26.1	236	23.6	285	28.5
	매우 그렇다	808	40.4	349	34.9	459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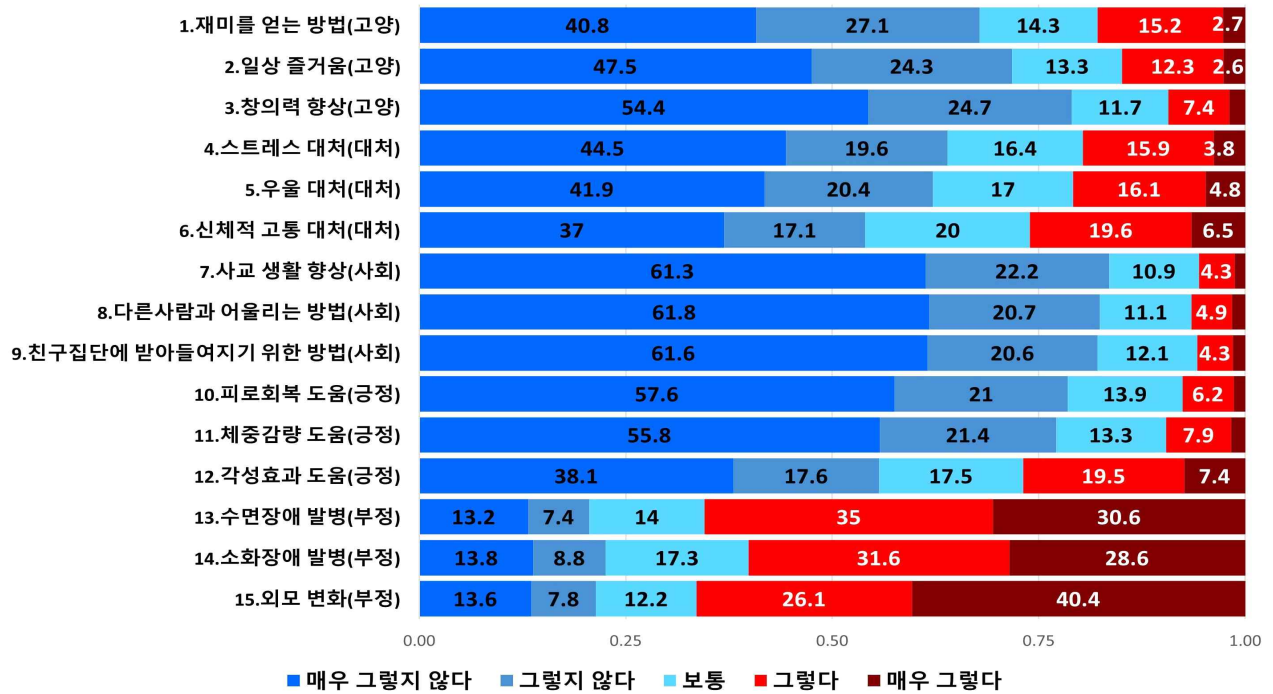


그림 3-11.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청소년)

2)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 B2 청소년은 스스로의 마약류 노출 가능성(민감도)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하였음(평균 1.81점, 1~5 리커트 척도). 호기심으로 인한 노출에 대한 동의율 9.0%, 불안이나 우울로 인한 노출에 대한 동의율 12.9%, 파티나 모임에서의 노출에 대한 동의율 9.3%였음.
- 민감성 중 호기심 관련 문항(‘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77.7%로 다수를 차지함.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13.3%, 그렇다고 답한 경우는 9.0%였음. 남자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답한 경우가 10.7%로, 여자 청소년의 7.3%에 비해 다소 많았음. 호기심으로 인한 노출 가능성(9.0%)은 불안 및 우울로 인한 노출 가능성(12.9%), 파티나 모임에서의 노출 가능성(9.3%)보다는 비슷하거나 낮았음.
- 영역별로 볼 때 예방실천도가 매우 높았음(평균 3.97점).
- 마약류 심각성(3.58점)과 예방유익성(3.53점)도 높게 평가하였음. 예를 들어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의 동의율은 67.1%였음.
- 낙인으로 인한 마약류로 인한 전문가 상담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5.2%만이 동의하여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음.
-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 부족에 대해서는 52.9%가, 마약류 예방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56.6%가 동의하여 동의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었음.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간헐적으로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마약류 예방 교육의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에 대한 동의율이 55.8%, 마약류 예방 교육의 남용 및 중독예방 효과에 대한 동의율이 59.1%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음. 즉, 예방 교육을 접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효능감이 매우 높지는 않음. 예방 교육에서 사회적 폐해에 대한 내용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약사용에 대한 거절 효능감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음.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로 답한 경우가 76.0%였음. ‘파티나 모임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에 대한 동의율도 71.1%로 높은 편인데,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파티에 참여하는 문화가 없는 한국의 상황이 반영된 응답인 것으로 판단됨.

표 3-41.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청소년)

	노출가능성 (민감도)	마약류 심각성	예방장애요인인식	예방유익성	예방실천도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80(0.97)	3.58(1.44)	3.10(1.02)	3.53(1.12)	3.97(1.17)
2024년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9.97(24.26)	64.54(36.08)	52.41(25.59)	63.16(28.05)	74.30(29.23)
2023년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20.30(22.88)	78.50(28.91)	60.03(22.11)	71.92(23.27)	84.25(21.06)

표 3-42.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청소년)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호기심 노출 가능성	1.77(1.05)	19.20(26.31)
우울감 노출 가능성	1.91(1.14)	22.77(28.57)
파티모임 노출 가능성	1.72(1.06)	17.95(26.62)
환각·환청·정신 문제 가능성	3.48(1.55)	62.05(38.78)
충동조절 불가능성	3.54(1.53)	63.39(38.32)
일상적 삶 위협 가능성	3.73(1.52)	68.17(37.98)
사회적 낙인 가능성(원문 그대로, 역코딩 안 함)	2.44(1.31)	35.89(32.74)
예방교육 부족정도 인식(원문 그대로, 역코딩 안 함)	3.39(1.26)	59.73(31.54)
사용예방 인식 부족 정도(원문 그대로, 역코딩 안 함)	3.47(1.26)	61.62(31.45)
예방교육 경제적 손실 예방정도	3.44(1.29)	61.10(32.17)
예방교육 사회적 손실 예방정도	3.57(1.25)	64.35(31.17)
예방교육 중독예방정도	3.56(1.21)	64.02(30.35)
친구 마약권유 거절 효능감	4.09(1.25)	77.34(31.22)
타인관계 문제 효능감	3.86(1.27)	71.49(31.83)

파티·모임 효능감	3.96(1.27)	74.08(31.78)
전체 (장애요인 역코딩 후 계산)	3.16(0.79)	-

* 예방장애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요인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전체 점수를 계산 시에는 역코딩 후 합산하였음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노출가능성(민감도)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문항으로 평균 22.77점이었음. 다음으로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균 19.20점,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균 17.95점이었음.
- 마약류 심각성은 노출가능성(민감도)에 비해 점수가 훨씬 높은 편이었음.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이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로 68.17점이었음. 그다음으로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가 63.39점,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가 62.05점이었음.
- 예방 장애요인 인식은 마약류 심각성보다는 다소 점수가 낮으나 노출가능성(민감도)보다는 훨씬 높았음. 예방 장애요인 인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이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로 61.62점이었음. 그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로 59.73점이었음.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 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라는 예방 장애요인 인식 중 가장 점수가 낮아서 35.89점이었음.
- 예방 유익성은 마약류 심각성보다는 다소 낮으나 노출가능성(민감도), 예방 장애요인 인식보다는 점수가 높았음.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의 점수가 64.35점,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가 64.02점,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가 61.10점이었음.
- 예방실천도는 다른 건강신념에 비해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가 77.34점으로 가장 높았음. ‘파티나 모임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도 74.08점으로 높았으며, ‘나는 다른 사람과 같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도 71.49점이었음.

표 3-43.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31	56.6	522	52.2	609	60.9
	그렇지 않다	423	21.2	201	20.1	222	22.2
	보통	266	13.3	170	17	96	9.6
	그렇다	139	7	77	7.7	62	6.2
	매우 그렇다	41	2.1	30	3	11	1.1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45	52.3	517	51.7	528	52.8
	그렇지 않다	395	19.8	193	19.3	202	20.2
	보통	303	15.2	166	16.6	137	13.7
	그렇다	207	10.4	94	9.4	113	11.3
	매우 그렇다	50	2.5	30	3	20	2
3)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215	60.8	559	55.9	656	65.6
	그렇지 않다	367	18.4	180	18	187	18.7
	보통	232	11.6	158	15.8	74	7.4
	그렇다	139	7	73	7.3	66	6.6
	매우 그렇다	47	2.4	30	3	17	1.7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423	21.2	248	24.8	175	17.5
	그렇지 않다	156	7.8	103	10.3	53	5.3
	보통	185	9.3	129	12.9	56	5.6
	그렇다	506	25.3	209	20.9	297	29.7
	매우 그렇다	730	36.5	311	31.1	419	41.9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399	20	243	24.3	156	15.6
	그렇지 않다	146	7.3	86	8.6	60	6
	보통	197	9.9	131	13.1	66	6.6
	그렇다	501	25.1	226	22.6	275	27.5
	매우 그렇다	757	37.9	314	31.4	443	44.3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348	17.4	213	21.3	135	13.5
	그렇지 않다	128	6.4	89	8.9	39	3.9
	보통	182	9.1	134	13.4	48	4.8
	그렇다	406	20.3	172	17.2	234	23.4
	매우 그렇다	936	46.8	392	39.2	544	54.4
7)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매우 그렇지 않다	680	34	388	38.8	292	29.2
	그렇지 않다	415	20.8	195	19.5	220	22
	보통	401	20.1	196	19.6	205	20.5
	그렇다	362	18.1	148	14.8	214	21.4
	매우 그렇다	142	7.1	73	7.3	69	6.9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236	11.8	157	15.7	79	7.9
	그렇지 않다	226	11.3	131	13.1	95	9.5
	보통	481	24.1	268	26.8	213	21.3
	그렇다	638	31.9	258	25.8	380	38
	매우 그렇다	419	21	186	18.6	233	23.3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229	11.5	154	15.4	75	7.5
	그렇지 않다	195	9.8	108	10.8	87	8.7
	보통	444	22.2	257	25.7	187	18.7
	그렇다	681	34.1	284	28.4	397	39.7
	매우 그렇다	451	22.6	197	19.7	254	25.4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252	12.6	165	16.5	87	8.7
	그렇지 않다	188	9.4	104	10.4	84	8.4
	보통	444	22.2	254	25.4	190	19
	그렇다	652	32.6	265	26.5	387	38.7
	매우 그렇다	464	23.2	212	21.2	252	25.2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206	10.3	143	14.3	63	6.3
	그렇지 않다	169	8.5	96	9.6	73	7.3
	보통	418	20.9	227	22.7	191	19.1
	그렇다	685	34.3	284	28.4	401	40.1
	매우 그렇다	522	26.1	250	25	272	27.2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84	9.2	132	13.2	52	5.2
	그렇지 않다	183	9.2	106	10.6	77	7.7
	보통	452	22.6	238	23.8	214	21.4
	그렇다	689	34.5	303	30.3	386	38.6
	매우 그렇다	492	24.6	221	22.1	271	27.1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9	8	113	11.3	46	4.6
	그렇지 않다	99	5	67	6.7	32	3.2
	보통	223	11.2	146	14.6	77	7.7
	그렇다	434	21.7	211	21.1	223	22.3
	매우 그렇다	1085	54.3	463	46.3	622	62.2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73	8.7	125	12.5	48	4.8
	그렇지 않다	140	7	76	7.6	64	6.4
	보통	322	16.1	181	18.1	141	14.1
	그렇다	525	26.3	232	23.2	293	29.3
	매우 그렇다	840	42	386	38.6	454	45.4
15) 파티나 모임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69	8.5	116	11.6	53	5.3
	그렇지 않다	115	5.8	65	6.5	50	5
	보통	295	14.8	180	18	115	11.5
	그렇다	463	23.2	230	23	233	23.3
	매우 그렇다	958	47.9	409	40.9	549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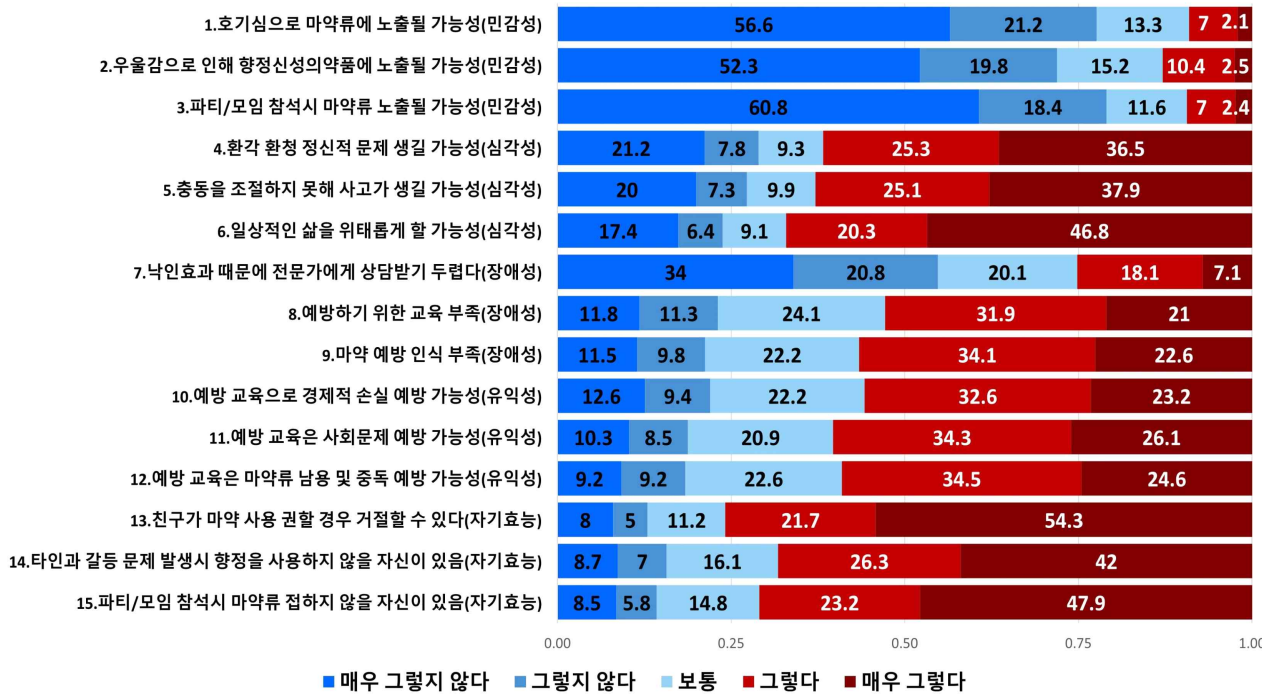


그림 3-12.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청소년)

3) 약물 사용 관련 지식(기본)

- B3 마약류 지식의 경우 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97점, 표준편차 25.61점이었음(맞는 응답을 10점, 틀린 응답 및 모르겠다를 0점으로 처리할 경우).
-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인 ‘주의력결핍장애(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등)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F)’의 정답률이 41.5%로 20문항 중 가장 낮았음. 청소년의 과업 특성상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공부 잘하는 약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에 맞다 29.9%, 틀리다 42.8%, 모르겠다가 27.4%였음. 오답인 ‘맞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9.9%로 높아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청소년의 경우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막연히 의료전문직이 윤리 준수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음.
- 비슷한 맥락에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에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가 15.4%이었으므로 의료전문직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이 필요함(맞다 78.0%, 틀리다 6.7%).
- 2024년에 추가된 ‘엑스터시(MDMA)와 같은 클럽 약물은 환각이나 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F)’의 정답률도 50.4%로 낮은 편이었음. 청소년의 경우 대중매체 등을 통해 클럽 약물에 대해 부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T)’ (정답률: 52.3%),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속하지 않는다(F)’ (정답률: 52.5%)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T)’ (정답률: 52.9%), ‘살 빼는 약(펜타민, 나비약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F)’ (정답률: 54.1%)도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었음. 펜타닐과 물뽕 등은 SNS나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 사이에 부정확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항목임. 프로포폴과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살 빼는 약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어느 인터넷 쇼핑처럼 가벼운 소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의 경우 맞다가 58.7%, 틀리다가 6.2%, 모르겠다가 35.2%로, 정답률이 낮은 편에 속하였음.
- 본드 등의 환각물질은 청소년의 마약류 이용 경로에서 진입 물질 역할을 하므로 더욱 정확한 지식이 필요함. 그런데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0.8%가 있어서(맞다 73.3%, 틀리다 6.0%), 예방 교육 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약물 사용 관련 지식(추가)

표 3-44. 마약류 지식 정답률(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마약류를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T)	1677	83.9	766	76.6	911	91.1
2) 마약류를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T)	1584	79.2	707	70.7	877	87.7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T)	1046	52.3	538	53.8	508	50.8
4) 마약류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T)	1174	58.7	584	58.4	590	59
5)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F)	856	42.8	409	40.9	447	44.7
6)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T)	1058	52.9	521	52.1	537	53.7
7)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F)	1218	60.9	537	53.7	681	68.1
8)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T)	1465	73.3	690	69	775	77.5
9) 마약류를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F)	1379	69	618	61.8	761	76.1
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1559	78	695	69.5	864	86.4

불법이다(T)						
11)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해도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중독될 수 있다(T)	1565	78.3	720	72	845	84.5
12) 마약류인지 모르고 운반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T)	1368	68.4	645	64.5	723	72.3
13) 마약류를 사용하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T)	1528	76.4	704	70.4	824	82.4
14) 마약류를 사용하면 심각한 정신병(예: 우울, 환각, 피해망상 등)이 생길 수 있다(T)	1615	80.8	731	73.1	884	88.4
15) 마약류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면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학적인 도움은 필요 없다(F)	1305	65.3	564	56.4	741	74.1
16) 프로포폴과 같은 항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속하지 않는다(F)	1049	52.5	454	45.4	595	59.5
17) 필로폰(히로뽕)에 중독되면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T)	1224	61.2	571	57.1	653	65.3
18) 살 빼는 약(펜타민, 나비약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F)	1082	54.1	479	47.9	603	60.3
19) 주의력결핍장애(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등)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F)	829	41.5	383	38.3	446	44.6
20) 엑스터시(MDMA)와 같은 클럽 약물은 환각이나 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F)	1007	50.4	456	45.6	551	55.1
전체 평균(표준편차)		63.97(25.61)		58.86(27.65)		69.08(22.27)

T=True, F=Fa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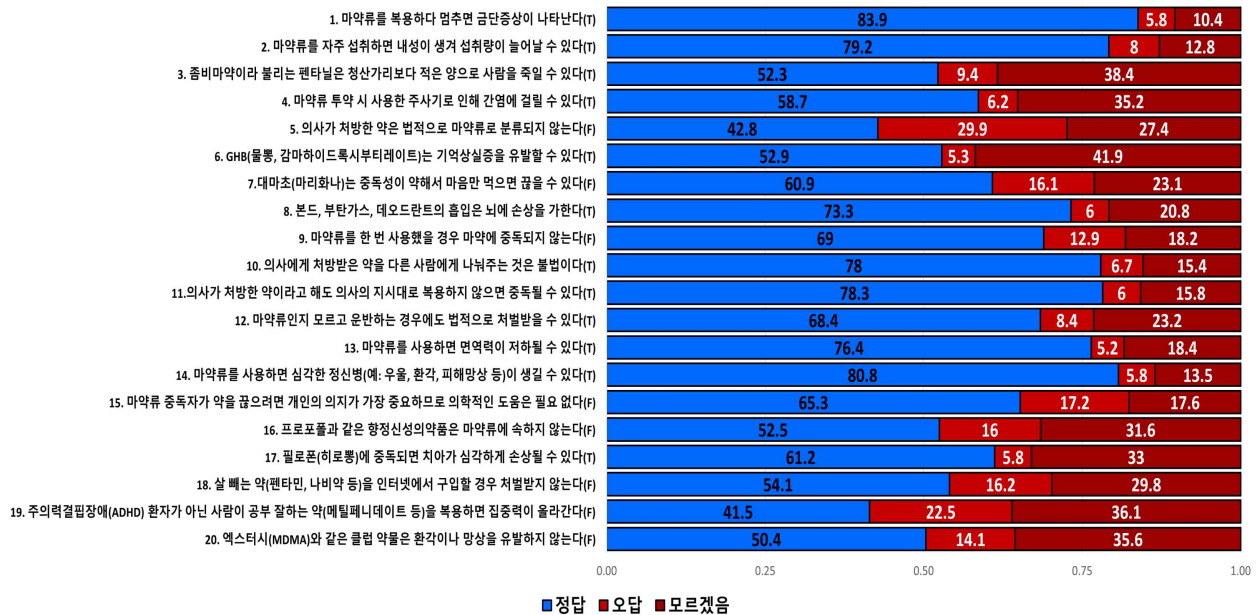


그림 3-13. 마약류 지식 정답률(청소년)

3.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1) 자각된 스트레스와 외로움

- C1 평소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94.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많이 느끼는 경우도 54.4%로 절반 정도였음.
- C2 최근 12개월 동안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1.4%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특히 자주 혹은 항상 외로움을 느낌 사람의 비중이 여학생(29.1%)이 남학생(23.5%)에 비해 많았음.

표 3-45. 자각된 스트레스 및 외로움(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305	15.3	126	12.6	179	17.9
	많이 느끼는 편이다	782	39.1	345	34.5	437	43.7
	조금 느끼는 편이다	803	40.2	452	45.2	351	35.1
	거의 느끼지 않는다	110	5.5	77	7.7	33	3.3
외로움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177	8.9	116	11.6	61	6.1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396	19.8	213	21.3	183	18.3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901	45.1	436	43.6	465	46.5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414	20.7	180	18	234	23.4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112	5.6	55	5.5	57	5.7

2) 한국인의 성향

- C3 전반적으로 마약류 노출 및 중독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4.8%,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1.7%나 되었음.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한 경우도 29.9%로 상당한 수준이었음. 이는 청소년들이 절대적인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마약류의 위험성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마약류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비합리적인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지식 및 예방 교육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향을 요인별로 묶어서 평균 점수를 구해 보면, 자기과신의 평균점은 2.26점임.

표 3-46. 성향(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438	21.9	236	23.6	202	20.2
	동의하지 않음	666	33.3	296	29.6	370	37
	동의함	520	26	268	26.8	252	25.2
	매우 동의함	376	18.8	200	20	176	17.6
2)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507	25.4	256	25.6	251	25.1
	동의하지 않음	660	33	299	29.9	361	36.1
	동의함	508	25.4	270	27	238	23.8
	매우 동의함	325	16.3	175	17.5	150	15
3)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754	37.7	355	35.5	399	39.9
	동의하지 않음	649	32.5	299	29.9	350	35
	동의함	360	18	212	21.2	148	14.8
	매우 동의함	237	11.9	134	13.4	103	10.3

표 3-47. 성향 통계량(청소년)

	4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자기 과신 (C3 1, C3 2, C3 3의 평균)	2.26(0.92)	42.03(3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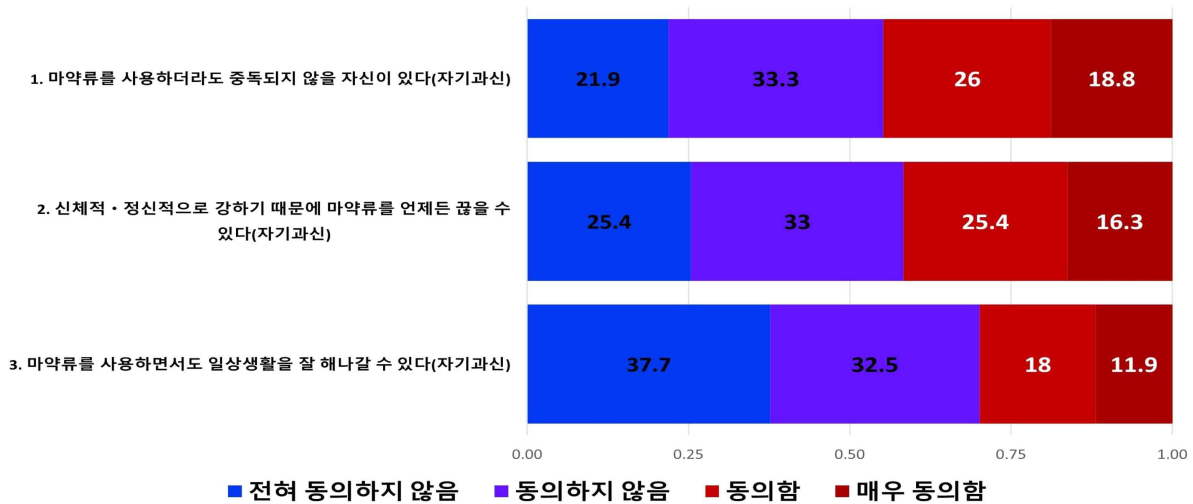


그림 3-14. 성향 통계량(청소년)

4.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낙인) 인식

- D1 청소년의 경우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낙인이 약하였음(평균점수 3.16, 1~5 리커트 척도).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35.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40.6%에 불과하였음.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의 경우 동의율이 37.3% 정도로 더 낮았음. 이는 청소년이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편견이 덜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려 깊은 관용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청소년기 특유의 도덕적 무규범 상태의 표출일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표 3-48.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 평균(청소년)

D1	d1_d1d3	d1_d4d6	d1_d7d9	d1_10	d1_11	d1_12
(rec: 8)	마약류 중독에 대한 낙인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 낙인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대마초 합법화O	마약검사 사생활침해O	마약중독 치료예방 위해 더 많은예산O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4.25(0.86)	3.16(1.05)	3.23(0.95)	2.15(1.29)	2.11(1.27)	3.67(1.06)
10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81.20(21.52)	53.99(26.22)	55.77(23.79)	28.65(32.27)	27.76(31.76)	66.78(26.43)

- 그러나 막상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에는 39.5% 정도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마약류 사용 개인에 대한 낙인의 부재가 이들에 대한 관용과 공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마약류 폐해 예방 교육 시, 공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타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 D1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한 사람 비율은 17.4%, 점수는 2.15점(1~5점 리커트 척도, 높을수록 동의)이었음. 김용석 외(2019)¹⁸⁾에 의하면 ‘대마초는 합법화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1.67점(5점 리커트 척도)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임. 김용석 외(2019)의 경우 성인 사회복지사 대상의 연구이고,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가 변함에 따라 기호품으로서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성 정도가 미

18) 김용석, 이엽, 이진의, 박소영, 이은희, 박선현, 신희연. (2019). 한국어판 물질남용에 대한 태도 척도 (Substance Abuse Attitude Survey) 의 타당화 연구-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1, 41-76.

세하게 상승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표 3-49.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59	3	46	4.6	13	1.3
	동의하지 않음	49	2.5	36	3.6	13	1.3
	보통	221	11.1	153	15.3	68	6.8
	동의함	685	34.3	327	32.7	358	35.8
	매우 동의함	986	49.3	438	43.8	548	54.8
2)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42	2.1	37	3.7	5	0.5
	동의하지 않음	55	2.8	40	4	15	1.5
	보통	261	13.1	185	18.5	76	7.6
	동의함	588	29.4	269	26.9	319	31.9
	매우 동의함	1054	52.7	469	46.9	585	58.5
3)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45	2.3	39	3.9	6	0.6
	동의하지 않음	71	3.6	41	4.1	30	3
	보통	273	13.7	183	18.3	90	9
	동의함	619	31	289	28.9	330	33
	매우 동의함	992	49.6	448	44.8	544	54.4
4)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3	6.7	76	7.6	57	5.7
	동의하지 않음	464	23.2	175	17.5	289	28.9
	보통	691	34.6	351	35.1	340	34
	동의함	394	19.7	210	21	184	18.4
	매우 동의함	318	15.9	188	18.8	130	13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81	9.1	79	7.9	102	10.2
	동의하지 않음	412	20.6	140	14	272	27.2
	보통	596	29.8	316	31.6	280	28
	동의함	464	23.2	237	23.7	227	22.7
	매우 동의함	347	17.4	228	22.8	119	11.9
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92	9.6	91	9.1	101	10.1
	동의하지 않음	399	20	155	15.5	244	24.4
	보통	664	33.2	329	32.9	335	33.5
	동의함	433	21.7	217	21.7	216	21.6
	매우 동의함	312	15.6	208	20.8	104	10.4
7)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8	6.9	75	7.5	63	6.3
	동의하지 않음	272	13.6	118	11.8	154	15.4
	보통	560	28	275	27.5	285	28.5
	동의함	609	30.5	293	29.3	316	31.6
	매우 동의함	421	21.1	239	23.9	182	18.2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8)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9	10.5	116	11.6	93	9.3
	동의하지 않음	377	18.9	155	15.5	222	22.2
	보통	663	33.2	328	32.8	335	33.5
	동의함	478	23.9	230	23	248	24.8
	매우 동의함	273	13.7	171	17.1	102	10.2
9)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25	11.3	114	11.4	111	11.1
	동의하지 않음	366	18.3	156	15.6	210	21
	보통	619	31	313	31.3	306	30.6
	동의함	510	25.5	239	23.9	271	27.1
	매우 동의함	280	14	178	17.8	102	10.2
1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09	45.5	356	35.6	553	55.3
	동의하지 않음	380	19	177	17.7	203	20.3
	보통	363	18.2	231	23.1	132	13.2
	동의함	206	10.3	130	13	76	7.6
	매우 동의함	142	7.1	106	10.6	36	3.6
11)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20	46	375	37.5	545	54.5
	동의하지 않음	396	19.8	168	16.8	228	22.8
	보통	365	18.3	238	23.8	127	12.7
	동의함	181	9.1	119	11.9	62	6.2
	매우 동의함	138	6.9	100	10	38	3.8
12)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6	4.8	58	5.8	38	3.8
	동의하지 않음	121	6.1	61	6.1	60	6
	보통	615	30.8	316	31.6	299	29.9
	동의함	681	34.1	303	30.3	378	37.8
	매우 동의함	487	24.4	262	26.2	225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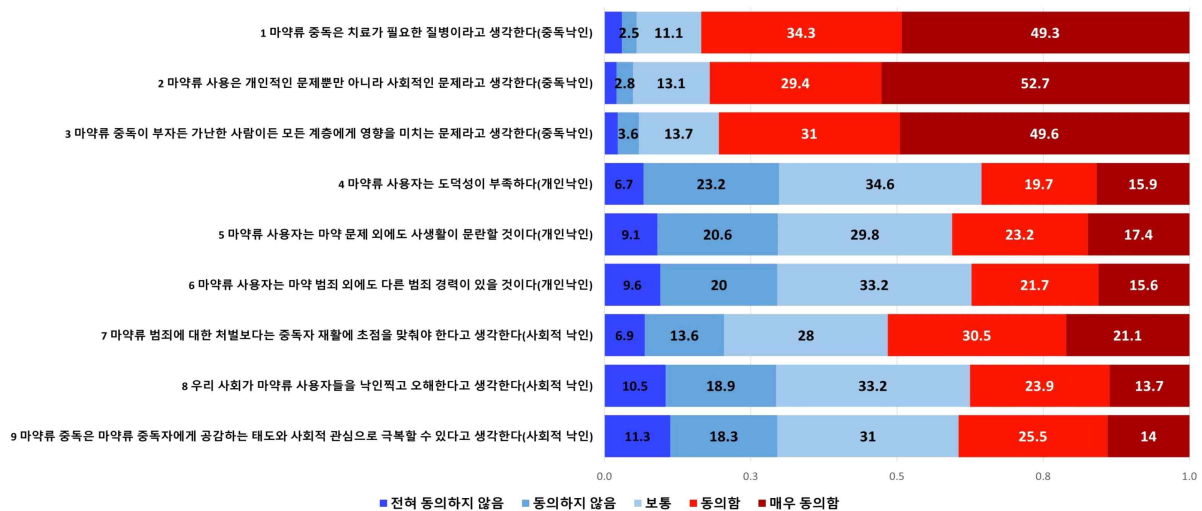


그림 3-15.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청소년)

5. 마약류 및 중독약물 경험

1) 흡연 및 음주

- E1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6.2%였음.
- E2 흡연자의 경우 궤련을 피는 경우가 92명으로 가장 많았음.
- E3 청소년의 연간음주율은 19.6%였음.
- E4 주량은 소주 1잔(=맥주 1캔)인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으나 소주 1병 이상인 경우도 30.7%로 상당히 많았음.

표 3-50. 흡연과 음주 행동(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재 흡연 유무	매일 피운다	57	2.9	47	4.7	10	1
	가끔 피운다	66	3.3	51	5.1	15	1.5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115	5.8	85	8.5	30	3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762	88.1	817	81.7	945	94.5
흡연하는 담배 종류	궐련(일반 담배)	92	4.6	74	7.4	18	1.8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68	3.4	51	5.1	17	1.7
	궐련형 전자담배	22	1.1	20	2	2	0.2
평소 음주 빈도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609	80.5	752	75.2	857	85.7
	한 달에 1번 미만	214	10.7	116	11.6	98	9.8
	한 달에 1번 정도	56	2.8	36	3.6	20	2
	한 달에 2-3번 정도	80	4	63	6.3	17	1.7
	일주일에 1번 정도	14	0.7	10	1	4	0.4
	일주일에 2-3번 정도	16	0.8	14	1.4	2	0.2
	일주일에 4-5번 이상	11	0.6	9	0.9	2	0.2
1회 음주량	소주 1잔(=맥주 1캔)	139	35.5	74	29.8	65	45.5
	소주 2잔	17	4.3	11	4.4	6	4.2
	소주 3잔(=맥주 2캔)	55	14.1	33	13.3	22	15.4
	소주 4잔(=맥주 3캔)	34	8.7	19	7.7	15	10.5
	소주 5잔	11	2.8	6	2.4	5	3.5
	소주 6잔(=맥주 4캔)	15	3.8	11	4.4	4	2.8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33	8.4	21	8.5	12	8.4
	소주 1병 반(=맥주 8캔)	27	6.9	22	8.9	5	3.5
	소주 2병(=맥주 10캔)	28	7.2	22	8.9	6	4.2
	소주 2병 반(=맥주 13캔)	11	2.8	11	4.4	0	0
	소주 3병(=맥주 15캔)	6	1.5	6	2.4	0	0
	소주 3병 반(=맥주 18캔)	6	1.5	6	2.4	0	0
	소주 4병(=맥주 20캔)	1	0.3	1	0.4	0	0
	소주 5병 이상	8	2	5	2	3	2.1

2)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 여부

- E5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 흡입제 사용 경험을 물었을 때 응답자 중 80명(4.0%)이 유경험자였음. 이 중 남자 청소년이 59명(5.9%), 여자 청소년은 21명(2.1%)으로 나타남.

표 3-51.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 여부(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생 동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몇 번이나 흡입하셨습니다?	전혀 없음	1920	96	941	94.1	979	97.9
	1~2회	37	1.9	24	2.4	13	1.3
	3~5회	18	0.9	17	1.7	1	0.1
	6~9회	11	0.6	9	0.9	2	0.2
	10회 이상	14	0.7	9	0.9	5	0.5

3)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

- E6 청소년들은 현재 이슈가 되거나 영화 등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물질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반면, 이전 세대에 유행했던 물질의 경우 인지율이 낮았음.
- 대마초의 인지율이 88.0%로 가장 높는데, 2023년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연예인 마약 사건 등에 자주 언급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코카인(87.2%),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75.7%)의 인지율도 높았음. 화제성이 높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프로포폴 등 마취제(60.8%), 헤로인(60.1%)의 인지율도 다소 높은 편이었음.
- 펜타민 등 살 빠지는 약의 인지율은 절반 정도였으며(46.7%), 카트 등 캐치논류 마약(10.1%)의 인지율이 가장 낮았음. 이는 세대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표 3-52.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청소년)

(‘예’라고 응답한 기준)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979	49	471	47.1	508	50.8
2) 코카인(크랙 등)	1743	87.2	832	83.2	911	91.1
3) 헤로인	1201	60.1	594	59.4	607	60.7
4)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385	19.3	226	22.6	159	15.9
5)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1759	88	832	83.2	927	92.7
6)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킵크, 조커 등)	706	35.3	386	38.6	320	32
7) LSD 및 기타 환각제	642	32.1	368	36.8	274	27.4
8) GHB(물뽕 등)	808	40.4	423	42.3	385	38.5
9) 케타민(K, 캣 발롬 등)	292	14.6	183	18.3	109	10.9
10) 케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202	10.1	133	13.3	69	6.9
11)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1513	75.7	715	71.5	798	79.8
1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뎴-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953	47.7	403	40.3	550	55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1215	60.8	525	52.5	690	69
14)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530	26.5	253	25.3	277	27.7
15)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933	46.7	401	40.1	532	53.2
16) 마약버섯	395	19.8	257	25.7	138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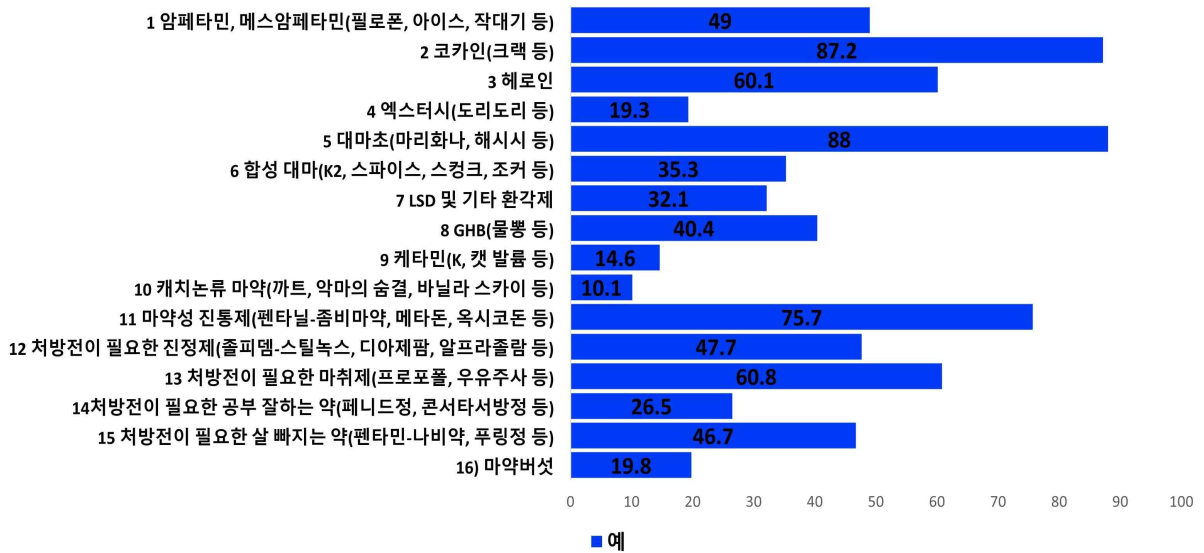


그림 3-16. 중독 물질 인지 여부(청소년)

4)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

- E7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주변의 약물 사용 목격 경험의 경우, 살 빼는 약의 사용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1명(15.6%), 공부 잘하는 약이 247명(12.4%), 대마가 111명(5.6%),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가 113명(5.7%), 술집 및 유흥업소 등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이 151명(7.6%),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104명(5.2%)이었음.

표 3-53.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청소년)

(‘있다’라고 응답한 기준)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살 빼는 약	311	15.6	153	15.3	158	15.8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247	12.4	136	13.6	111	11.1
3) 마리화나, 해시시와 같은 대마	111	5.6	86	8.6	25	2.5
4)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113	5.7	87	8.7	26	2.6
5)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51	7.6	100	10	51	5.1
6)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104	5.2	75	7.5	29	2.9
7) 한 가지 이상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	443	22.2	241	24.1	202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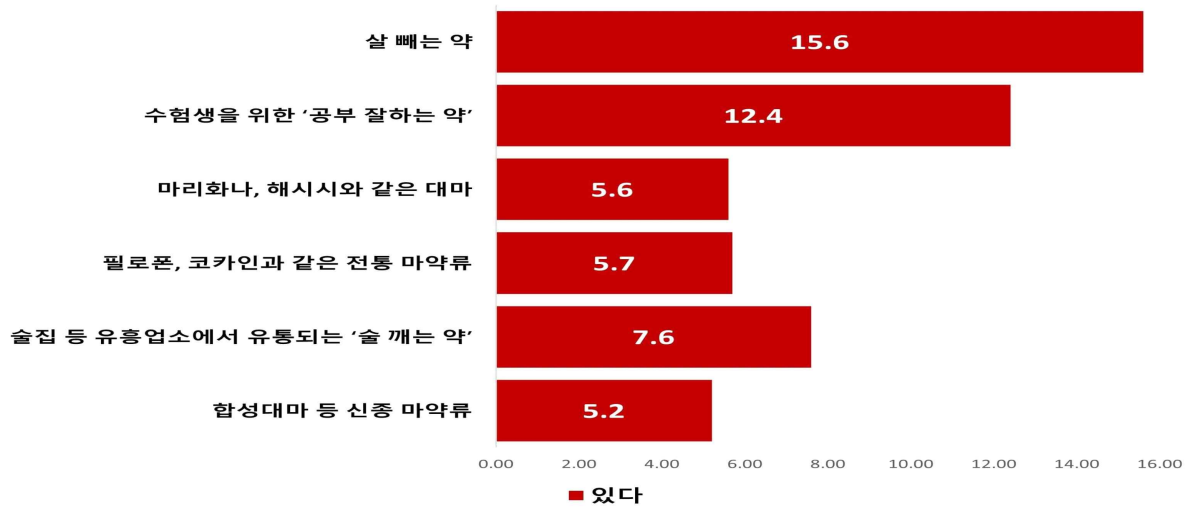


그림 3-17. 확인되지 않은 약물 주변 사용 목격 경험(청소년)

5)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

- E8 청소년의 74.2%가 주변에서 흡연을 하고 78.4%가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청소년의 5.3%가 주변인이 대마초를 피운다고 응답하였음.
- 청소년의 11.8%는 주변인이 향정신성의약품, 4.9%가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음.

표 3-54.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담배를 피운다	한 명도 없음	286	14.3	128	12.8	158	15.8
	몇 명 있음	1021	51.1	450	45	571	57.1
	꽤 많음	392	19.6	219	21.9	173	17.3
	거의 모두 다	70	3.5	50	5	20	2
	모름	231	11.6	153	15.3	78	7.8
2) 술을 마신다	한 명도 없음	212	10.6	111	11.1	101	10.1
	몇 명 있음	883	44.2	409	40.9	474	47.4
	꽤 많음	544	27.2	262	26.2	282	28.2
	거의 모두 다	140	7	66	6.6	74	7.4
	모름	221	11.1	152	15.2	69	6.9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3) 술에 취한다	한 명도 없음	357	17.9	183	18.3	174	17.4
	몇 명 있음	825	41.3	362	36.2	463	46.3
	꽤 많음	388	19.4	194	19.4	194	19.4
	거의 모두 다	103	5.2	56	5.6	47	4.7
	모름	327	16.4	205	20.5	122	12.2
4) 대마초를 피운다	한 명도 없음	1554	77.7	707	70.7	847	84.7
	몇 명 있음	46	2.3	28	2.8	18	1.8
	꽤 많음	40	2	29	2.9	11	1.1
	거의 모두 다	20	1	16	1.6	4	0.4
	모름	340	17	220	22	120	12
5)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한 명도 없음	1375	68.8	635	63.5	740	74
	몇 명 있음	171	8.6	77	7.7	94	9.4
	꽤 많음	45	2.3	29	2.9	16	1.6
	거의 모두 다	19	1	15	1.5	4	0.4
	모름	390	19.5	244	24.4	146	14.6
6)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한 명도 없음	1556	77.8	704	70.4	852	85.2
	몇 명 있음	43	2.2	29	2.9	14	1.4
	꽤 많음	34	1.7	26	2.6	8	0.8
	거의 모두 다	21	1.1	17	1.7	4	0.4
	모름	346	17.3	224	22.4	122	12.2
7) 대마, 향정, 마약을 사용하는 주변인이 있는 경우	1명 이상	273	13.7	144	14.4	129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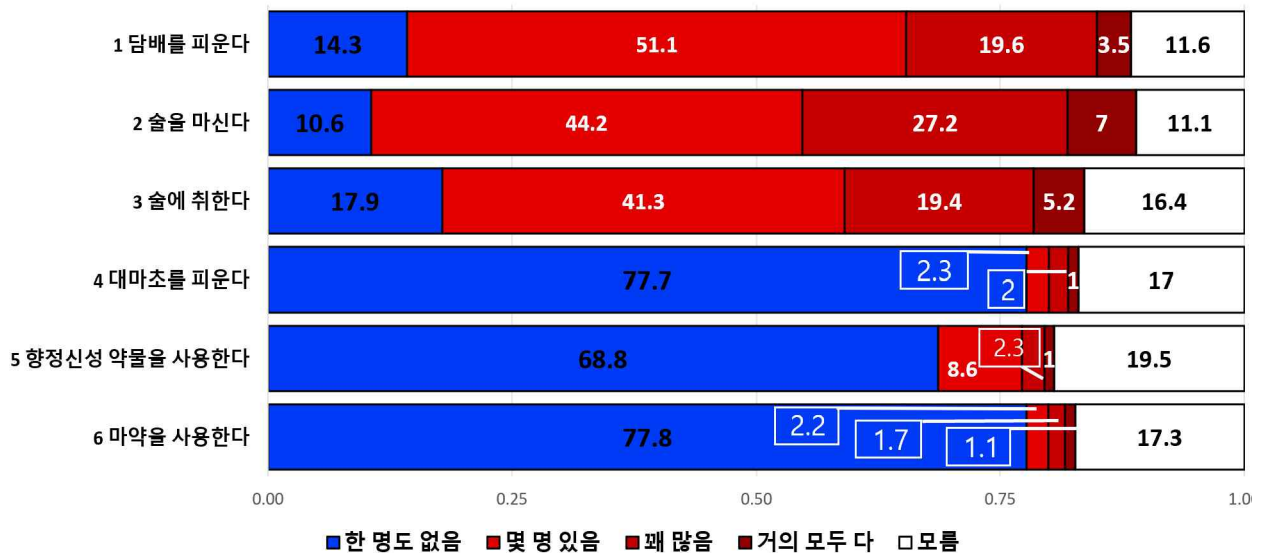


그림 3-18.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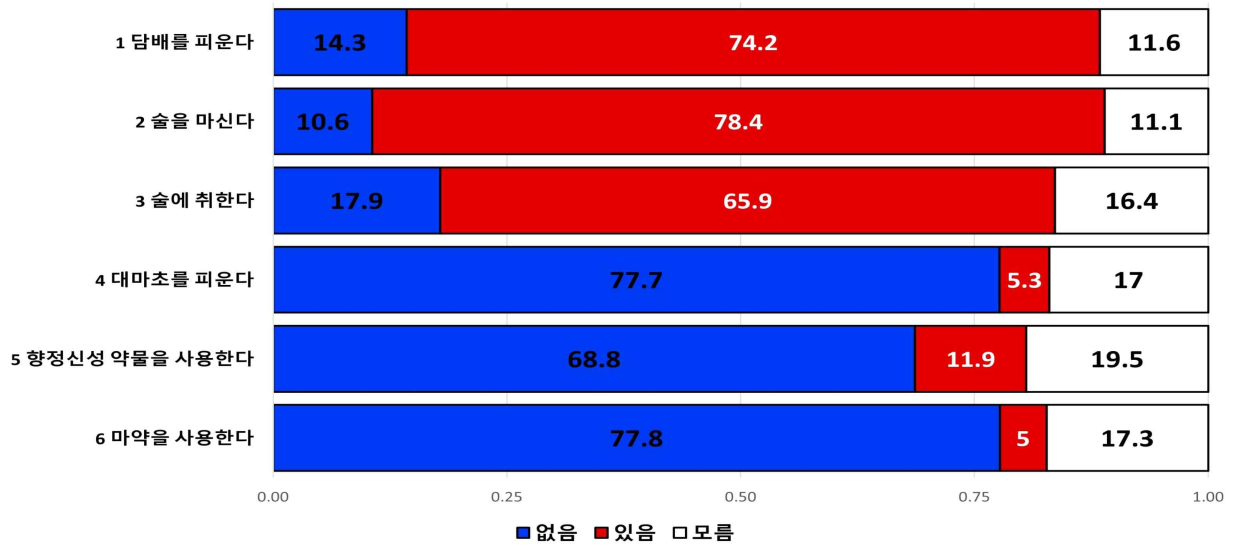


그림 3-19.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없음/있음/모름)

6)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

- E9(1) 마약류 물질의 본인 사용 여부를 물었을 때 살 빼는 약 사용 경험자는 113명(5.7%)으로 남자 청소년 62명(6.2%), 여자 청소년 51(5.1%)명이었음.
- E9(2) ‘공부 잘하는 약’ 사용 경험자는 69명(3.5%)으로 남자 청소년 46명(4.6%), 여자 청소년 23명(2.3%)이었음.
- E9(3) 마리화나, 해시시와 같은 대마 사용 경험자는 34명(1.7%)으로 남자 청소년 30명(3.0%), 여자 청소년 4명(0.4%)이었음.
- E9(4)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사용 경험자는 40명(2.0%)으로 남자 청소년 34명(3.4%), 여자 청소년 6명(0.6%)이었음.
- E9(5) 술집 및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사용 경험자는 46명(2.3%)으로 남자 청소년 38명(3.8%), 여자 청소년 8명(0.8%)이었음.
- E9(6)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사용 경험자는 46명(2.3%)으로 남자 청소년 39명(3.9%), 여자 청소년 7명(0.7%)이었음.

표 3-55.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살 빼는 약	113	5.7	62	6.2	51	5.1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69	3.5	46	4.6	23	2.3
3) 마리화나, 해시시와 같은 대마	34	1.7	30	3	4	0.4
4)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40	2	34	3.4	6	0.6
5)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46	2.3	38	3.8	8	0.8
6)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46	2.3	39	3.9	7	0.7
7) 한 가지 이상 약물 사용 경험	154	7.7	90	9.0	6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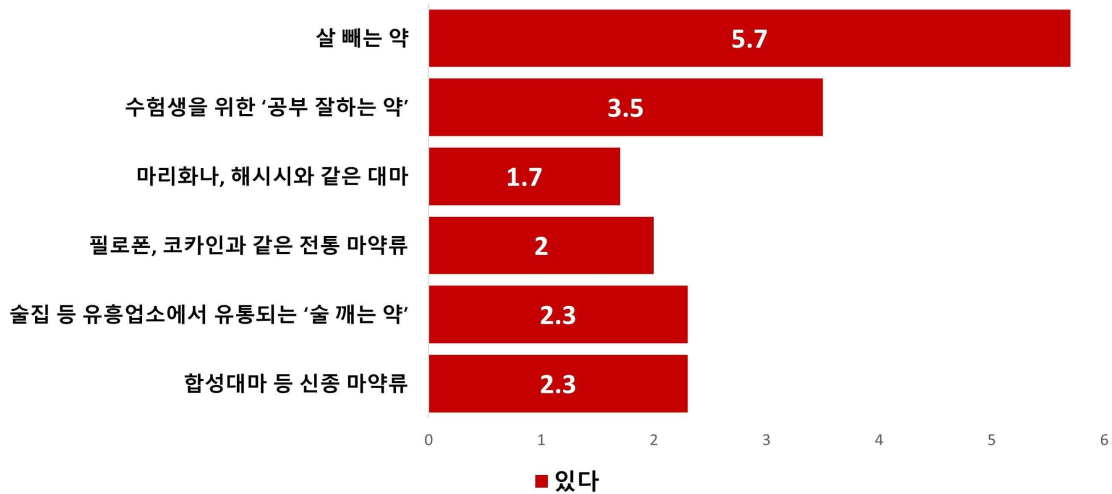


그림 3-20.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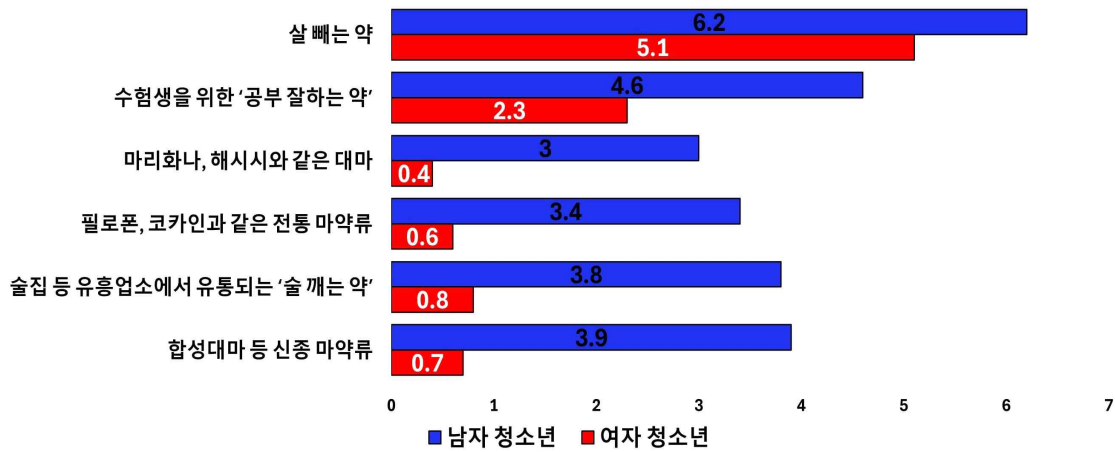


그림 3-21.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 경험(청소년, 성별)

7) 마약류 물질 사용 여부

- E10 각종 마약류 물질의 본인 사용 여부를 물었을 때,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명(1.7%)으로, 남자 청소년이 18명(1.8%) 여자 청소년이 16명(1.6%)으로 나타남.

표 3-56.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여부(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34	1.7	18	1.8	16	1.6
	없다	1966	98.3	982	98.2	984	98.4

- (의사의 처방 없는)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마약성 진통제, 진정제, 마취제 등
- 대마초, 해시시 등 대마
- 헤로인, 필로폰, 암페타민, 코카인, 크랙, 대마초, 메타돈, 케타민, 엑스터시, GHB, LSD, 마약버섯 등의 마약류

-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과 관련된 문항들 중 E9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거나, E5에 해당하는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이 있거나, E10에 해당하는 각종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합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205명(10.25%)이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살 빼는 약의 사용으로 인해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기록되었음.

표 3-57.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	사용하지 않음	1795	89.75	877	87.7	918	91.8
	사용함	205	10.25	123	12.3	82	8.2

8) 마약류 및 중독 물질 사용 동기

- E10-1(1) E10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4명을 대상으로 사용 동기를 모두 체크해달라고 질문하였음. 호기심 때문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20명(58.8%)으로 남자 청소년 13명(72.2%), 여자 청소년 7명(43.8%)이었으며, 남자 청소년 사이에서는 가장 많은 사용 동기였고, 여자 청소년에게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음.
- E10-1(2)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은 9명(26.5%)으로 남자 청소년 6명(33.3%), 여자 청소년 3명(18.8%)으로 나타남.
- E10-1(3) 주변인의 권유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12명(35.3%)으로 남자 청소년 7명(38.9%), 여자 청소년 5명(31.3%)이었음.
- E10-1(4)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다들 하고 있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12명(35.3%)으로 남자 청소년 7명(38.9%), 여자 청소년 5명(31.3%)으로 나타남.
- E10-1(5) 살을 빼기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은 24명(70.6%)으로 남자 청소년 9명(50.0%), 여자 청소년 15명(93.8%)으로 나타남. 남자 청소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동기였으며, 여자 청소년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었음.
- E10-1(6) 각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14명(41.2%)으로 남자 청소년 8명(44.4%), 여자 청소년 6명(37.5%)으로 나타남.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였음.
- E10-1(7) 집중력을 높이고 싶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15명(44.1%)으로 남자 청소년 10명(55.6%), 여자 청소년 5명(31.3%)으로 나타남.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였음.
- E10-1(8)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12명(35.3%)으로 남자 청소년 6명(33.3%), 여자 청소년 6명(37.5%)으로 나타남. 여자 청소년 사이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원인이었음.
- E10-1(9) 다른 약물의 효과를 늘리려고 사용했다는 응답은 6명(17.6%)으로 남자 청소년 5명(27.8%), 여자 청소년 1명(6.3%)으로 나타남.
- E10-1(10)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8명(23.5%)으로 남자 청소년 5명(27.8%), 여자 청소년 3명(18.8%)으로 나타남.
- E10-1(11) 중독되어 끊기 어려워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6명(17.6%)으로 남자 청소년 6명(33.3%), 여자

청소년 0명(0%)으로 나타남.

- E10-1(12) 기타 응답자는 총 3명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이 2명('사는 게 힘들어서'), 여자 청소년이 1명('죽으려고')이었음.

표 3-58.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사용 동기(청소년)

		전체 (N=34)		남자 청소년 (N=18)		여자 청소년 (N=16)	
		명	%	명	%	명	%
전체		34	100.0	18	100.0	16	100.0
1) 호기심 때문에	예	20	58.8	13	72.2	7	43.8
	아니오	14	41.2	5	27.8	9	56.3
2) 기분 좋아지려고	예	9	26.5	6	33.3	3	18.8
	아니오	25	73.5	12	66.7	13	81.3
3) 주변인의 권유로	예	12	35.3	7	38.9	5	31.3
	아니오	22	64.7	11	61.1	11	68.8
4)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다들 하고 있어서	예	9	26.5	5	27.8	4	25
	아니오	25	73.5	13	72.2	12	75
5) 살을 빼기 위해	예	24	70.6	9	50	15	93.8
	아니오	10	29.4	9	50	1	6.3
6) 각성하기(깨어있기) 위해서	예	14	41.2	8	44.4	6	37.5
	아니오	20	58.8	10	55.6	10	62.5
7) 집중력을 높이고 싶어서	예	15	44.1	10	55.6	5	31.3
	아니오	19	55.9	8	44.4	11	68.8
8)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예	12	35.3	6	33.3	6	37.5
	아니오	22	64.7	12	66.7	10	62.5
9) 다른 약물의 효과를 늘리려고	예	6	17.6	5	27.8	1	6.3
	아니오	28	82.4	13	72.2	15	93.8
10)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예	8	23.5	5	27.8	3	18.8
	아니오	26	76.5	13	72.2	13	81.3
11) 중독되어 끊기 어려워서	예	6	17.6	6	33.3	0	0
	아니오	28	82.4	12	66.7	16	100
12)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이유에서	예	3	8.8	2	11.1	1	6.3
	아니오	31	91.2	16	88.9	15	93.8

9) 마약류 및 중독 물질 획득 경로

- E10-2(1) 마약류 및 중독 물질 구매 경로를 모두 응답해달라고 하였을 때,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짜로 얻었다는 응답이 9명(23.1%)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은 4명(19%) 여자 청소년 5명(27.8%)이었음.

- E10-2(2)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7명(17.9%)으로 남자 청소년은 2명(9.5%) 여자 청소년은 5명(27.8%)이었음.
- E10-2(3) 친구 혹은 친지들의 것을 몰래 가져왔다는 응답이 5명(12.8%)으로 남자 청소년은 4명(19%), 여자 청소년은 1명(5.6%)이었음.
- E10-2(4) 오프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15명(38.5%)으로 남자 청소년은 10명(47.6%), 여자 청소년이 5명(27.8%)이었음. 남자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빈번한 응답이었고, 여자 청소년 청소년 사이에서도 빈도가 높은 응답이었음.
- E10-2(5)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3명(7.7%)으로 남자 청소년은 1명(4.8%), 여자 청소년이 2명(11.1%)이었음.
- E10-3 마약류 및 중독물질 획득 난이도를 물었을 때 거의 불가능했다는 응답이 7명(20.6%), 많이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4명(11.8%), 보통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5명(14.7%),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13명(38.2%), 노력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5명(14.7%)이었음.

표 3-59.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획득 경로 및 난이도(청소년)

		전체 (N=34)		남자 청소년 (N=18)		여자 청소년 (N=16)	
		명	%	명	%	명	%
전체		34	100.0	18	100.0	16	100.0
마약류 및 중독 물질 구매 경로 [모두 선택]	1)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짜로 얻음	9	23.1	4	19	5	27.8
	2)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7	17.9	2	9.5	5	27.8
	3) 친구 혹은 친지들의 것을 몰래 가져옴	5	12.8	4	19	1	5.6
	4) 오프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15	38.5	10	47.6	5	27.8
	5) 온라인(텔레그램 등)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3	7.7	1	4.8	2	11.1
	6)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0	0	0	0	0	0
마약류 및 중독 물질 획득 난이도	1) 거의 불가능했다	7	20.6	3	16.7	4	25
	2) 많이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	4	11.8	3	16.7	1	6.3
	3) 보통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었다	5	14.7	3	16.7	2	12.5
	4)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	13	38.2	8	44.4	5	31.3
	5) 노력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5	14.7	1	5.6	4	25

6.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

1)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

- G1 식약처의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 수립·사업 추진 인지 여부는 18.3%,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도는 19.6%, 홈페이지나 SNS 등의 캠페인 인지도는 16.2%로 낮은 편이었음. 그러나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25.6%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추론됨.

표 3-60.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 수립·사업 추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66	18.3	205	20.5	161	16.1
	모른다	1634	81.7	795	79.5	839	83.9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91	19.6	223	22.3	168	16.8
	모른다	1609	80.5	777	77.7	832	83.2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인지]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예	323	16.2	167	16.7	156	15.6
	아니오	1018	50.9	472	47.2	546	54.6
	모르겠다	659	33	361	36.1	298	29.8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인지] 2)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예	552	27.6	248	24.8	304	30.4
	아니오	856	42.8	422	42.2	434	43.4
	모르겠다	592	29.6	330	33	262	26.2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인지]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예	412	20.6	188	18.8	224	22.4
	아니오	997	49.9	474	47.4	523	52.3
	모르겠다	591	29.6	338	33.8	253	25.3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인지] 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예	512	25.6	230	23	282	28.2
	아니오	891	44.5	437	43.7	454	45.4
	모르겠다	597	29.8	333	33.3	264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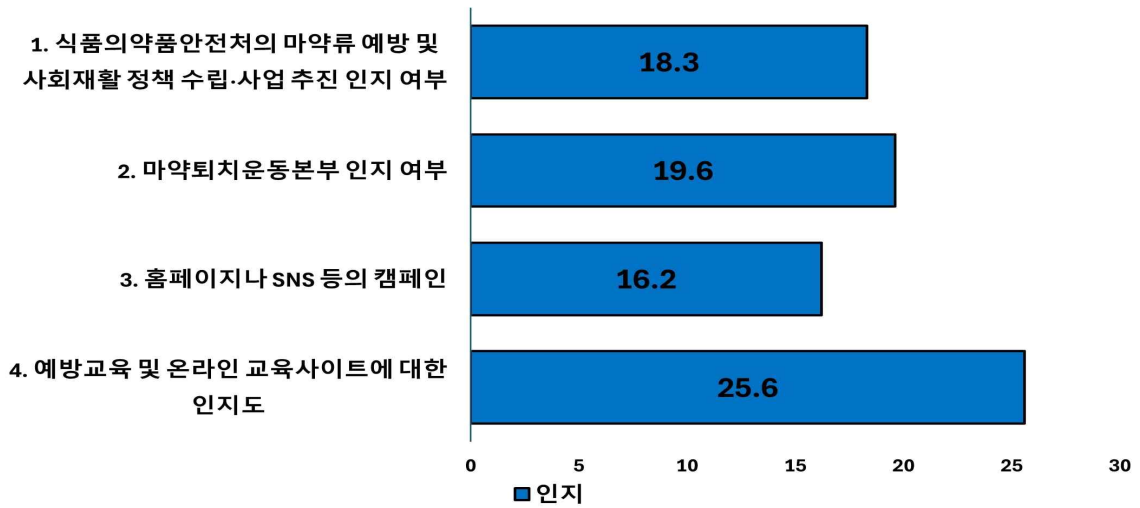


그림 3-22.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청소년)

2) 한걸음센터 활동 인지도

- F4 ^{함께}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53명(11.8%)으로, 남자 청소년 137명(13.7%), 여자 청소년 98명(9.8%)이 긍정 응답함.
- F5 ^{용기}한걸음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00명(20.0%)으로 남자 청소년 207명(20.7%), 여자 청소년 193명(19.3%)이 긍정 응답함.
- F6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상담 등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묻은 결과, 도덕성이 부족하여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01명(5.1%),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437명(21.9%), 마약류 사용은 본인 책임이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885명(44.3%), 사회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577명(28.8%)이었음.
- F7(1)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의향을 물었을 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은 1,367명(68.4%)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은 622명(62.2%) 여자 청소년은 745명(74.5%)이 긍정 응답함.
- F7(2) 친구나 직장 동료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은 1,018명(50.9%)으로 남자 청소년이 466명(46.6%). 여자 청소년은 552명(55.2%)이 긍정 응답함.
- F7(3) 결혼 상대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278명(13.9%)으로 남자 청소년이 171명(17.1%), 여자 청소년은 107명(10.7%)이 긍정 응답함.

표 3-61.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청소년)

		전체 (N=2,000)		남자 청소년 (N=1,000)		여자 청소년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함께한걸음센터 인지 여부	알고 있다	235	11.8	137	13.7	98	9.8
	모른다	1765	88.3	863	86.3	902	90.2
5. 용기한걸음센터 인지 여부	알고 있다	400	20	207	20.7	193	19.3
	모른다	1600	80	793	79.3	807	80.7
6.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상담 등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성이 부족하여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1	5.1	85	8.5	16	1.6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	437	21.9	225	22.5	212	21.2
	마약류 사용은 본인 책임이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재활을 도와야 한다.	885	44.3	384	38.4	501	50.1
	사회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77	28.8	306	30.6	271	27.1
[7.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의향] 1)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그렇다	1367	68.4	622	62.2	745	74.5
	아니다	633	31.7	378	37.8	255	25.5
[7.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의향] 2) 친구나 직장 동료로 지낼 수 있다	그렇다	1018	50.9	466	46.6	552	55.2
	아니다	982	49.1	534	53.4	448	44.8
[7.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의향] 3) 결혼 상대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	278	13.9	171	17.1	107	10.7
	아니다	1722	86.1	829	82.9	893	89.3

라. 마약류 이용 및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영향 요인

-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자(E5의 흡입제 사용 경험, E9의 6개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중 1개 이상 경험, E10의 구체적 마약류 사용 경험)는 전체 응답자의 10.25%(남자 청소년 12.3%, 여자 청소년 8.2%)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주관적인 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마약류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덜 할수록, 마약류에 대한 노출가능성(민감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낮은 경우, 중독에 대한 개인적 낙인이 높을수록,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 사용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62.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변수명	B	S.E.	P-value	Odds Ratio	LLCI (95%)	ULCI (95%)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17	.18	.332	1.19	.84	1.67
	연령	.07	.07	.278	1.08	.94	1.23
	부의 교육수준	-.10	.06	.089	.90	.80	1.02
	주관적 경제적 지위	-.20	.09	.026	.82	.69	.98
	해외거주경험	1.08	.24	.000	2.95	1.86	4.67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1	.02	.604	.99	.96	1.03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10	.16	.515	1.11	.81	1.52
	대처동기	.09	.13	.514	1.09	.84	1.42
	사회동기	.14	.15	.336	1.15	.86	1.53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05	.15	.722	1.06	.78	1.42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20	.08	.017	.82	.70	.97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33	.10	.001	1.39	1.15	1.69
	심각성	-.03	.09	.740	.97	.81	1.16
	예방장애요인	-.12	.13	.336	.89	.69	1.13
	예방유익성	-.09	.12	.451	.91	.72	1.16
	예방실천도	-.08	.12	.519	.93	.73	1.17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58	.12	.000	.56	.44	.71
	개인적 낙인	.22	.10	.028	1.25	1.02	1.53
	사회적 낙인	.13	.11	.226	1.14	.92	1.42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04	.10	.667	1.04	.86	1.26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28	.06	.000	1.33	1.17	1.50
상수항		-1.63	1.44	.260	.20		
Nagelkerke R ²		0.24					
-2log likelihood		1075.49					

2.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자(E9의 6개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중 1개 이상 경험)는 전체 응답자의 7.7%(남자 청소년 9.0%, 여자 청소년 6.4%)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주관적인 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노출가능성(민감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낮은 경우,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 사용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63.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변수명	B	S.E.	P-value	Odds Ratio	LLCI (95%)	ULCI (95%)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21	.20	.278	1.24	.84	1.82
	연령	.06	.07	.429	1.06	.92	1.23
	부의 교육수준	-.10	.07	.120	.90	.79	1.03
	주관적 경제적 지위	-.19	.10	.048	.82	.68	1.00
	해외거주경험	.84	.26	.001	2.31	1.39	3.83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2	.02	.439	.98	.95	1.02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08	.18	.671	1.08	.76	1.52
	대처동기	.20	.15	.163	1.23	.92	1.63
	사회동기	.18	.16	.258	1.20	.87	1.66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11	.17	.530	.90	.65	1.25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14	.09	.142	.87	.73	1.05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36	.11	.001	1.43	1.15	1.78
	심각성	-.08	.10	.420	.92	.75	1.13
	예방장애요인	-.03	.14	.821	.97	.74	1.27
	예방유익성	-.14	.13	.289	.87	.67	1.13
	예방실천도	.03	.13	.846	1.03	.80	1.32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52	.13	.000	.59	.46	.77
	개인적 낙인	.09	.11	.408	1.10	.88	1.37
	사회적 낙인	.24	.13	.053	1.28	1.00	1.63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08	.11	.437	.92	.74	1.14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29	.07	.000	1.34	1.17	1.53
상수항		-2.10	1.61	.191	.12		
Nagelkerke R ²		0.20					
-2log likelihood		914.26					

3.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 보다 구체적인 마약류 물질 사용자(E10의 마약류 물질 중 1개 이상 사용 경험)는 전체 응답자의 1.7%(남자 청소년 1.8%, 여자 청소년 1.6%)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64. (구체적) 마약류 물질 사용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변수명	B	S.E.	P-value	Odds Ratio	LLCI (95%)	ULCI (95%)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64	.42	.131	1.89	.83	4.33
	연령	-.07	.15	.645	.93	.70	1.25
	부의 교육수준	-.03	.14	.814	.97	.73	1.28
	주관적 경제적 지위	-.35	.19	.073	.71	.48	1.03
	해외거주경험	1.73	.45	.000	5.64	2.32	13.70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3	.05	.560	1.03	.94	1.13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37	.33	.255	1.45	.77	2.74
	대처동기	-.11	.29	.709	.90	.50	1.59
	사회동기	.13	.28	.653	1.13	.66	1.96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48	.30	.115	1.61	.89	2.92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03	.23	.893	1.03	.66	1.61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17	.21	.418	1.18	.79	1.79
	심각성	.38	.26	.140	1.46	.88	2.41
	예방장애요인	-.27	.28	.322	.76	.44	1.31
	예방유익성	-.41	.24	.089	.66	.41	1.07
	예방실천도	.02	.27	.930	1.02	.60	1.75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48	.28	.090	.62	.36	1.08
	개인적 낙인	.16	.22	.476	1.17	.76	1.80
	사회적 낙인	.30	.25	.235	1.35	.82	2.20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15	.23	.521	.86	.55	1.36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25	.14	.071	1.28	.98	1.68
상수항		-4.72	3.32	.155	.01		
Nagelkerke R ²		0.23					
-2log likelihood		269.82					

4.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적 영향 요인

-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적(E7의 6개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주변 사용 목적 중 1개 이상 경험)는 전체 응답자의 22.2%(남자 청소년 24.1%, 여자 청소년 20.2%)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노출가능성(민감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마약류에 예방 장애요인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낮은 경우, 중독자에 대한 개인적 낙인이 높다고 인지한 경우,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경우 목적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65. 주변의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물질 사용 목적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변수명	B	S.E.	P-value	Odds Ratio	LLCI (95%)	ULCI (95%)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00	.12	.983	0.98	.79	1.27
	연령	.08	.05	.090	1.08	.99	1.19
	부의 교육수준	.03	.04	.532	1.03	.94	1.12
	주관적 경제적 지위	-.04	.06	.583	0.97	.85	1.10
	해외거주경험	.62	.20	.002	1.87	1.27	2.75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0	.01	.722	1.01	.98	1.03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02	.11	.891	0.99	.79	1.22
	대처동기	.09	.09	.308	1.09	.92	1.30
	사회동기	.10	.10	.326	1.11	.90	1.36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02	.10	.855	0.98	.81	1.20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03	.06	.635	0.97	.87	1.09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23	.07	.001	1.26	1.10	1.45
	심각성	-.01	.06	.884	0.99	.88	1.11
	예방장애요인	.21	.08	.013	1.23	1.04	1.44
	예방유익성	-.08	.08	.300	0.92	.79	1.08
	예방실천도	-.14	.08	.091	0.87	.74	1.02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32	.09	.000	0.73	.61	.86
	개인적 낙인	.23	.06	.000	1.26	1.11	1.43
	사회적 낙인	.03	.07	.697	1.03	.90	1.17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05	.07	.440	0.95	.83	1.08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28	.05	.000	1.33	1.21	1.45
상수항		-2.80	.88	.001	0.06		
Nagelkerke R ²		0.128					
-2log likelihood		1941.319					

5.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 영향 요인

-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E8의 주변의 대마, 향정신성 약물, 마약 3개 중 1개 이상의 물질 사용자가 1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3.7%(남자 청소년 14.4%, 여자 청소년 12.9%)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연령이 높은 경우,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노출가능성(민감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예방 장애 요인이 많다고 인지하는 경우,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이 낮은 경우,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경우 주변에 마약류 사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66. 주변의 마약류 물질 사용자 유무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변수명	B	S.E.	P-value	Odds Ratio	LLCI (95%)	ULCI (95%)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08	.15	.573	0.57	.81	1.45
	연령	.15	.06	.009	1.16	1.04	1.30
	부의 교육수준	.10	.05	.077	1.10	.99	1.22
	주관적 경제적 지위	-.14	.08	.074	0.87	.75	1.01
	해외거주경험	.83	.22	.000	2.29	1.49	3.51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2	.02	.198	1.02	.99	1.05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17	.13	.203	0.85	.65	1.09
	대처동기	.15	.10	.143	1.16	.95	1.43
	사회동기	.05	.12	.709	1.05	.82	1.33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20	.12	.087	1.23	.97	1.55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02	.07	.763	0.98	.85	1.12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30	.08	.000	1.35	1.15	1.59
	심각성	-.09	.07	.221	0.91	.79	1.06
	예방장애요인	.24	.10	.018	1.27	1.04	1.55
	예방유익성	.12	.10	.241	1.13	.92	1.37
	예방실천도	-.17	.10	.110	0.85	.69	1.04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47	.10	.000	0.63	.51	.77
	개인적 낙인	.10	.08	.209	1.10	.95	1.28
	사회적 낙인	.08	.09	.370	1.08	.91	1.28
성격적 특성	자기 과신	-.07	.08	.387	0.93	.79	1.10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마약류 정책 인지	.21	.05	.000	1.23	1.10	1.37
상수항		-4.67	1.08	.000	0.01		
Nagelkerke R ²		0.148					
-2log likelihood		1424.093					

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영향 요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F1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는 응답자의 18.3%(남자 청소년 20.5%, 여자 청소년 16.1%)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남자 청소년일 경우, 해외거주 경험이 있을수록, 마약류 관련 지식이 많은 경우, 예방장애요인을 낮게 느끼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개인적 낙인을 인식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캠페인 등으로 각종 홍보를 접한 경우,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6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변수명	B	S.E.	P-value	Odds Ratio	LLCI (95%)	ULCI (95%)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34	.13	.010	0.01	.55	.92
	연령	.00	.05	.960	1.00	.90	1.10
	부의 교육수준	-.01	.05	.772	0.99	.90	1.08
	주관적 경제적 지위	.10	.07	.184	1.10	.96	1.27
	해외거주경험	.47	.23	.040	1.60	1.02	2.51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5	.02	.001	1.05	1.02	1.08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07	.08	.381	1.07	.92	1.24
	심각성	.03	.06	.661	1.03	.92	1.15
	예방장애요인	-.17	.08	.044	0.84	.72	1.00
	예방유익성	.03	.08	.735	1.03	.87	1.21
	예방실천도	.08	.09	.338	1.09	.92	1.29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04	.10	.688	0.96	.79	1.17
	개인적 낙인	.15	.06	.015	1.17	1.03	1.32
	사회적 낙인	.04	.07	.549	1.04	.91	1.20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인터넷, 캠페인 등 각종 홍보 인지	1.16	.16	.000	3.18	2.34	4.31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인지	.78	.14	.000	2.18	1.65	2.89
	마약류 상담 인지	.16	.16	.321	1.17	.86	1.59
	예방교육 인지	.26	.15	.092	1.30	.96	1.75
상수항		-3.14	.97	.001	0.04		
Nagelkerke R ²					0.180		
-2log likelihood					1669.799		

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 영향 요인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존재를 인지하는 경우(F2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는 응답자의 19.6% (남자 청소년 22.3%, 여자 청소년 16.8%)였음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남자 청소년일 경우, 마약류 관련 지식이 많은 경우, 마약류에 대한 개인적 낙인이 강할수록,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할수록, 인터넷이나 캠페인 등으로 각종 홍보를 접한 경우,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

표 3-6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 영향 요인 분석 결과(청소년)

	변수명	B	S.E.	P-value	Odds Ratio	LLCI (95%)	ULCI (95%)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여성)	-.41	.13	.002	0.00	.51	.86
	연령	.03	.05	.505	1.04	.94	1.14
	부의 교육수준	-.02	.05	.645	0.98	.89	1.08
	주관적 경제적 지위	.08	.07	.286	1.08	.94	1.25
	해외거주경험	.33	.24	.161	1.39	.88	2.21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04	.02	.004	1.05	1.01	1.08
예방행동 관련 신념	노출가능성	.09	.08	.269	1.09	.94	1.27
	심각성	-.03	.06	.555	0.97	.86	1.08
	예방장애요인	-.15	.09	.086	0.86	.73	1.02
	예방유익성	.04	.09	.669	1.04	.88	1.23
	예방실천도	.08	.09	.358	1.08	.91	1.29
마약류 관련 낙인	중독 낙인	-.06	.10	.531	0.94	.77	1.14
	개인적 낙인	.13	.06	.046	1.14	1.00	1.29
	사회적 낙인	.17	.07	.019	1.19	1.03	1.37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	인터넷, 캠페인 등 각종 홍보 인지	1.43	.15	.000	4.16	3.07	5.64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인지	1.03	.14	.000	2.81	2.13	3.70
	마약류 상담 인지	.05	.16	.751	1.05	.77	1.44
	예방교육 인지	.23	.15	.127	1.26	.94	1.71
상수항		-3.67	.97	.000	0.03		
Nagelkerke R ²					0.238		
-2log likelihood					1653.295		

3절. 시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가. 요약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설문지를 발송한 50개소 중 총 19개 기관에서 응답하였음. 총합 약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일반적인 청소년 및 지역사회 대상의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일반적인 예방 사업의 경우 마약류가 주제인 곳도 있었으나, 약물이 키워드인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음.
- 마약류 사용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도봉, 사상구, 달서구, 계양구, 유성구,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중독 당사자 개별 상담, 가족 상담, 구치소 마약 수형자 대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음.
-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춘천지방법원 보호관찰소에서 위탁한 마약사범에 대한 단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음.
- 사업투입인원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주력 영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다수의 기관이 마약류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약류 관련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함.

2. 치료보호기관의 경우 설문지를 발송한 18개소 중 총 6개 기관에서 응답하였음. 조사에 참여한 병원(부산시립정신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은 모두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음.

- 마약류와 관련하여 사용 중인 병상 수는 최대 10개, 최소 0개였음. 6개소 중 4개소는 병상 수가 부족하지 않고, 최근 마약류 입원 실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마약류와 관련하여 사용 중인 병상이 0개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자원 부족으로 병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립나주병원은 기관 사정으로 중독 병동을 미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확보 등 여건 마련 시 운영 계획이 있었음.
- 대부분 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이 마약류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었으며, 전문의가 있는 경우가 6개소 중 4개소였음(부산시립정신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 치료보호기관의 경우 담당 부서 확인까지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직접적인 응답거부가 많아 마약류 환자 관련 병상 운영이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함.

3. 교육기관의 경우 가톨릭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복지상담학과 등 4개 학부 과정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중독재활상담학과 등 11개 대학원 과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 법무부 관련 기관의 경우 국립법무병원에서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를 진행하고 병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는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정식 명칭)”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5. 자조모임의 경우 21개의 NA 모임이 전국적으로 운영중이며 매주 1회 혹은 매달 1회 정규 모임을 진행하고 있음.
6. 주거제공시설 등 민간기관의 경우 김해다르크(리본하우스)만이 주거제공을 하고 있고,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마약류 중독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김해다르크 이외의 다르크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카프향나무집은 2023년 상반기 이후 마약 중독 입소자는 받지 않고 있음. 기독교 마약 중독연구소가 입소형 재활센터 건립을 희망하고 있음.

나. 기관조사 결과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료보호기관

1) 조사의 특성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음(자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 3 참고). 총 53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응답 기한을 일주일로 두었음.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은 총 26개 중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화 종료 후 이메일 발송을 바로 진행하였으며, 응답 기한은 6일로 진행하였음.
- 응답이 없을 경우,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에 두 차례 이상 전화하였음. 설문 참여에 거부 의사를 보이는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인 경우에는 마약류 관련 치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답변을 유도하였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총 53곳 중 총 발송 건수 50건, 그 중 응답 완료 19건, 무응답은 31건, 이메일 주소 오류로 인한 미발송 3건임.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은 총 26곳 중 18곳에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응답 완료 6건, 응답 거부 4건, 무응답 16건임. 응답 거부 4건, 전화 미회신 4건으로 총 18곳에 설문지 발송하였음.

표 3-6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실태조사 응답 건수

	총 발송 건수	응답 완료 건수	거부/무응답 건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3개)	50개	19개	무응답: 31개
지역별 치료보호기관(26개)	18개	6개	거부: 4개/ 무응답: 16개

-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의 경우, 이메일 주소가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26개 기관 모두 직접

전화로 설문 목적을 설명한 후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 응답을 받았음. 설문조사 거부 기준은 대상 기관에서 설문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설문 참여하지 않는다고 직접 의사를 밝힘. 조사를 거부한 곳은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울산) 마더스병원, (경북) 포항의료원, (제주) 연강병원임.

-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대표번호로 통화하여, 전문상담원에게 설문 목적을 설명하였으나 진료과로 전화 연결을 거부하였으며, 공문 형식 외 설문 진행은 하지 않는다고 의사 밝힘. 통화 종료 전 마약류 치료는 진행 중이나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마더스병원은 설문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병원 이메일 주소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통화 종료 전 치료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치료 진행 중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음. 포항의료원은 최근 6년 동안 치료하지 않았으며 마약류 관련 환자가 없었으며, 향후 마약류 관련 환자를 받지 않을 것임을 전하였음. 연강병원은 최근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도 마약류 치료를 하지 않고 있음을 전하였음.
- 조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담당부서까지 두 차례 이상 전화를 연결해서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 전달까지의 시간 소요가 길었으며, 설문 전달이 완료된 이후에도 응답 참여율이 낮았음.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조사 결과

- 센터별 응답 원본은 부록 4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 절에서는 요약표만 제시함.
- 전국 53개의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응답한 19개의 설립 연도는 2008년이 3건으로 가장 많았음. 2000년부터 설립이 시작되었고 2023년까지 매년 1~2개소가 꾸준히 설립된 것으로 조사됨.

표 3-70.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연도

설립연도	빈도
2000년	1
2001년	2
2002년	2
2003년	2
2005년	2
2006년	1
2008년	3
2010년	1
2013년	1
2014년	1
2020년	1
2022년	1
2023년	1
계	19

- 19개 기관의 평균 직원 수는 7명이며, 직원 수를 정규직/기타 직원 구분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정규직 4명, 계약직 및 기타직원(무기계약직 포함) 2명임. 정규직/기타 직원 수 구분에 대한 무응답은 3개였음.

표 3-71.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고용 형태 구분

(단위: 명)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및 기타 (무기계약직 포함)	무응답
빈도	68	31	3
평균	4	2	-

- 직원 수를 상근/비상근으로 구분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상근직 5명, 비상근직 1명으로 나타남. 상근/비상근 직원 수 구분에 대한 무응답은 9개였음.

표 3-72.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근/비상근 구분

(단위: 명)

고용 형태	상근	비상근	무응답
빈도	47	9	9
평균	5	1	-

- 19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음. 기관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수는 18개이

며, 무응답 5개임. 그 중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9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3-73.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시행연도

(단위: 개)

구분	빈도
2003년	2
2010년	1
2014년	1
2015년	2
2022년	3
2023년	9
2024년	1
무응답	5
계	24

-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인원 구성은 응답표에 작성된 빈도 수를 모두 합한 값임.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74.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인원 구성

구분	빈도
1명	10
2명	3
4명	5
5명	1
6명	2
8명	2
무응답	3
계	26

-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 골키퍼’(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청소년 대상의 일반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일반적인 예방 캠페인도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마약 사용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회복일지’, ‘보호관찰소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구치소 마약 수형자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사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조기발견사업 중 전화 또는 내소 상담),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청년 중독사업 중 마약문제 당사자 개별 상담), 유성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약류 사범 기본 심리치료 프로그램-동기강화, 마약류 사용자 개별 상담),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춘천시방법원 보호관찰소에서 위탁한 마약사범에 대한 단약 상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마약류 사용자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청년중독사업 마약문제 가족대상 개발 상담)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 마약류 상담(전문)가 양성 관련 프로그램 등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청소년 실무자 교육),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약중독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사업)였음.

표 3-75. 19개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활동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회복프로그램: '중독회복일지', 2) 특별프로그램: '새롭게 바뀌는 중독에 대한 시선', '약물 사용 장애', 3) '보호관찰소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4) '구치소 마약 수형자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 모두 진행 중임.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예방사업'. 2개 프로그램 모두 진행 중임.
사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약물 중독예방 교육', 2) 유아동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 중독조기발견사업 중 전화 또는 내소 상담. 3개 프로그램 모두 진행 중임.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2) '중독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2개 프로그램 모두 진행 중임.
인천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초중고등학생 대상 '약물오남용 교육'. 1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청소년 골키퍼', 2) 아동청소년 4대중독예방교육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뇌로 성장하기". 2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NO 마약 건강한 일상을 위한 레인보우 챌린지', 2) 청년중독사업 '마약문제 관련 당사자 및 가족대상 개별 상담'. 2개 프로그램 모두 진행 중임.
광주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활동. 1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회복이음 아카데미'(마약류 중독 상담 역량강화교육), 2) 마약류 중독예방 캠페인 '마약 나뽀(Not four)! 예방 예뵤(Yes four)!', 3) 마약(약물류)중독예방 교육 사업. 3개 프로그램 모두 진행 중임.
유성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마약류 중독 교육사업, 2) 마약류 사범(기본) 심리치료 프로그램(동기강화 프로그램), 3) 마약류 사용자 개별상담. 3개 프로그램 모두 진행 중임.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청소년 보호자 대상 교육, 2) 청소년 실무자 교육, 3) 중독예방캠페인, 4) 중독예방사생대회('B급 중독예방사생대회'). 4개 프로그램 모두 진행 중임.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학교 순회 약물 예방교육. 1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홈페이지에 기재된 1) 마약 상담, 2) 마약재활사업은 안함.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마약 및 약물오남용 예방 영상공모전, 2) 중독예방교육. 2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홈페이지에 기재된 1) 중독세미나, 2) 마약예방교육. 2개 프로그램은 시행하지 않음.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마약중독예방 청년활동단 '마약방법대', 2)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 마약중독예방 메타버스 캠페인, 4) 마약중독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사업, 5) 춘천시방법원 보호관찰소에서 위탁한 '마약사범에 대한 단약 상담'. 5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예방교육(알코올중독예방교육이 메인 교육), 2) 상담, 3) 애디렌 사업*, 4) 마약중독예방 공모전. 4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예방사업, 2)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조성사업, 3) 중독관리사업. 3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기타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생애주기별 중독교육 사업').

	1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아동·청소년 예방교육사업, 2)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지원사업, 3)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4)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중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 없음. 그러나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 캠페인'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폐해예방교육 청소년 대상 '마약 중독예방교육'. 1개 프로그램 진행 중임.

*지역 내 대학을 중독예방선도대학 선정 후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내 편의점 및 카페를 중독검진업체로 선정 운영하는 사업

3) 치료보호기관 조사 결과

-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은 총 26개 중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화 종료 후 이메일 발송을 바로 진행하였으며, 응답 기한은 6일로 진행하였음.
- 응답이 없을 경우,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에 두 차례 이상 전화하였음. 설문 참여에 거부 의사를 보이는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인 경우에는 마약류 관련 치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답변을 유도하였음.
-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의 경우, 이메일 주소가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26개 기관 모두 직접 전화로 설문 목적을 설명한 후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 응답을 받았음. 설문조사 거부 기준은 대상 기관에서 설문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설문 참여하지 않는다고 직접 의사를 밝힘. 조사를 거부한 곳은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울산) 마더스병원, (경북) 포항의료원, (제주) 연강병원임.
-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대표번호로 통화하여, 전문상담원에게 설문 목적을 설명하였으나 진료과로 전화 연결을 거부하였으며, 공문 형식 외 설문 진행은 하지 않는다고 의사 밝힘. 통화 종료 전 마약류 치료는 진행 중이나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마더스병원은 설문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병원 이메일 주소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통화 종료 전 치료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치료 진행 중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음. 포항의료원은 최근 6년 동안 치료하지 않았으며 마약류 관련 환자가 없었으며, 향후 마약류 관련 환자를 받지 않을 것임을 전하였음. 연강병원은 최근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도 마약류 치료를 하지 않고 있음을 전하였음.
- 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6개의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은 모두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부산시립정신병원의 경우 낮병원, 병동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었음.
- 국립춘천병원은 정신 재활 프로그램,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국립공주병원과 원광대학교 병원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 국립나주병원은 마약류 중독전문 클리닉(외래 기반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음.
- 국립부곡병원은 치료 재활 프로그램, 치료보호 사업을 진행 중이었음.

표 3-76. 활동 중인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프로그램

구분	활동 중인 프로그램
부산시립정신병원	1) 낮병원 2) 병동 재활 프로그램 3)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2023년 11월)
국립춘천병원	1) 정신 재활 프로그램 2) 직업 재활 프로그램
국립공주병원	1) 재활치료 서비스 2)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2010년)
원광대학교병원	1) 권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홍보사업(2024년 3월) 2) 재활 프로그램(2024년 8월)
국립나주병원	1) 마약류 중독전문 클리닉: 연계 프로그램(외래기반 1:1 맞춤형 프로그램)(2023년 11월)
국립부곡병원	1) 치료 재활 프로그램 2) 치료보호 사업(1997년)

- 병상 수는 6곳 중 4곳은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4곳 중 2곳의 경우, 최근 실적이 없었거나 현재 입원 중인 환자가 없음.
- 그러나 병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치료보호기관도 있었음. 국립춘천병원은 현재 0개 병상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자원 부족으로 병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립나주병원은 기관 사정으로 중독 병동을 미운영 상태이며, 인력 확보 등 여건 마련 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음.

표 3-77.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병상 수 현황

구분	병상 수
부산시립정신병원	8개, 현재 입원 환자 없음. 병상수 충분한 편, 부족한 적 없었음. 사용된 병상 수도 큰 변화 없음.
국립춘천병원	0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자원 부족으로 병상 운영 어려움.
국립공주병원	2개, 현재 입원 환자 없음. 과거 5년간 입원 치료 실적 0건으로 병상 수 부족하지 않았음. 현재 외래진료 위주로 치료 중임. 지정 병상 2개도 마약류 중독자 전용 아님.
원광대학교병원	10개 이용 가능함.
국립나주병원	기관 사정으로 중독병동 운영하고 있지 않음. 추후 인력확보 등 여건 마련될 시 병동 운영 계획임.
국립부곡병원	10개 내외 사용, 사용 병상 수 비슷함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음.

- 6곳 중 5곳이 사업 투입 인력 구성에 대한 답변을 하였음. 모두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 이들은 전문의 외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참여 인원의 고용 형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부산시립정신병원의 경우, 총 2명의 정규직 인원이 투입되고 있음. 국립공주병원은 모두 정규직이며, 25명이 투입됨. 원광대학교 병원은 투입 인원 중

사회복지사 1명이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었음. 국립나주병원에는 총 3명의 정규직 인원이 투입되고 있음. 국립부곡병원은 정규직 16명, 계약직 3명이 투입되고 있음.

표 3-78.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사업 투입 인력 구성

구분	사업 투입 인력 구성
부산시립정신병원	전문의 1명 사회복지학 전공자 1명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전문의 4명 간호사 20명 임상심리사 1명
원광대학교병원	전문의 3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국립나주병원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국립부곡병원	전문의 1명 전공의 2명 간호사 6명 간호학 전공(행정) 2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2. 교육기관

- 대학알리미에서 키워드별 학과정보 검색을 통해 “중독(16)”, “재활(201)”, “약물(0)” 관련 학과 중 마약류와 관련한 전문 교육기관만 정리한 목록임. 현재 국내 대학 4개, 대학원 11개로 총 15개의 교육기관이 파악됨.
- 대학의 경우 가톨릭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복지상담학과, 광주보건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충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가 있음.
- 대학원의 경우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중독재활상담학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학과,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재활학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중독융합학과,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중독상담학전공(야간), 부산가톨릭대학교 미래복지상담대학원 중독학과,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과학과, 을지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주, 야간), 영산대학교(해운대 캠퍼스) 사회과학대학원 마약범죄중독심리전공,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가 있음.

표 3-79. 국내 교육기관

구분	교육기관명	위치
대학(4)	가톨릭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복지상담학과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내곡동) 가톨릭관동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73 광주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437 서울캠퍼스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43 총신대학교
대학원 (11)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중독재활상담학과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내곡동)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학과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마리아관 210호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재활학과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중독융합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중독상담학전공(야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부산가톨릭대학교 미래복지상담대학원 중독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곡3동 9번지) 부산가톨릭대학교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을지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대전캠퍼스(구, 을지의과대학교) 34824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번지 77 (용두동 143-5) 성남캠퍼스 (구, 서울보건대학) 131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양지동 212)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주, 야간)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영산대학교(해운대 캠퍼스) 사회과학대학원 마약범죄중독심리전공	부산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번지

3. 법무부 관련 기관

- 법무보건의료의 경우 교정본부 소속의 교도소와 구치소,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국립법무병원(구 치료감호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간접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관련 기관 중 문헌을 통해 마약류 관련 지원을 하는 것으로 빈번하게 검색되는 대표적인 기관을 중심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제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음.
-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는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정식 명칭)”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기본과정과 집중과정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과정이며, 매년 시행 중임. 매회 시행 횟수는 달라 지나 올해는 5회기로 시행함. 이외 다른 교도소의 심리치료에 관한 정보를 물었을 때, 소마다 지정되어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함. 법무부 심리치료과 본부의 명단을 받으면 시행 중인 교도소 심리치료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답변 받음.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 대표번호는 055-740-5583임.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마약류 관련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은 하고 있지 않았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은 마약류 중독자는 기관의 관심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이와 관련한 정보도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대표번호는 031-451-2683으로 확인됨.
- 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의 중독 진료과로 전화하여 답변받음.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병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더 구체적인 정보는 공식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질문을 요청하였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현재 향정신성 약물 및 마약류 범법 대상자에게도 기관의 자체 기준을 통과하면 지원하고 있음.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시설 및 전용시설이 없지만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음. 운영형태는 지부 지소별로 운영되고 있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정책부와 연결하여 답변 받음.
- 법무부 관련 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는 향후 기관 협조를 통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80. 법무부 관련 기관 조사 결과

구분	주소	연락처	응답 부서	치료 활동 여부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700	055-740-5583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	“마약류사범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 진행 중. 매년 시행 중이며 올해는 5회기로 진행함.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청소년분류심사원	031-451-268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마약류 중독 치료 안하고 있음. 기관의 관심 대상 아님.
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041-840-5400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 중독진료과 연결	마약류 중독 치료 중이며, 현재 병상 운영 중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 김천시 혁신1로 8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054-911-865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정책부	향정, 마약류 범법 대상자에게도 자체 기준 통과 시 지원하고 있음. 지부 지소별로 운영됨.

4. 자조 모임

- 국내에서 활동 중인 자조 모임 목록은 한국 NA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입수하였음.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조 모임의 대표 봉사단 번호로 직접 통화하여 활동 여부를 조사하였음.

- 지금까지 21개의 자조 모임이 모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각 자조 모임 대표에게 공통으로 활동 여부와 NA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조 모임이 모두 활동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명단에 있는 자조 모임은 모두 활동 중인 모임이 맞다고 응답하였음. 전화조사 당시 모임 요일과 동일한 곳은 해당 요일에도 활동 중이라고 응답하였음.
- 조사 착수 당시 자조 모임 명단에서 없어진 자조 모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자조 모임이 없어지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자조 모임들은 모두 같은 건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응답자 1명이 당시 서초구에서 하는 자조 모임은 모두 활동 중인 자조 모임이 맞다고 응답하였음.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조 모임 운영에 중복되는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구대동 NA의 대표번호는 김해 리본하우스(김해 다르크) 시설장의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나와 전화조사 당시 현재 리본하우스와 같이 자조모임 활동을 운영 중인 것이냐고 물어봄. 현재 대구대동 NA는 약물 중독을 극복한 과거 리본하우스 입소자가 자조 모임을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함. 동시에 부산 NA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표 3-81. 현재 활동 중인 자조 모임

자조 모임명	활동 여부(O/X)	모임일시	위치
International NA	O	일요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나눔 NA	O	일요일 오후 5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자유 NA	O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공개모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16, 인정빌딩 4층 인천마약류중독재활센터
서울경기북부 NA	O	월요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중독당사자 지원센터 1층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28길 112
어울림 NA	O	월요일 오후 10시	https://us06web.zoom.us/j/4041306206?pwd=ofkHRkhjzg9cgtDUkb1lkVhE24RvG.1
학동 NA	O	화요일 오후 7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8, 서울 영동교회 3층 호산나홀
열매 NA	O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7시 공개모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광주 NA	O	화요일 오후 6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6 네오빌딩 5층
부산 NA	O	수요일 오후 1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5, 2층 (연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오늘 하루만 NA	O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공개모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 온라인 모임(ZOOM)
당산 NA	O	목요일 오후 5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4층
해냄 NA	O	목요일 오후 5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 페이퍼칼라 302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중독재활센터 프로그램실
무지개 NA	O	목요일 오후 7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대구대동 NA	0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69 대동병원, 대동병원 8층 소강당
온유 NA	0	목요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독정리로96(송의동) 2층 202호
오름 NA	0	목요일 오후 7시	서귀포시 화순 서서로 64번길 22
우리 NA	0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경희빌딩 가온부동산중개법인(1층) 오른쪽 입구
참사랑 NA	0	금요일 오후 7시	인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인천 참사랑병원 본관 1층 프로그램실
한일 NA	0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8시30분	온라인 모임(ZOOM), 모임 진행방식: 각 나라 대표경험담 1인 스피치 15분, 자유발언 및 Q&A 30분
치유 NA	0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개모임	인천 미추홀구 독정리로 96, 202호
어울림 NA	0	토요일 오후 8시	https://us06web.zoom.us/j/4041306206?pwd=ofkHRkhjzg9cgtDUkb1lkhVhE24RvG.1
계			21개

5. 주거제공시설 등 민간기관

- 폐쇄된 서울다르크, 경기도다르크, 인천다르크, 대구다르크의 경우 포털사이트 기사를 통해 폐쇄일을 확인하였음.
- 서울다르크의 경우 2023년으로 폐쇄일이 추정되나 정확한 일자 검색되지 않았으며, 인천다르크보다 이전에 폐쇄한 것으로 보임. 폐쇄 이유는 혐오시설 및 경영난, 센터장 개인적 사유로 폐쇄함.
- 경기도다르크는 2023년 9월 12일에 공식적으로 폐쇄하였으며, 허가 없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중단됨. 이후 센터장 성추행 의혹 및 횡령 의혹으로 문제가 있었음.
- 인천다르크는 2024년 4월 폐쇄하였으며, 지자체에 시설 미신고 및 보호시설이 아닌 이유로 인천 미추홀구 행정 처분 이후 잠정 중단됨.
- 대구다르크 폐쇄일은 2024년 1월로 혐오시설 및 경영난으로 폐쇄함.
- 김해다르크(리본하우스)의 경우는 현재 유일하게 운영 중인 재활시설이며, 9월 19일 기준, 마약류 관련 입소자는 현재 4명 있음을 전화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음. 시설장이 알고 있는 다른 주거제공시설로는 공식적으로 리본하우스 외에는 없다고 답변 받음.
- 행복을 만드는 집 대표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이며, 포털사이트 검색 시 위치검색은 되나 공식 홈페이지는 중단된 걸로 나옴.
- 삼나무집은 여성 전문 마약류 중독 관련 민간기관이었지만, 현재는 마약류 중독 관련 인원은 받지 않고 있음. 센터장의 센터 이전으로 마약류 관련은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고 함. 이 정보는 한국마퇴본부 소속 응답자로부터 얻은 답변이기 때문에 삼나무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더 얻기 힘들.
- 카프향나무집은 2023년 상반기까지 마약류 관련 입소자가 4명 있었으나, 올해는 알코올 중독자만 다루고 있다고 전화 응답하였음. 약물 및 마약 중독 입소자가 없는 이유는 알코올과 마약류 환자의 차이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카프향나무집을 제외한 이외 생활시설에 대한 정보를 물었을 때, 다르크 외에 아는 정보는 없다고 하였음.

-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9월 전화조사 당시, 마약류 및 약물 중독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 중이며,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참여하고 있음. 참여 인원은 시기마다 달라서 응답하기 어렵다고 전함. 프로그램 형태는 외부 교육과 시설 내부 프로그램 활동으로 진행 중이었음.
-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는 2024년 4월 20일에 출범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며, 입소형 재활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였음. 실제로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 소장과 의 전화를 통해 입소형 재활센터 건립은 추진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였음.

표 3-82. 주거제공시설 등 민간기관 현황

재활시설명	시설 현황	위치
서울다르크	폐쇄일: 2023년 추정	-
경기도다르크	폐쇄일: 2023년 9월 12일 (2019년 3월 설립)	-
인천다르크	폐쇄일: 2024년 4월 (2022년 설립)	-
대구다르크	폐쇄일: 2024년 1월	-
김해다르크(리본하우스)	운영 중임. 현재 입소 정원 4명, 공식적인 주거제공시설은 현재 리본하우스 밖에 없다고 응답함.	경남 김해시 평전로 93번길 10-19
행복을 만드는 집	관련 정보 알 수 없음. 대표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눔.	-
삼나무집	마약류 중독 관련 운영 안 함.	-
카프향나무집	마약류 중독 관련 운영 안 함. 작년 상반기까지만 진행하였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마약류 및 약물 중독 프로그램 활동 중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47 (영일빌딩 3층)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	입소형 재활센터 추진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음.	부산 수영로교회

4절. 정책적 제언

1. 마약류 중독예방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집중화

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 성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실제 위험성과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함.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마약류 접근 방법, 마약류 사용의 실제적인 건강 및 법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성인과 청소년 대상 포괄적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조사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므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거절 기술과 대처 방안을 교육해야 함.

2) 정책 인지도 제고와 공공 캠페인 확대

- **마약류 관련 정책 인지도 제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정부의 마약류 예방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매체와 SNS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예방 정책과 지원 기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온라인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청소년과 성인 모두 온라인 교육과 정보 제공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마약류 예방과 재활에 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3) 특정 집단의 맞춤형 접근

- **해외거주 경험집단:**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상의 예방 전략: 해외 거주 경험이 마약류 사용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귀국 후 이들이 마약류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청소년:** 청소년들이 마약류 사용이 외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활용하여, 마약류가 신체와 외모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강력하게 소구하는 교육 자료와 캠페인을 개발해야 함. 이를 통해 마약류 사용의 단기적 쾌감보다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특히 청소년들은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려는 동기가 강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이 아닌 스트레스와 고통을 다룰 수 있는 건강한 대처 방법(예: 상담 서비스, 운동,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 **취약계층:**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전략이 필요함.
-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 강화: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조 모임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중독예방과 재활 과정에서 가족과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정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발:** 여성,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청소년 등 특정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치료 정책을 수립하여 이들이 마약류 사용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의사 교육:**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과 남용 방지를 위한 의사 및 의료 전문가 대상 교육을 강화함. 이 교육은 처방 지침, 남용 위험성, 환자 모니터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4)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재활 지원체계 확립

-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 금지:** '마약김밥'이나 '마약커피'와 같은 표현이 마약에 대한 친숙한 인식을 조장한다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적 용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공익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 **낙인 감소와 재활 중심의 정책 강화:** 조사 결과, 청소년과 성인 모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독이 질병이며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낙인을 줄여야 중독자들이 보다 쉽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응답자들이 재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활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고,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5)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연구

-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데이터 분석 강화:**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해 개발한 지식 및 태도 문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예방사업의 성과를 측정함. 이를 통해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마약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함.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마약류 사용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개발함
- **다학제 및 다기관 협력:** 다학제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마약류 폐해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
- **마약류 관련 법률 재정비:** 한국의 마약류 관련 법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효과적인 규제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복지부 산하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청소년 및 지역사회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운영 중임. 그러나 마약류에 대한 특화된 예방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한결을 센터가 마약류 중독예방에 중점을 둔 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 총괄활용성과

총괄과제명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총괄과제책임자	손애리/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손애리/보건교육(보건통계) 전공

가. 정책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을 통한 마약류 중독자 감소 및 의료 범죄 등 사회, 경제적인 피해 비용 감소 - 마약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의 조사도구로 활용 - 국내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조사를 통해 통합적인 마약류 폐해예방 전략으로 활용 - 국가 주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나.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지식, 태도, 경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다.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게재연월	권(호)	페이지	국내/국외*	SCI여부**
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for Assessing Drug Use Motives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South Korea	Joon-Yong Yang 1,Minhye Kim2and AereeSohn	healthcare	출판예정 (심사중)				SCI
2								

* 국내발간학술지인 경우 '국내', 국외발간학술지인 경우 '국외'로 표기

** SCI, SCIE, 비SCI로 구분하여 표기

라.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국내/ 국제

마. 지식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 연월일)	IPC분류

1. 총괄활용계획

- 마약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의 조사도구로 활용
- 국내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조사를 통해 통합적인 마약류 폐해예방 전략으로 활용
- 국가 주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변경 사항 없음.

제6장 총괄참고문헌

- 국가 마약류 안전관리 기획 연구, 이범진, 박귀례, 우주형, 2019-09, 식품의약품안전처.
- 김경빈, 기획논문: 약물사용 및 약물중독 청소년의 조기발견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4(1), 209-223. 1997.
- 김봉수, 김경빈, 이충경, 한국형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표를 위한 예비연구 (III), 신경정신의학, 34(6), 1862-1874. 1995.
- 김용석 외, 한국어판 물질남용에 대한 태도 척도(Substance Abuse Attitude Survey)의 타당화 연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71, 2019, 41-76.
- 김용석, 청소년 약물남용 선별도구 (CRAFFT) 의 타당화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4, 30-55, 2010.
- 김은엽 외, 전라남도 청소년의 약물남용 태도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2010.
- 머니투데이, 2022.09.13. 4060 진짜 줄었을까...온라인 집중 단속하니 1020 마약류 사범만 줄었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1214194550328>
- 신현주 외, 대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6), 2015.
- 신현주, 조근호, 박애란, 이상규, 이해국, 김한오, 이계성, 한글판 ASSIST (Alcohol, Smoking &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음주, 흡연, 약물사용 선별검사) 의 표준화 연구, 중독정신의학 18(1): 29-36, 2014.
- 아주대학교·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 경기도의회, 2020
약물남용 피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양태경 외,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999
- 윤연옥 외, 대구지역 중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1), 2001
- 이영은 외, 부산지역 여중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2):162-172, 2007
- 이해국, 임현우, 정현숙, 천영훈, 조선진, 장옥진, 이승엽, 김미현, 전예립, 오산여울. (2022).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 이화자 외, 일부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및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1) 2001
- 정현주 외,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와 인식,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21(2):79-84, 2023
- 조선뉴스, 2022.07.25., 미국 MZ세대 사망률 1위 약물, 국내 급속 확산.
- 중앙일보, 2022.07.07. '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736#home>
- 최봉실 외, 청년층의 약물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조사,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3):275-280, 2022)
- 한경순 외, 대학생의 약물 사용 실태·지식 및 태도(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376-389, 2000

- 한선희, 중학생의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1):57-70, 1999
- Adams, J.B.; Heath, A.J.; Young, S.E.; Hewitt, J.K.; Corley, R.P.; Stallings, M.C.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and preferred substance and motivations for use among adolescent substance abusers. *Am J Drug Alcohol Abuse*2003, 29(3), 691 - 712. <https://doi.org/10.1081/ada-120023465>
- Ali, R.; Meena, S.; Eastwood, B.; Richards, I.; Marsden, J. Ultra-rapid screening for substance-use disorders: 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Lit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013, 132(1-2), 352-361.
-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New Jersey, US, 1986.
- Bennett, T.; Holloway, K. Motives for illicit prescription drug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 J Drug Policy*2017, 44, 12 - 22. <https://doi.org/10.1016/j.drugpo.2017.02.012>
- Biolcati, R.; Passini, S. Development of the Substance Use Motives Measure (SUMM): A comprehensive eight-factor model for alcohol/drugs consumption. *Addict Behav Rep*2019, 10, 100199. <https://doi.org/10.1016/j.abrep.2019.100199>
- Brenner, P.S.; DeLamater, J. Lies, Damned Lies, and Survey Self-Reports? Identity as a Cause of Measurement Bias. *Soc Psychol Q*2016, 79(4), 333 - 354. <https://doi.org/10.1177/0190272516628298>
- Carpenter, C.J. A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 belief model variables in predicting behavior. *Health Commun*2010, 25(8), 661 - 669. <https://doi.org/10.1080/10410236.2010.521906>
- Cha, M.H.; Jang, C.H. Comparis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in Korea and Japan on drug addi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 21(12), 688 - 696. Korean.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894339>
- Choi, J. Motivations influencing caffeine consumption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ssociations with sleep quality. *Nutrients*2020, 12(4), 953. <https://doi.org/10.3390/nul12040953>
- Comeau, N.; Stewart, S.H.; Loba, P. The relations of trait anxiety, anxiety sensitivity, and sensation seeking to adolescents' motivations for alcohol, cigarette, and marijuana use. *Addict Behav*2001, 26(6), 803 - 825. [https://doi.org/10.1016/S0306-4603\(01\)00238-6](https://doi.org/10.1016/S0306-4603(01)00238-6)
- Conner, M.; Armitage, C.J.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and avenues for further research. *J Appl Soc Psychol*1998, 28(15), 1429 - 1464.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8.tb01685.x>
- Cooper, M.L.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 Assess*1994, 6(2), 117 - 128. <https://doi.org/10.1037/1040-3590.6.2.117>
- De Leon, A.N.; Peterson, R.; Dvorak, R.D.; Leary, A.V.; Kramer, M.P.; Burr, E.K.; Toth, E.M.; Pinto, D. The health belief model in the context of alcohol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Psychiatry*2023,

86(1), 1 - 16.

- Deci, E.L.; Ryan, R.M.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Springer: NY, US, 1985 <http://dx.doi.org/10.1007/978-1-4899-2271-7>
- DiClemente, C.C. Motivation for change: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Psychol Sci*1999, 10(3), 209 - 213. <https://doi.org/10.1111/1467-9280.00137>
- Disclaimer/Publisher's Note: The statements, opinions, and data contained
- Drazdowski, T.K. A systematic review of the motivations for the non-medical use of prescription drugs in young adults. *Drug Alcohol Depend*2016, 162, 3 - 25. <https://doi.org/10.1016/j.drugalcdep.2016.01.011>
- Evren, C., Ovali et a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rug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DUDIT) in heroin dependent adults and adolescents with drug use disorder. *Bulletin of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4(1), 39 - 48. 2014.
- Fadaei, M.H.; Farokhzadian, J.; Miri, S.; Goojani, R. Promoting drug abuse preventive behaviors in adolescent student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Int J Adolesc Med Health*2020, 34(3). <https://doi.org/10.1515/ijamh-2019-0170>
- Gold, A.K.; Stathopoulou, G.; Otto, M.W. Emotion regulation and motives for illicit drug use in opioid-dependent patients. *Cogn Behav Ther*2020, 49(1), 74 - 80. <https://doi.org/10.1080/16506073.2019.1579256>
- Greely, H.; Sahakian, B.; Harris, J.; Kessler, R.C.; Gazzaniga, M.; Campbell, P.; Farah, M.J. Towards responsible use of cognitive-enhancing drugs by the healthy. *Nature*2008, 456(7223), 702 - 705. <https://doi.org/10.1038/456702a>
- Hammersley, R. A digest of memory phenomena for addiction research. *Addiction*1994, 89(3), 283 - 293. <https://doi.org/10.1111/j.1360-0443.1994.tb00890.x>
- Hecimovic, K.; Barrett, S.P.; Darredeau, C.; Stewart, S.H. Cannabis use motives and personality risk factors. *Addict Behav*2014, 39(3), 729 - 732. <https://doi.org/10.1016/j.addbeh.2013.11.025>
-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2001.
- <https://doi.org/10.1007/s002130100917>
- <https://doi.org/10.1016/j.addbeh.2009.07.001>
- <https://doi.org/10.1080/00332747.2022.2114270>
- <https://doi.org/10.1177/109019817400200403>
- <https://doi.org/10.3390/ijerph192114271>
- Hu, L.T.; Bentler, P.M.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 Methods*1998, 3(4), 424 - 453. <https://doi.org/10.1037/1082-989X.3.4.424>

- Humeniuk, R.; Holmwood, C.; Beshara, M.; Kambala, A. ASSIST-Y v1. 0: first-stage development of the who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and linked brief intervention for young people.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2016, 25(4), 384-390.
- Iszaj, F.; Griffiths, M.D.; Demetrovics, Z. Creativity and psychoactive substance use: A systematic review. *Int J Ment Health Addict* 2017, 15, 1135 - 1149.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469-016-9709-8>
- Jones, R.E.; Spradlin, A.; Robinson, R.J.; Tragesser, S.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pioid Prescription Medication Motives Questionnaire: A four-factor model of reasons for use. *Psychol Addict Behav* 2014, 28(4), 1290 - 1296. <https://doi.org/10.1037/a0037783>
- Khantzian, E.J. 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of addictive disorders: Focus on heroin and cocaine dependence. *Am J Psychiatry*. 1985, 142(11), 1259 - 1264. <https://doi.org/10.1176/ajp.142.11.1259>
- Kim Y. Validating a Korean Version of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10 (DAST-10).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014, 40:232-241.
- Kim, U. Culture, science, and indigenous psychologies: An integrated analysis. In *The Oxford Handbook of Multicultural Identity*; Benet-Martinez, V., Hong, Y.-Y., Ed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2005; pp. 51 - 77.
- Knight, J. R.; Sherritt, L.; Harris, S. K.; Gates, E. C.; Chang, G. Validity of brief alcohol screening tests among adolescents: a comparison of the AUDIT, POSIT, CAGE, and CRAFFT.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003, 27(1), 67-73.
- Ko, S.; Sohn, A. Behaviors and culture of drinking among Korean people. *Iran J Public Health* 2018, 47, 47 - 56.
- Madras BK et al. Screening, Brief Interventions, Referral to Treatment (SBIRT) for illicit drug and alcohol use at multiple healthcare sites: comparison at intake and 6 months later. *Drug Alcohol Depend*. 2009;99(1 - 3):280 - 295.
- McLellan, A. T. Substance Misus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Why do they Matter in Healthcare?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Clinical and Climatological Association*, 2017, 128, 112-130.
- Miller, T.; Hendrie, D. Substance Abuse Prevention Dollars and Cents: A Cost-Benefit Analysis, DHHS Pub. No. (SMA) 07 - 4298;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Rockville, MD, 2008.
- Mohamed, A.D. The effects of modafinil on convergent and divergent thinking of creativit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he J Creat Behav* 2014, 48(2), 153 - 168. <https://doi.org/10.1002/jocb.73>
- Natale Salvatore Bonfiglio et al., Development of the motivation to use substance questionnair,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34 (2022) 109414.
- Park, J.M.; Sohn, A.; Choi, C. Solitary and social drinking in South Korea: An exploratory study. *Osong*

- Public Health Res Perspect 2020, 11(6), 365 - 372. <https://doi.org/10.24171/j.phrp.2020.11.6.04>
- Park, S.-S.; Baik M.-S. Analysis of the drug problem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Drug Harm Index development. Public Policy Rev2019, 33(2), 209 - 227. Korean.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691915>
- Pautrat, M.; Pierre Lebeau, J.; Laporte, C. Identifying available addictive disorder screening tests validated in primary care: A systematic review. Addictive Behaviors, 2022, 126, 107180.
- Petratis, J.; Flay, B.R.; Miller, T.Q. Reviewing theorie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Organizing pieces in the puzzle. Psychol Bull1995, 117(1), 67 - 86. <https://doi.org/10.1037/0033-2909.117.1.67>
- Pomazal, R.J.; Brown, J.D. Understanding drug use motivation: A new look at a current problem. J Health Soc Behav1977, 18(2), 212 - 222. <https://doi.org/10.2307/2955385>
- Rachel Humeniuk et al., Validation of 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Addiction. 2008, 103(6):1039-47.
- Rigg, K.K.; Ibañez, G.E. Motivations for non-medical prescription drug use: A mixed methods analysis. J Subst Abuse Treat2010, 39(3), 236 - 247. <https://doi.org/10.1016/j.jsat.2010.06.004>
- Rosenstock, I.M. 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 Monogr1974, 2(4), 328 - 335.
- Saengduenchai, S., Nilaban, S., Singtho, T., Ranuwattananon, A., & Kalayasiri, R. (202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Substance Use Disorder Screening Test Based o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Journal of Health Science and Medical Research, 41(4), 2023932.
- Sherrilyn M. Sklar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rug-taking confidence questionnaire: a measure of coping self-efficacy, Addictive Behaviors, 22(5), 655-670, 1997.
- Simons, J.; Correia, C.J.; Carey, K.B. A comparison of motives for marijuana and alcohol use among experienced users. Addict Behav2000, 25(1), 153 - 160. [https://doi.org/10.1016/s0306-4603\(98\)00104-x](https://doi.org/10.1016/s0306-4603(98)00104-x)
- Simons, J.; Correia, C.J.; Carey, K.B.; Borsari, B.E. Validating a five-factor marijuana motives measure: Relations with use, problems, and alcohol motives. J Couns Psychol1998, 45(3), 265 - 273. <https://doi.org/10.1037/0022-0167.45.3.265>
- Sinha, R. How does stress increase risk of drug abuse and relapse? Psychopharmacology. 2001, 158(4), 343 - 359.
- Skinner HA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Addict Behav 7(4):363-371. Yudko E, Lozhkina O, Fouts A (2007).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J Subst Abuse Treatment, 1982, 32:189-198.
- Smith, D.E.; Seymour, R.B. Dream becomes nightmare: Adverse reactions to LSD. J Psychoactive Drugs 1985, 17, 297 - 303. <https://doi.org/10.1080/02791072.1985.10524334>
-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Monthly trends in narcotic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in Korean]. Available online: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201> (accessed

on 16 Sep 2023).

- Tabachnick, B.G.; Fidell, L.S.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Allyn and Bacon: Boston, US, 2007.
-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Psychotropic Drugs Control Act. Available online: <https://www.law.go.kr/LSW/eng/engLsSc.do?menuId=2§ion=lawNm&query=drug&x=28&y=29#liBgcolor4> (accessed on 17 Sep 2023).
- Tiet, Q. Q.; Leyva, Y. E.; Moos, R. H.; Smith, B. Diagnostic accuracy of a two-item 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2). *Addictive Behaviors*, 2017, 74, 112-117.
- Tiet, Q. Q.; Leyva, Y.; Moos, R. H.; Smith, B. Diagnostic accuracy of a two-item screen for drug use developed from 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016, 164, 22-27.
- Treloar, H.; Pedersen, S.L.; McCarthy, D.M. The role of expectancy in substance-abuse progression. In *Addictions: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Kopetz, C.E., Lejuez, C.W., Eds.;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NY, US, 2016; pp. 120 - 147. <https://psycnet.apa.org/record/2016-06972-006>
- Triandis, H.C.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US, 1995.
- Volkow, N.D.; Koob, G.F.; McLellan, A.T. Neurobiologic advances from the brain disease model of addiction. *N Engl J Med* 2016, 374(4), 363 - 371. <https://doi.org/10.1056/NEJMr1511480>
- Votaw, V.R.; Witkiewitz, K. Motives for substance use in daily life: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using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Clin Psychol Sci* 2021, 9(4), 535 - 562. <https://doi.org/10.1177/2167702620978614>
- Woicik, P.A.; Stewart, S.H.; Pihl, R.O.; Conrod, P.J. The Substance Use Risk Profile scale: A scale measuring traits linked to reinforcement-specific substance use profiles. *Addict Behav* 2009, 34(12), 1042 - 1055.
- Yang, J.Y.; Sohn, A. The association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risky drink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sculinity and drinking in Korean young men.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2, 19(21), 14271.
- Yoo, S.-H. Research on women's Substance use in Korea. *Korean Assoc Addict Crime Rev* 2019, 9(3), 89 - 116. Korean. <https://www-earticle-net-ssl.libproxy.snu.ac.kr/Article/A362490>
- Yu, P.-S. The study about motives and solutions of the drug abuse in secondary schools' students. *J Humanit* 2008, 13, 110 - 136. Korean.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768116>

제7장 총괄첨부서류


본 첨부서류는 최종보고서 서식 제일 뒷편에 첨부함

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사본(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 게재 증명서)과 지식재산권 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부록

- 부록 1.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성인 본조사 설문지]
- 부록 2.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청소년 본조사 설문지]
- 부록 3. 시설 현황조사 설문지
- 부록 4. 시설 현황조사 원자료

부록 1.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성인 본조사 설문지]

 a Macromill Group company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인식조사 (성인)
--	-----------------------------

조사대상	전국 만19~59세 남녀 대상					
샘플 수	3,000명					
할당	성/연령 동일할당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합계
	남성	375	375	375	375	1,500
	여성	375	375	375	375	1,500
합계	750	750	750	750	3,000	

스크리닝 문항(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아래 지도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지도에서 선택]
 [PROG: 17개 시/도 + 2차 지도로 표시]

SQ1_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동 2) 읍·면

[PROG: 서울 거주자는 SQ1_1=1 Auto Coding]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년= 만_____세

[PROG: 만 19~59세만 조사 진행]

SQ3_1. 연령 리코드

- 1) 만19~29세 2) 만30~39세 3) 만40~49세 4) 만50~59세

[PROG: 동구네모박스/ 동의문항과 함께 제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식약처의 의뢰로 마크로밀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로, 마약류 물질의 폐해에 대한 한국인의 신념 및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마크로밀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전국 패널에 속하시며, 만19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귀하의 응답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폐해 대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02-3399-1669)

Q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나요? [응답 1개 선택]

-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PROG: Q1=2번 선택 시 조사 종료, 조사 종료 시 아래 안내 문구 제시 후 조사 종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할당된 참여 인원이 초과되어 조사가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질문

[PROG: 동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A.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다음은 귀하께서 향정신성 약물, 대마, 마약 등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필로폰, 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A1. 귀하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2	3	4	5

A2.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모르겠다
1	2	3	4	5

A3. 귀하는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A4.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전혀 모르고 있다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물병, 엑스터시 등)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1	2	3	4

A5.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의 중독성, 건강 유해성,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생각하시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전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예: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	1	2	3	4	5
마약류(예: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 필로폰, 엑스터시 등)	1	2	3	4	5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1	2	3	4	5

A6.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1	2	3	4	5

A7. 만약 귀하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응답 1개 선택]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보통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1	2	3	4	5

A8.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경우, 귀하는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1개 선택]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보통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A9.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귀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PROG: 동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B.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다음은 귀하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1.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1	2	3	4	5

B2.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개인적 태도입니다. 귀하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의 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나는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1	2	3	4	5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1	2	3	4	5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1	2	3	4	5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	2	3	4	5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과 같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B3. 다음 질문은 마약류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1개 선택]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1	2	3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1	2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1	2	3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1	2	3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1	2	3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1	2	3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1	2	3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1	2	3
마약을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	1	2	3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1	2	3

B4. 마약류 관련 지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1개 선택]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해도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중독될 수 있다.	1	2	3
마약류인지 모르고 운반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2	3
마약류를 사용하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1	2	3
마약류를 사용하면 심각한 정신병(예: 우울, 환각, 피해망상 등)이 생길 수 있다.	1	2	3
마약류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면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학적인 도움은 필요 없다.	1	2	3
프로포폴과 같은 항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속하지 않는다.	1	2	3
필로폰(히로뽕)에 중독되면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1	2	3
살빼는 약(펜타민, 나비약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1	2	3
주의력결핍장애(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등)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1	2	3
엑스터시(MDMA)와 같은 클럽 약물은 환각이나 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1	2	3

[PROG: 동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C. 정신 건강 및 개인적 성향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C1.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C2. 귀하는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 2)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 3)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 4)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 5)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C3. 다음은 귀하의 성향을 나타내는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성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	2	3	4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1	2	3	4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1	2	3	4

[PROG: 등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D.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다음은 귀하께서 가진 마약류 사용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D1.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PROG: 동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E. 마약류 및 중독약물경험
 다음은 여러분이 술, 담배,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E1. 현재 담배를 피우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매일 피운다
- 2) 가끔 피운다
-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 4)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E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1) 궐련(일반 담배)
- 2)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 3) 궐련형 전자담배
- 4) 기타 ()

[PROG: E1=1, 2 응답자만 제시]

E3. 귀하는 술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2) 한 달에 1번 미만
- 3) 한 달에 1번 정도
- 4) 한 달에 2-3번 정도
- 5) 일주일에 1번 정도
- 6) 일주일에 2-3번 정도
- 7) 일주일에 4-5번 이상

E4. 귀하는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맥주1캔=355ml) [응답1개 선택]

- 1) 소주 1잔(=맥주 1캔)
- 2) 소주 2잔
- 3) 소주 3잔(=맥주 2캔)
- 4) 소주 4잔(=맥주 3캔)
- 5) 소주 5잔
- 6) 소주 6잔(=맥주 4캔)
- 7)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 8) 소주 1병 반(=맥주 8캔)
- 9) 소주 2병(=맥주 10캔)
- 10) 소주 2병 반(=맥주 13캔)
- 11) 소주 3병(=맥주 15캔)
- 12) 소주 3병 반(=맥주 18캔)

13) 소주 4병 (=맥주 20캔)

14) 소주 5병 이상

[PROG: E3=2~7 응답자만 제시]

E5. 귀하는 평생 동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몇 번이나 흡입하였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전혀 없음
- 2) 1~2회
- 3) 3~5회
- 4) 6~9회
- 5) 10회 이상

E6.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괄호 안은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물질의 성분, 상품명 및 속칭 사례입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네	아니오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1	2
코카인(크랙 등)	1	2
헤로인	1	2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1	2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1	2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크크, 조커 등)	1	2
LSD 및 기타 환각제	1	2
GHB(물뽕 등)	1	2
케타민(K, 캣 발롱 등)	1	2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1	2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1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뎀-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1	2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1	2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1	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1	2
마약버섯	1	2

E7. 귀하는 귀하의 주변 사람들(친구, 지인 등)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있다	없다
살 빼는 약	1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1	2
마리화나, 해시시와 같은 대마	1	2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1	2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	2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1	2

E8. 귀하의 주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행 동	한 명도 없음	몇 명 있음	꽤 많음	거의 모두 다	모름
담배를 피운다.	1	2	3	4	5
술을 마신다.	1	2	3	4	5
술에 취한다.	1	2	3	4	5
대마초를 피운다.	1	2	3	4	5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1	2	3	4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1	2	3	4	5

E9. 귀하는 평생 동안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있다	없다
살 빼는 약	1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1	2
마리화나, 해시시와 같은 대마	1	2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1	2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	2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1	2

E10. 귀하는 다음의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중 하나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의사의 처방 없는) 살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마약성 진통제, 진정제, 마취제 등 - 대마초, 해시시 등 대마 - 헤로인, 필로폰, 암페타민, 코카인, 크랙, 대마초, 메타돈, 케타민, 엑스터시, GHB, LSD, 마약버섯 등의 마약류

1) 있다 2) 없다

E10-1. 귀하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을 왜 사용하게 되셨나요? 다음의 보기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전부 표시해 주세요.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예	아니오
호기심 때문에	1	2
기분 좋아지려고	1	2
주변인의 권유로	1	2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다들 하고 있어서	1	2
살을 빼기 위해	1	2
각성하기(깨어있기) 위해서	1	2
집중력을 높이고 싶어서	1	2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1	2
다른 약물의 효과를 늘리려고	1	2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1	2
중독되어 끊기 어려워서	1	2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이유에서	1	2

[PROG: E10=1 응답자만 제시]

E10-1-1. 귀하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을 왜 사용하게 되셨나요? 이전 문항에서 제시된 사항 외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직접 입력]

[PROG: E10-1_12=1 응답자만 제시]

E10-2. 최근에 귀하가 사용한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을 주로 어디서 구했나요? 다음의 보기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전부 표시해 주세요. [모두 선택]

- 1)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짜로 얻음
- 2)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 3) 친구 혹은 친지들의 것을 몰래 가져옴
- 4) 오프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 5) 온라인(텔레그램 등)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 6)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_____)

[PROG: E10=1 응답자만 제시]

E10-3. 최근에 귀하가 사용한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습니까? [응답1개 선택]

- 1) 거의 불가능했다
- 2) 많이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
- 3) 보통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었다
- 4)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
- 5) 노력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PROG: E10=1 응답자만 제시]

[PROG: 등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F.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1. 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F2. 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F3.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예	아니오	모르겠다
--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1	2	3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1	2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1	2	3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1	2	3

F4. 귀하는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함께한걸음센터(중독재활센터의 새 이름)**에 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 함께한걸음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응답 1개 선택]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F5. 귀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윙크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와, 그 대표 전화번호인 1342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F6. 귀하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상담 등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도덕성이 부족하여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
 3) 마약류 사용은 본인 책임이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재활을 도와야 한다.
 4) 사회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F7. 귀하는 다음의 각 상황에서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수있습니까? [응답1개 선택]

	그렇다	아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1	2
친구나 직장 동료로 지낼 수 있다	1	2
결혼 상대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응답자 배경 문항(인구사회적 특성)

SQ4.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SQ5. 직업(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농림어업 종사자
 2) 자영업자(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 택시 운전 등)
 3) 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 4) 노무/기계조작/운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 5) 사무직(기업체 차장 이하, 6급 공무원 이하 등)
- 6) 경영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 7)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엔지니어 등)
- 8) 전업주부(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
- 9) 학생(일하지 않고 학업 중)
- 10) 기타(다른 직업)
- 11) 무직, 퇴직, 은퇴(현재 일하지 않음)

SQ5_1.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임금근로자
-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4) 무급가족종사자

[PROG: SQ5=1~7, 10 응답자만 제시]

SQ5_2. 귀하의 고용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 2)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3)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PROG: SQ5_1=1 응답자만 제시]

SQ5_3. 귀하는 현재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정규직
- 2) 비정규직

[PROG: SQ5_1=1 응답자만 제시]

S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전문대 졸업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SQ7.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미혼·비혼
- 2) 배우자 있음(동거, 사실혼 포함)
- 3) 사별
- 4) 이혼

SQ8.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있다
- 2) 없다

SQ9.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가족 수가 아니라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가구원 수를 의미합니다. [응답 1개 선택]

- 1) 혼자 살고 있다
- 2) 2명
- 3) 3명
- 4) 4명
- 5) 5명 이상

SQ10.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단독주택
- 2) 아파트
- 3) 연립·다세대주택
- 4) 기타(기숙사 등)

SQ1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자기 집
- 2) 전세
- 3) 보증금 있는 월세
-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5) 무상 임대

SQ12. 귀하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개인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응답 1개 선택]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1) 2천만원 이상

SQ12_1. 귀하 가구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응답 1개 선택]

※ 가구 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및 이전 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1) 2천만원 이상

[PROG: SQ12 응답 보기보다 크거나 같은 보기만 제시]

SQ13. 귀하께서는 평생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응답 1개 선택]

- 1) 있다 2) 없다

SQ14. 귀하가 체류해보신 나라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아시아
- 2) 유럽
- 3) 중동
- 4) 아프리카
- 5) 북아메리카
- 6) 남아메리카
- 7) 오세아니아
- 8) 이 중 없음

[PROG: SQ13=1 응답자만 제시]

[PROG: 8번 응답시 복수선택 불가]

SQ14-1. 귀하께서 체류해보신 나라(아시아)는 어디입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일본
- 2) 중국
- 3) 싱가포르
- 4) 베트남
- 5) 필리핀
- 6) 태국
- 7) 인도네시아
- 8) 말레이시아
- 9) 카자흐스탄
- 10) 우즈베키스탄
- 11) 기타 ()

[PROG: SQ14=1 응답자만 제시]

SQ14-2. 귀하께서 체류해보신 나라(유럽)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영국
- 2) 프랑스
- 3) 독일
- 4) 러시아
- 5) 기타 ()

[PROG: SQ14=2 응답자만 제시]

SQ14-3. 귀하께서 체류해보신 나라(중동)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아랍에미리트
- 2) 튀르키예(터키)
- 3) 사우디아라비아
- 4) 기타 ()

[PROG: SQ14=3 응답자만 제시]

SQ14-4. 귀하께서 체류해보신 나라(아프리카)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이집트
- 2) 남아프리카공화국
- 3) 기타 ()

[PROG: SQ14=4 응답자만 제시]

SQ14-5. 귀하께서 체류해보신 나라(북아메리카)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미국
- 2) 캐나다
- 3) 멕시코

[PROG: SQ14=5 응답자만 제시]

SQ14-6. 귀하께서 체류해보신 나라(남아메리카)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브라질
- 2) 칠레
- 3) 기타 ()

[PROG: SQ14=6 응답자만 제시]

SQ14-7. 귀하께서 체류해보신 나라(오세아니아)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호주
- 2) 뉴질랜드

[PROG: SQ14=7 응답자만 제시]

부록 2.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청소년 본조사 설문지]

 <small>a Macromill Group company</small>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인식조사 (청소년)
---	------------------------------

조사대상	전국 만14~18세 남녀 대상
샘플 수	2,000명
할당	[성별] 동일할당 (남성 1,000명 / 여성 1,000명) [연령] 15/16/17/18세가 최대한 균등하도록 (14세는 적을 수 있음)

스크리닝 문항(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아래 지도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지도에서 선택]
[PROG: 17개 시/도 + 2차 지도로 표시]

SQ1_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동 2) 읍·면

[PROG: 서울 거주자는 SQ1_1=1 Auto Coding]

SQ2.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남성 2) 여성

SQ3. 여러분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년= 만_____세

[PROG: 만 14~18세만 조사 진행]

SQ4. 여러분의 학교급(직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응답1개 선택]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 3) 고등학교
- 4) 학교를 다니지 않음
- 5) 직장인
- 6) 기타 ()

[PROG: SQ4=1~4 응답자만 조사 진행]

SQ4-1. 여러분은 몇 학년입니까? [응답1개 선택]

- 1) 초등학교6학년 [PROG: SQ4=1 응답자는 SQ4-1=1 Auto Coding]
- 2) 중학교1학년 [PROG: SQ4=2 응답자에게만 제시]
- 3) 중학교2학년 [PROG: SQ4=2 응답자에게만 제시]
- 4) 중학교3학년 [PROG: SQ4=2 응답자에게만 제시]
- 5) 고등학교1학년 [PROG: SQ4=3 응답자에게만 제시]
- 6) 고등학교2학년 [PROG: SQ4=3 응답자에게만 제시]
- 7) 고등학교3학년 [PROG: SQ4=3 응답자에게만 제시]

[PROG: SQ4=1~3 응답자에게만 제시]

[PROG: 등근네모박스/ 동의 문항과 함께 제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식약처의 의뢰로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로, 마약류 물질의 폐해에 대한 한국인의 신념 및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전국 패널에 속하시며,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디.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여러분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여러분의 응답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폐해 대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들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연구대상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02-3399-1669)

Q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나요? [응답 1개 선택]

-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PROG: Q1=2번 선택 시 조사 종료, 조사 종료 시 아래 안내 문구 제시 후 조사 종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할당된 참여 인원이 초과되어 조사가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질문

[PROG: 등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A.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다음은 여러분이 향정신성 약물, 대마, 마약 등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필로폰, 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A1.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2	3	4	5

A2. 여러분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모르겠다
1	2	3	4	5

A3. 여러분은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A4.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전혀 모르고 있다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물병, 엑스터시 등)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1	2	3	4

A5.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의 중독성, 건강 유해성,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전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예: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	1	2	3	4	5
마약류(예: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필로폰, 엑스터시 등)	1	2	3	4	5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1	2	3	4	5

A6.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1	2	3	4	5

A7. 만약 여러분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응답 1개 선택]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보통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1	2	3	4	5

A8.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여러분은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1개 선택]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보통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A9.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PROG: 동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B.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다음은 여러분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1.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1	2	3	4	5

B2.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개인적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의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1	2	3	4	5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1	2	3	4	5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1	2	3	4	5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	2	3	4	5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1	2	3	4	5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과 같거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파티나 모임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B3. 다음 질문은 마약류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1개 선택]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1	2	3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1	2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1	2	3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1	2	3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1	2	3
GHB(물병,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1	2	3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1	2	3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1	2	3
마약을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	1	2	3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1	2	3

B4. 마약류 관련 지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1개 선택]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해도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중독될 수 있다.	1	2	3
마약류인지 모르고 운반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2	3
마약류를 사용하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1	2	3
마약류를 사용하면 심각한 정신병(예: 우울, 환각, 피해망상 등)이 생길 수 있다.	1	2	3
마약류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면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학적인 도움은 필요 없다.	1	2	3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속하지 않는다.	1	2	3
필로폰(히로뽕)에 중독되면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1	2	3
살빼는 약(펜타민, 나비약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1	2	3
주의력결핍장애(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등)을 복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1	2	3
엑스터시(MDMA)와 같은 클럽 약물은 환각이나 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1	2	3

[PROG: 동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C. 정신 건강 및 개인적 성향
 다음은 여러분께서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C1. 여러분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C2. 여러분은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 2)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 3)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 4)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 5)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C3. 다음은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는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성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	2	3	4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1	2	3	4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1	2	3	4

[PROG: 동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D.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다음은 여러분이 가진 마약류 사용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D1.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1	2	3	4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PROG: 동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E. 마약류 및 중독약물경험
다음은 여러분이 술, 담배,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E1.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매일 피운다
- 2) 가끔 피운다
-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 4)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E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1) 궐련(일반 담배)
- 2)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 3) 궐련형 전자담배
- 4) 기타 ()

[PROG: E1=1, 2 응답자만 제시]

E3. 여러분은 술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2) 한 달에 1번 미만
- 3) 한 달에 1번 정도
- 4) 한 달에 2-3번 정도
- 5) 일주일에 1번 정도
- 6) 일주일에 2-3번 정도
- 7) 일주일에 4-5번 이상

E4. 여러분은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맥주1캔=355ml) [응답1개 선택]

- 1) 소주 1잔(=맥주 1캔)
- 2) 소주 2잔
- 3) 소주 3잔(=맥주 2캔)
- 4) 소주 4잔(=맥주 3캔)
- 5) 소주 5잔
- 6) 소주 6잔(=맥주 4캔)
- 7)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 8) 소주 1병 반(=맥주 8캔)

- 9) 소주 2병 (=맥주 10캔)
- 10) 소주 2병 반 (=맥주 13캔)
- 11) 소주 3병 (=맥주 15캔)
- 12) 소주 3병 반 (=맥주 18캔)
- 13) 소주 4병 (=맥주 20캔)
- 14) 소주 5병 이상

[PROG: E3=2~7 응답자만 제시]

E5. 여러분은 평생 동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몇 번이나 흡입하였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전혀 없음
- 2) 1~2회
- 3) 3~5회
- 4) 6~9회
- 5) 10회 이상

E6. 여러분은 다음의 물질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괄호 안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물질의 성분, 상품명 및 속칭 사례입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네	아니오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1	2
코카인(크랙 등)	1	2
헤로인	1	2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1	2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1	2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텝크, 조커 등)	1	2
LSD 및 기타 환각제	1	2
GHB(물병 등)	1	2
케타민(K, 캣 발롬 등)	1	2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1	2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1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뎴-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1	2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1	2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1	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1	2
마약버섯	1	2

E7.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친구, 지인 등)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있다	없다
살 빼는 약	1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1	2
마리화나, 해시시와 같은 대마	1	2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1	2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	2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1	2

E8.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행 동	한 명도 없음	몇 명 있음	꽤 많음	거의 모두 다	모름
담배를 피운다.	1	2	3	4	5
술을 마신다.	1	2	3	4	5
술에 취한다.	1	2	3	4	5
대마초를 피운다.	1	2	3	4	5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1	2	3	4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1	2	3	4	5

E9. 여러분은 평생 동안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있다	없다
살 빼는 약	1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1	2
마리화나, 해시시와 같은 대마	1	2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전통 마약류	1	2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	2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1	2

E10. 여러분은 다음의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 중 하나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의사의 처방 없는) 살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마약성 진통제, 진정제, 마취제 등
- 대마초, 해시시 등 대마
- 헤로인, 필로폰, 암페타민, 코카인, 크랙, 대마초, 메타돈, 케타민, 엑스터시, GHB, LSD, 마약버섯 등의 마약류

1) 있다 2) 없다

E10-1. 여러분은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을 왜 사용하게 되셨나요? 다음의 보기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전부 표시해 주세요.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예	아니오
호기심 때문에	1	2
기분 좋아지려고	1	2
주변인의 권유로	1	2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다들 하고 있어서	1	2
살을 빼기 위해	1	2
각성하기(깨어있기) 위해서	1	2
집중력을 높이고 싶어서	1	2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1	2
다른 약물의 효과를 늘리려고	1	2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1	2
중독되어 끊기 어려워서	1	2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이유에서	1	2

[PROG: E10=1 응답자만 제시]

E10-1-1. 여러분은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을 왜 사용하게 되셨나요? 이전 문항에서 제시된 사항 외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직접 입력]

[PROG: E10-1_12=1 응답자만 제시]

E10-2. 최근에 여러분이 사용한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을 주로 어디서 구했나요? 다음의 보기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전부 표시해 주세요. [모두 선택]

- 1)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공짜로 얻음
- 2) 친구 혹은 친지들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 3) 친구 혹은 친지들의 것을 몰래 가져옴
- 4) 오프라인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 5) 온라인(텔레그램 등)에서 낯선 사람 혹은 판매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함
- 6)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_____)

[PROG: E10=1 응답자만 제시]

E10-3. 최근에 여러분이 사용한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물질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습니까? [응답1개 선택]

- 1) 거의 불가능했다
- 2) 많이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
- 3) 보통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었다
- 4)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다
- 5) 노력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PROG: E10=1 응답자만 제시]

[PROG: 동근네모박스 / 별도 페이지 구성]

F. 마약류 예방, 재활 정책 인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1. 여러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F2. 여러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F3.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항목별 응답 1개 선택]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1	2	3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1	2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1	2	3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1	2	3

F4. 여러분은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함께한걸음센터**(중독재활센터의 새 이름)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 **함께한걸음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응답 1개 선택]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F5. 여러분은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용기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와, 그 대표 전화번호인 1342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F6. 여러분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상담 등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도덕성이 부족하여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
 3) 마약류 사용은 본인 책임이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재활을 도와야 한다.
 4) 사회가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F7. 여러분은 다음의 각 상황에서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사회재활을 받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습니까? [응답 1개 선택]

	그렇다	아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1	2
친구나 직장 동료로 지낼 수 있다	1	2
결혼 상대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응답자 배경 문항(인구사회적 특성)

SQ5. 여러분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매우 좋지 않다
- 2) 좋지 않은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좋은 편이다
- 5) 매우 좋다

SQ6. 여러분의 현재 거주 형태는 어떻습니까? [응답1개 선택]

-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 2) 친척 집에서 살고 있다
- 3) 하숙, 자취(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
- 4) 기숙사
- 5)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SQ7. 여러분 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가족 수가 아니라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가구원 수를 의미합니다. [응답 1개 선택]

- 1) 혼자 살고 있다
- 2) 2명
- 3) 3명
- 4) 4명
- 5) 5명 이상

[PROG: SQ6=1 응답시 1번 보기 미제시]

SQ8.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응답 1개 선택]

- 1) 단독주택
- 2) 아파트
- 3) 연립·다세대주택
- 4) 기타(기숙사 등)

SQ9.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자가입니까 혹은 셋집입니까?[응답 1개 선택]

- 1) 부모님 소유
- 2) 전세
- 3) 보증금 있는 월세
-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5) 무상 임대

SQ10. 여러분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응답1개 선택]

-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전문대 졸업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SQ11. 여러분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응답1개 선택]

-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전문대 졸업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SQ12.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응답1개 선택]

-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SQ13. 여러분은 최근12개월 동안,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시: 학비, 급식비, 교복, 교재, 도시락, 생리대,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응답 1개 선택]

- 1) 없다
- 2) 있다

SQ14. 최근12개월 동안, 여러분의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응답1개 선택]

-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SQ15. 여러분은 평생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응답 1개 선택]

- 1) 있다 2) 없다

SQ16.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아시아
- 2) 유럽
- 3) 중동
- 4) 아프리카
- 5) 북아메리카
- 6) 남아메리카
- 7) 오세아니아
- 8) 이 중 없음

[PROG: SQ15=1 응답자만 제시]

[PROG: 8번 응답시 복수선택 불가]

SQ16-1.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아시아)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일본
- 2) 중국
- 3) 싱가포르
- 4) 베트남
- 5) 필리핀
- 6) 태국
- 7) 인도네시아
- 8) 말레이시아
- 9) 카자흐스탄
- 10) 우즈베키스탄
- 11) 기타 ()

[PROG: SQ16=1 응답자만 제시]

SQ16-2.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유럽)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영국
- 2) 프랑스
- 3) 독일
- 4) 러시아
- 5) 기타 ()

[PROG: SQ16=2 응답자만 제시]

SQ16-3.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중동)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아랍에미리트
- 2) 튀르키예(터키)
- 3) 사우디아라비아
- 4) 기타 ()

[PROG: SQ16=3 응답자만 제시]

SQ16-4.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아프리카)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이집트
- 2) 남아프리카공화국
- 3) 기타 ()

[PROG: SQ16=4 응답자만 제시]

SQ16-5.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북아메리카)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 1) 미국
- 2) 캐나다
- 3) 멕시코

[PROG: SQ16=5 응답자만 제시]

SQ16-6.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남아메리카)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1) 브라질

2) 칠레

3) 기타 ()

[PROG: SQ16=6 응답자만 제시]

SQ16-7.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오세아니아)는 어디입니까?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모두 선택]

1) 호주

2) 뉴질랜드

[PROG: SQ16=7 응답자만 제시]

부록 3.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시설 현황조사 설문지]

<마약류 예방·재활·시설 대상 기관 담당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삼육대학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로 진행하는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입니다. 마약류 폐해인식과 노출 정도를 분석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국 마약류 예방·재활·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비밀은 제1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삼육대학교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문은 약 5분이 소요되며, 모든 응답자에게 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참여가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내용 문의처: 손애리, 김민혜, 양준용(055-213-3276)

* 회신 이메일 주소: qkrth305@naver.com(연구담당 조교 박소현, 010-9461-8000)

* 회신 기한: 2024년 7월 19일

1. 귀 기관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

*답변 예시: ○○○○년 (경)(☞ 설립연도를 모를 경우, 5년 단위 기준으로 19○○년경으로 기재, 예: 1985년경)

2. 귀 기관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

*답변 예시: 정규직 직원: ○○ 명, 계약직 및 기타 직원: ○○명

3.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업을 2024년 현재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

*답변 예시: 예, 아니오

3-1. 귀 기관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 외에 '마약류'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마약류' 관련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답변 예시: ○○○사업

4. 위 3번 및 3-1번에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답변 예시: ○○○사업 - (연도 혹은 시점) ○○○○년 혹은 ○○년 전부터

4-1.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각 인원은 정규직인가요, 임시직인가요?

-

*답변 예시: ○○○○사업 - 정규직 ○○명, 임시직 ○○명

4-2. 해당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전문 자격(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투입된 인력이 전문 자격이 없을 경우, 그들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예시: ○○○○사업 - 상담전문가 ○○명, 간호사 ○○명, 보건관리사 ○○명, 행정전공자 ○○명, 사회복지학전공자 ○○명

(치료보호기관의 경우만 질문) **5. 귀 치료보호기관(병원)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병상 수는 ○○개로 나타납니다. 귀 기관은 현재(2024년) '마약류' 관련 환자를 위해 평균 몇 개의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마약류' 관련 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전에도 사용된 병상 수가 비슷했는지,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인지 최근 경향을 설명해 주세요.**

-

*답변 예시: 2024년 현재 ○○개의 병상 수 사용, 병상수는 부족한 편임, 사용 병상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 귀한 시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해주신 분들께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 발송을 위한 귀하의 핸드폰 번호를 함께 기입해주세요.**

○○○-○○○○-○○○○ (예시)

부록 4. 시설 현황조사 원자료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총 53곳 중 50곳에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3곳은 이메일 주소 오류로 미발송됨. 설문 응답은 53곳의 지역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19곳으로부터 회신 받았음.

- 다음은 무응답 및 이외 3곳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파악한 프로그램 내용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기재된 프로그램(무응답)

구분	기재된 프로그램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약 중독예방교육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관련 예방교육 및 특강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사업장 등), 2) 인식 개선 및 예방홍보 사업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예방 사업
대구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 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 2)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사업
인천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연수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 관리 사업, 2) 중독예방 사업, 3) 지역사회연계사업
인천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예방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 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 2) 중독대상자 관리사업, 3) 중독 조기발견 및 개입 서비스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약물예방 교육, 2) '자투리시간' 중독예방캠페인, 3) 마약중독 실무자역량강화교육, 4) 마약중독예방교육, 5) 마약예방 교육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직업재활 늘품센터, 2) 생애주기별 중독예방교육(청소년, 성인)
광주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2024년 마약중독폐해예방교육 『전지적 예방시점』, 2) 2024년 대학생 중독예방교육 『M-Z 바로알기 (material-zero)』, 3) 2024년 지역아동센터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생각성장판, 바르게 키워요』, 4) 청소년 마약중독폐해 예방교육 『마약타파 FM교육』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년마약예방관리사업 1) 청년 마약류중독 피해 예방 캠페인 - 대학생 마약중독지킴이 양성 - 대학생 마약중독지킴이 온라인 예방활동 지원 - ZEP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2) 청년 마약류 중독 피해 예방 교육 - 초, 중, 고교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중독예방교육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약물오남용 및 마약류 중독예방교육 지원 - 대학생 및 성인 마약류 중독예방교육 지원
대전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폐해예방캠페인-'4대중독ZERO, 회복의HERO', 2) 중독폐해예방교육, 3) 중독예방교육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마약중독예방 OX 퀴즈 캠페인, 2) 약물중독예방교육, 3) 실무자 교육, 4) 마약류 중독 회복프로그램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마약류중독예방교육(집합교육 또는 방송교육), 2) 재활 상담(마약 중독치료)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사랑나눔" 사업, 2) 2024년 중독예방 캐릭터 네이밍&스토리라인 및 슬로건 공모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 중독폐해 예방교육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아동, 청소년 예방교육사업/직장인 중독폐해

구분	기재된 프로그램
	예방지원사업/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가상현실 VR체험관(알코올, 약물 중독 치료), 2) 중독예방교육(초중고, 성인 유관기관), 3) 청년 약물중독관리 사업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마약중독예방 캠페인, 2) 마약중독예방 교육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폐해예방 교육, 2) 중독폐해예방 캠페인, 3) 마약예방 사업(학교교사대상 마약 강좌, 수원보호관찰소 마약폐해예방 업무간담회)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청소년 약물(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2) 대안활동프로그램, 3) 여가활용 프로그램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마약류 문제 이해 교육,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2) 예방 활동: 대학생예방활동단 '영프로'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약물 수강 프로그램(보호관찰소 위탁 프로그램)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2024년 마약중독예방 세미나 [마약톡톡 - with 천안], 2) 마약중독예방교육(유치원, 청소년), 3) 중독 ZERO 희망 ON 대학교 캠페인
아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지원사업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2) 중독질환 편견 해소 및 중독예방 인식증진, 3) 중독예방 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목포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생애 주기별 중독예방교육, 2) 지역사회 중독 관련 자문, 3) 캠페인, 홍보부스 설치 운영
여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 2) 중독 조기발견 및 개입 서비스, 3) 중독대상자 관리 사업, 4)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마약 및 약물 중독 관련 사업 찾을 수 없음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예방교육, 2) 중독예방캠페인, 3) 홍보사업, 4)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폐해예방교육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2) 중독예방교육, 3) 청소년 4대 중독예방 교육, 4) 청소년 4대 중독 포스터 공모전
양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1) 청소년 약물 예방 교육, 2)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3) 직장인 중독예방 교육, 4) 지역주민 예방 교육 사업
제주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폐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합계	35개

• 다음은 설문에 응답한 19곳의 답변 내용임.

1)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설립 연도	2008년
	2. 직원 수	정규직 6명 (상근 5명, 비상근 1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회복프로그램: 중독회복일지 2) 특별프로그램 '새롭게 바뀌는 중독에 대한 시선', 약물 사용 장애' 사업 1), 2) 프로그램 모두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1) 보호관찰소 2) 구치소 마약 수형자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4. 3-1.사업 시행 연도	1) 보호관찰소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2022년 2) 구치소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2023년
	4-1. 3-1.사업 인원 구성	5명, 정규직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보호관찰소, 구치소 마약 수형자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정신건강전문요원 4명 (중독전문사회복지사 1명, 마퇴본부 재활강사 1명, 마퇴본부 예방재활강사 4명, 사회복지학 전공자 1명)
--	--------------------	---

2)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2년
	2. 직원 수	14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예방사업
	4. 3-1.사업 시행 연도	1)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003년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예방사업: 2015년
	4-1. 3-1.사업 인원 구성	1)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4명, 정규직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예방사업: 6명, 정규직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1)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사회복지학 전공자 4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예방 사업: 사회복지학 전공자 6명(정신건강사회복지사 2명 포함)	
* 기타 사항	전화로 물어보았을 때, 마약 관련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알코올 중독만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는 식으로 응답함.	

3) 사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13년
	2. 직원 수	- 정규직 직원: 4명 - 계약직 및 기타 직원: 2명 (비상근 센터장 1명 포함)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약물 중독예방교육 2)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진행 중임. - 유아동대상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마약류 관련 특화적 사업은 미진행, 중독조기발견사업에서 전화 또는 내소 상담 진행 중에 있음.
	4. 3-1.사업 시행 연도	201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 전환 이후 부터 진행함.
	4-1. 3-1.사업 인원 구성	마약을 비롯한 4대 중독 관련 상담은 전직원 가능하나 되도록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투입되고 있음.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4)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0년 8월 17일
	2. 직원 수	- 정규직 직원: 3명(센터장 포함) - 계약직 직원: 1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마약 관련 포함) 2) 중독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마약 관련 포함) 1), 2) 모두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해당 없음.
	4. 3-1.사업 시행 연도	해당 없음.
	4-1. 3-1.사업 인원 구성	해당 없음.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해당 없음.

5) 인천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14년
	2. 직원 수	- 비상근 1명 - 상근 4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중독예방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진행 중임. 초중고등학생 대상 예방교육만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없음.
	4. 3-1.사업 시행 연도	해당 없음.
	4-1. 3-1.사업 인원 구성	해당 없음.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해당 없음.

6)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8년 5월 25일
	2. 직원 수	- 무기계약직: 5명 - 비상근 센터장: 1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청소년 골키퍼 2) 아동청소년 4대중독예방교육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뇌로 성장하기" 1), 2) 모두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청소년 골키퍼 사업
	4. 3-1.사업 시행 연도	2024년
	4-1. 3-1.사업 인원 구성	1인, 무기계약직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사회복지학전공자 1명

7)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8년 12월
	2. 직원 수	5명(정규직으로 보고 있으나 위탁기관 절차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장 중임)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NO,마약 건강한 일상을 위한 레인보우 챌린지':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6월 한 달 진행하는 온라인 캠페인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청년 중독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2022년 하반기 부터 15-39세 마약문제가 있는 당사자나 가족 대상의 상담, 집단 운영을 하고 있음. 집단은 초창기에는 운영이 되었으나 재발 등의 이유로 현재는 같은 시간에 모이기가 어려워 개별 개입으로 진행 중 임.
	4. 3-1.사업 시행 연도	2022년 하반기
	4-1. 3-1.사업 인원 구성	2명이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 그 일만 전담하지는 못함. 다른 일도 겸해서 진행하고 있고, 청년중독사업 해당 TO는 한 명임. (임시직 직원은 없음.)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사회복지 + 임상심리 자격증 보유 1명	

8) 광주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1년 8월 11일
	2. 직원 수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규직 없음. - 모두 계약직: 8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마약예방교육(학교 포함) 2. 4대 중독예방캠페인'- 진행 여부에 대해 미응답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활동
	4. 3-1.사업 시행 연도	2022년도부터 중,고등학생 대상 시작함.
	4-1. 3-1.사업 인원 구성	마약예방교육사업 - 직원 8명 모두 진행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마약예방교육사업 - 간호사: 1명, 사회복지전공자: 7명	

9)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1년
	2. 직원 수	- 정규직: 4명(실무자 3명, 센터장 1명) - 풀타임 계약직(공모사업 수행 인력): 1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회복이음 아카데미(마약류중독 상담 역량강화교육)	

		2) 마약류중독예방 캠페인 '마약 나쁘(Not four)! 예방 예쁘(Yes four)!' 1), 2) 모두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마약(약물류)중독예방 교육 사업
	4. 3-1.사업 시행 연도	2023년 ~ 2024년 사업
	4-1. 3-1.사업 인원 구성	1) 회복이음 아카데미(마약류중독 상담 역량강화교육) - 정규직 1명 2) 마약류중독예방 캠페인 '마약 나쁘(Not four)! 예방 예쁘(Yes four)!' - 정규직 1명 3) 마약(약물류)중독예방 교육 - 정규직 1명 ** 담당자는 예방홍보팀 1명이 맡아서 진행 중이며, 행사 당일에는 실무자 여러 명이 유동적으로 함께 수행하고 있음.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전문 자격 없음 - 상담 및 임상심리학 전공자: 1명

10) 유성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성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22년 12월
	2. 직원 수	- 정규직: 4명 - 비상근: 1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마약류 중독강의 2) 마약류 사범(기본)심리치료 프로그램 ('동기강화 집단프로그램') 1), 2) 모두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마약류 사용자 개별상담
	4. 3-1.사업 시행 연도	해당사업 전체 : 2023년부터 진행함. 1) 마약류 중독 교육사업 : 정규직 3명, 비상근 1명 2) 동기강화 프로그램 : 정규직 3명, 비상근 1명 3) 마약류 사용자 개별상담 : 정규직 4명
	4-1. 3-1.사업 인원 구성	1) 마약류 중독 교육사업 :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 2명, 사회복지사(마약퇴치운동본부 근무경력자) 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2) 동기강화 프로그램 :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 2명, 사회복지사(마약퇴치운동본부 근무경력자) 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3) 마약류 사용자 개별상담: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 2명, 사회복지사(마약퇴치운동본부 근무경력자) 1명, 사회복지사 1명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 2명, 사회복지사(마약퇴치운동본부 근무경력자) 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3) 마약류 사용자 개별상담: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 2명, 사회복지사(마약퇴치운동본부 근무경력자) 1명, 사회복지사 1명	

11)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5년
	2. 직원 수	- 정규직: 16명 - 계약직 및 기타 직원: 2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청소년 보호자 대상 교육(약물) 2) 청소년실무자교육 (마약 관련) 3) 중독예방캠페인(마약 관련) 4) 중독예방사생대회(B급 중독예방사생대회) 모두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음.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없음.
	4. 3-1.사업 시행 연도	중독예방및 홍보사업 - (2010년) 마약류 사업에 한정하지 않음. (알코올, 도박, 약물 등에 대해 진행 중임.)
	4-1. 3-1.사업 인원 구성	중독자 예방사업 - 정규직 7명, 임시직 1명 중독예방 및 홍보사업 :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정신건강사회복지사 4 ,간호사1명, 사회복지사 2, 작업치료사 1

12)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6년
	2. 직원 수	- 정규직: 5명 - 비상근: 1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상담(마약관련) - 마약 상담 진행하지 않음. 2) 중독재활지원사업(마약관련)- 마약재활사업 안함. 3) 중독예방사업(마약관련)- 약물 예방교육 실시함.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학교 순회 약물 예방교육
	4. 3-1.사업 시행 연도	약물예방교육사업은 2003년도부터 하고 있음.
	4-1. 3-1.사업 인원 구성	예방교육 인원 - 정규직 2명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예방교육에 투입된 인력은 2명 - 2명 모두 사회복지학 전공

13)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20년
	2. 직원 수	- 비상근 센터장 포함: 5명 - 정규직: 4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마약 및 약물오남용예방 영상공모전, 2)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업재활 프로그램, 3) 중독세미나, 4) 중독예방교육, 5) 마약예방교육 - 1번만 진행 중임. 2번은 마약관련 아니라 알코올중독 관련 재활프로그램이었음. 4번은 비정기적으로 교육 요청시 단회성 진행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없음
	4. 3-1.사업 시행 연도	3번의 경우 캠페인성 사업으로 단회성임.
	4-1. 3-1.사업 인원 구성	중독폐해예방캠페인- 정규직: 1명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4)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5년 - 춘천알코올상담센터로 개소되어 2014년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관명 변경 및 기능확대 되었음.
	2. 직원 수	총 7명(상근센터장을 포함한 인원, 정규직) 1) 마약중독예방 청년활동단 '마약방범대', 2) 청소년약물오 남용예방교육, 3) 마약중독예방 메타버스 캠페인' 사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2), 3) 모두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1) 마약중독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사업 2) 춘천지방법원 보호관찰소에서 위탁한 마약사범에 대한 단약 상담
	4. 3-1.사업 시행 연도	2022년 하반기 준비하여 2023년부터 마약중독예방 사업 시작
	4-1. 3-1.사업 인원 구성	정규직 1명(마약방범대는 관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 진행하고 있음)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간호사 2급

15)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2년
	2. 직원 수	- 정규직: 6명 1) 중독예방교육(약물 및 마약관련) 2) 상담(마약)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2) 모두 진행 중임. (4대 중독 모두 가능하며 요청에 따라 운영. 다만, 알코올중독예방교육이 메인 교육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청년중독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 중임.

		1) 애디렌 사업 (지역 내 대학을 중독예방선도대학 선정 후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내 편의점 및 카페를 중독검진업체로 선정 운영하는 사업) 2) 마약중독예방 공모전 등
4. 3-1.사업 시행 연도		2023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2024년부터 확대 운영 중 임.
4-1. 3-1.사업 인원 구성		- 정규직: 1명(사례관리 및 홍보 사업 함께 진행)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청년중독예방사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기타 자원 활용)

16)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23년
	2. 직원 수	- 비상근: 1명 - 상근직: 5명 (계약직)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중독예방사업(약물 및 마약관련) 2)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조성사업 1), 2) 모두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중독관리사업
	4. 3-1.사업 시행 연도	중독관리사업-2023년
	4-1. 3-1.사업 인원 구성	1) 중독관리사업 2명 2) 중독예방사업 2명 3) 지역사회 안전망조성사업 1명(팀장) 1), 2), 3) 모두 계약직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중독관리사업 총 2명(정신건강사회복지사 2명, 중독전문사회복지사1명), 중독예방사업 2명(사회복지사 2명), 지역사회 안전망조성사업 1명(팀장-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총괄 센터장 1명(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7)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10년
	2. 직원 수	- 센터장(비상근) 포함: 5명 - 정규직: 4명 - 기타(비상근): 1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기타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약물 및 마약류 관련)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없음.
	4. 3-1.사업 시행 연도	2014년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름이 변경되면서 4대

		중독업무가 시작됐음.. 2015년도부터 4대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은 시작되었음. 약물교육은 수요가 적은 편이었고, 2000년도부터는 수요가 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약물교육 신청이 다른 중독보다 많은 편임.
	4-1. 3-1.사업 인원 구성	생애주기별 중독교육 사업 (청소년) 4명 정규직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생애주기별 중독교육 사업 - 정신건강사회복지사(+중독전문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지학전공자(중독전문사회복지사 수련 1명) 2명, 경상남도교육청 마약중독예방강사과정 수료 3명

18)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3년
	2. 직원 수	계약직 및 기타 직원: 5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아동·청소년 예방교육사업(마약관련) 2)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지원사업(마약관련) 3)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마약관련) 4)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마약관련) - 모두 미응답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예'라고 응답함.
	4. 3-1.사업 시행 연도	마약류 관련 사업을 진행 하기에는 인원이거나 역량 부족한 상태라 최소 할 수 있는 예방교육 캠페인 진행 하고 있음.
	4-1. 3-1.사업 인원 구성	부분부분 진행 하고 있음.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간호사

19)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03년
	2. 직원 수	6명(계약직 6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중독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중독폐해예방교육 주민교육(마약 관련) 및 "마약 중독예방교육(청소년)"을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미응답
	4. 3-1.사업 시행 연도	미응답
	4-1. 3-1.사업 인원 구성	1) 중독관리사업(알코올, 약물): 5명(계약직) 2) 청년중독관리사업(인터넷 스마트폰과의존사업, 도박사업):1명(계약직)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간호학과 전공

2. 지역별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이메일 주소: os2333@seoul.go.kr)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홈페이지에 마약류 관련 프로그램으로 <마약사범 대상 중독재활 프로그램>, <중독전문 통합재활 프로그램(갈망조절, 정서관리, 사회기술, 마음챙김, 퇴원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통화를 하였을 때, 전공의 파업으로 마약류 전담 치료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함. 통화 후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하였음.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메일 주소: ggmhc@hanmail.net)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사례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이 기재되어 있음. 전화를 통해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하였음.

○ 부산의료원 (*이메일 주소: pharmgreen@busanmc.or.kr)

- 부산의료원 홈페이지에 <지역사회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재활의료 및 지속적 협력사업)>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전화를 통해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하였음.

○ 부산시립정신병원 (*이메일 주소: dajeong6262@hanmail.net)

- 부산시립정신병원은 총 2회 전화하였으며, 통합재활팀 담당자와의 연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사를 보임. 통화 당시 설문 대상이 마약류 관련 담당자 대상인지 물어보고,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는지 질문 받았음.

부산시립정신병원	이메일 회신 여부(Y/N)	Y
	설립 연도	2010년
	2. 직원 수	- 정규직 직원 : 71명 - 계약직 및 기타 직원 : 20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 낮병원(데이클로버: Day Clover) 2) 병동재활프로그램 1), 2) 모두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4. 3-1.사업 시행 연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023년 11월
	4-1. 3-1.사업 인원 구성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정규직 2명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사회복지학전공자 1명
	5. 병상 수 현황 및 최근 경향	2024년 현재 8개의 병상 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입원한 환자는 없음. 병상수는 충분한 편이며 부족하였던 적은 없음. 사용된 병상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대구의료원

- 대구의료원 홈페이지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총 세 차례 부서별로 통화하였으나, 전담 부서를 잘 모르겠으니 다시 통화해달라고 하며 이메일 주소를 받지 못하였음.

○ **대동병원 (※이메일 주소: ddhosp93@naver.com)**

- 대동병원 홈페이지에 전문프로그램으로 <약물그룹(매주 화요일 14:30-15:30)>, <CRCT(조건반사제 어법)(매주 월요일 16:00-17:00)>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정신건강전문 부서로 통화하였으며, 담당자 부재로 담당자께 설문에 관해 안내해두겠다고 하였음. 이메일 주소를 전달 받았으며, 설문 응답을 독려했으나 응답 받지 못하였음.

○ **인천광역시의료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정신과 낮병동(약물관리)>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인천광역시의료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정신건강의학과로 전화 연결해달라고 하였으나 전문상담원이 전화 목적을 듣고 진료과가 바빠서 연결 해주기 어렵다고 응답함. 병원 대표 이메일 주소는 공개해줄 수 없으며, 공문만 따로 받고 있어서 응답하기 어려운 의사를 표함. 통화 종료 전 마약류 관련 환자 치료 현황을 물어보니 진료는 받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음.

○ **인천참사랑병원**

- 인천참사랑병원 홈페이지에 <참사랑 클리닉(마약중독)>, <중독가족 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인천참사랑병원 낮병동 대표번호로 통화하였으며, 중독재활담당부서로 통화 연결함. 그러나 담당자 부재중이라 다시 전화 해주기로 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함. 따라서 이메일 주소를 받지 못해 설문지 응답을 받지 못하였음.

○ **광주시립정신병원 (※이메일 주소: 9495250@naver.com)**

- 광주시립정신병원 홈페이지에 <집단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두 차례 통화 끝에 설문 목적을 전달하여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으나, 설문지 응답을 받지 못하였음.

○ **참다남병원 (※이메일 주소: cero_sir@naver.com)**

- 참다남병원 홈페이지에 <재발방지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설문 목적 설명 후,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답변을 회신받지 못하였음.

○ **마인드병원 (※이메일 주소: mind6550@naver.com)**

- 마인드병원 홈페이지에 <낮병원 치료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설문 목적 설명 후,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답변을 회신받지 못하였음.

○ 마더스병원

- 마더스병원 홈페이지에 <약물 중독 클리닉>,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마더스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결해달라고 하였으나, 연결 이유를 물어봄. 설문 목적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오후 시간 동안 이에 응답해줄 수 있는 인력 및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였음. 설문에 관해 이메일로 설명드릴 것을 말씀드렸으나 병원 메일 주소가 없다고 응답을 거부함. 통화 종료 전 마약류나 약물중독 환자 치료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치료 진행 중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음.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홈페이지에 <의료사회 복지사업>, <상담과 약물치료 및 정신사회재활치료>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통화를 이틀 나누어 세 차례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서 설문을 진행하기 어려웠음.

○ 용인정신병원 (※이메일 주소: admin@yonginmh.co.kr)

- 용인정신병원 홈페이지에 <집단치료프로그램: 중독교육>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설문 목적 설명 후,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답변을 회신받지 못하였음.

○ 계요병원 (※이메일 주소: admin@yonginmh.co.kr)

- 계요병원 홈페이지에 치료프로그램인 <증상관리프로그램>, 중독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료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계요병원 원무과로 통화하여 설문 목적을 설명한 후, 재활정신과로 통화 연결하였음. 재활정신과 담당자에게 설문 목적 설명 후,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답변 받지 못하였음.

○ 국립춘천병원 (※이메일 주소: kmk65@korea.kr)

-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에 재활프로그램으로 <정신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정신건강과 의료행정팀 대표번호로 전화하였을 때, 1회 전화를 받지 않았음. 이후 의료행정팀 두 번째 대표번호로 통화하였음. 설문 목적에 관해 설명한 후, 담당자는 메일 내용을 판단한 후 응답하기로 하였음.

국립춘천병원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1992년
	2. 직원 수	- 공무원: 103명 - 비공무원: 53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재활프로그램인 1) 정신재활프로그램, 2)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모두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없음.

	4. 3-1.사업 시행 연도	해당 없음.
	4-1. 3-1.사업 인원 구성	해당 없음.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해당 없음.
	5. 병상 수 현황 및 최근 경향	0개 병상,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자원 부족으로 병상 운영 어려움.

○ 청주의료원

- 청주의료원 홈페이지에 <지역사회 의료지원 사업>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두 차례 통화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설문 진행하기 어려웠음.

○ 국립공주병원 (※이메일 주소: kh1209@korea.kr)

-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에 <재활치료서비스>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홈페이지에 중독정신과 대표번호가 없어서, 정신재활치료과 담당자와 통화하였음. 국립공주병원은 마약류 담당 부서는 없는 상황이며, 마약류 환자를 따로 받지 않지만 응답해도 괜찮은지 질문함. 이후 의료행정부서와 통화하여 설문지 응답 받음.

국립공주병원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1998년
	2. 직원 수	- 공무원(정규직): 121명 - 공무원 및 기간제: 53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재활치료서비스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4. 3-1.사업 시행 연도	2010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4-1. 3-1.사업 인원 구성	일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동일하게 진행, 각 인원은 정규직으로 아래 4-2와 같음.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4명 - 병동 간호사 20명 - 임상심리사 1명
5. 병상 수 현황 및 최근 경향	- 현재는 외래진료 위주로 치료 중, 현재 마약류 중독자 입원환자는 없음. 과거 5년간 입원 치료 실적은 0건으로 병상수는 부족하지는 않음. - 지정 병상 2개 병상도 마약류 중독자 전용이 아님.	

○ 원광대학교병원 (※이메일 주소: wkuhna@wkuh.org)

- 원광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마약류 치료, 재활 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약물중독 치료 전담 의사가 따로 있음. 관련 프로그램은 담당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낮 진료만 하고 있어 마약류 관련 부서로 전화 안내 받음.

원광대학교병원	이메일 회신 여부(Y/N)	Y
	1. 설립 연도	2024년 3월

2. 직원 수	- 계약직 : 사회복지사 1명 - 참여인력 : 전문의 3명, 간호사 2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마약류 치료, 재활 프로그램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1) 권역마약류치료보호기관 홍보사업 2) 재활프로그램
4. 3-1.사업 시행 연도	1) 권역마약류치료보호기관 홍보사업: 2024.03. 실시 2) 재활프로그램:2024.08. 실시 예정
4-1. 3-1.사업 인원 구성	- 계약직 : 사회복지사 1명 - 참여인력 : 전문의 3명, 간호사 2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명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 전문의 3명 - 정신건강전문요원 4명 (사회복지 2명, 간호 1명, 임상심리 1명) - 간호사 1명
5. 병상 수 현황 및 최근 경향	2024년 현재 최대 10개 병상 이용 가능

○ 신세계병원 (※이메일 주소: ssg5458700@daum.net)

- 신세계병원 홈페이지에 <마약류 중독>, <(중독질환교육, 사회재활훈련, 동기강화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치료레크레이션, 치료공동체모임 등의) 재활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신세계병원 원무과로 전화하여 설문 목적을 설명한 후, 관련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하였으나 약물중독 관련 부서는 따로 없다고 응답함. 공문만 먼저 팩스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쭙보았으나, 메일 주소를 받아서 공문과 설문지를 전달하였음. 그러나 회신받지 못하였음.

○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이메일 주소: ekskdms7110@daum.net)

-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홈페이지에 <치료 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중독재활치료센터로 전화하였으나, 담당자는 따로 없는 상태라며 원무과로 통화 연결하였음. 그러나 원무과에서는 약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 약사(063-240-2139)와 통화하였음. 이메일 주소를 받아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답변을 회신받지 못하였음.

○ 국립나주병원 (※이메일 주소: jsa7496@korea.kr)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에 <마약류중독전문클리닉: 연계프로그램(외래기반 1:1 맞춤형 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설문 목적에 관해 세 차례 설명 후,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설문 응답을 받음. 정신재활치료과 간호사와 전화한 후, 정신재활치료과 팀장에게 설문 목적을 설명함. 이 부서로 연락한 방법과 식약처로부터 따로 명단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음. 이후 담당부서인 의료행정팀으로 전화하였으며, 담당자 출장 중이라 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설문 응답을 받았음. 메일 대신 온 나라 문서 시스템으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였음.

국립나주병원	이메일 회신 여부(Y/N)	Y
	설립 연도	1983년
	2. 직원 수	- 정규직 183명 - 공무직 50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마약류중독전문클리닉: 연계프로그램(외래기반 1:1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없음.
	4. 3-1.사업 시행 연도	'마약류중독전문클리닉: 연계프로그램(외래기반 1:1 맞춤형 프로그램): 2023년 11월 개시
	4-1. 3-1.사업 인원 구성	정규직: 3명(프로그램 진행자)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5. 병상 수 현황 및 최근 경향	현재 중독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기관사정) 추후 인력확보 등 여건이 마련되면 병동을 운영할 계획임.	

○ 포항의료원

- 포항의료원은 홈페이지에 마약류와 관련한 사업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정신건강의학과로 전화 하였으나 설문조사 응답 거부 의사를 밝힘. 마약류 환자가 없으며, 최근 6년 동안 치료하지 않음. 응답자는 포항의료원 과장(2명)으로부터 향후 마약류 환자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설문 응답을 거부함.

○ 국립부곡병원 (※이메일 주소: min41979@korea.kr)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에 <치료재활프로그램>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대표번호로 통화하여 마약류 전문 담당 부서 번호(055-520-2654)로 통화 연결 받아 진행하였음.

국립부곡병원	이메일 회신 여부(Y/N)	Y
	설립 연도	1988년
	2. 직원 수	- 정규직: 185명 - 계약직 및 기타: 58명
	3. 기재된 프로그램 진행 여부	치료재활프로그램(마약 관련) 진행 중임.
	3-1. 이외 '마약류' 관련 사업 현황	치료보호사업
	4. 3-1.사업 시행 연도	1997년
	4-1. 3-1.사업 인원 구성	- 정규직: 16명 - 계약직: 3명
	4-2. 사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의사(전공의) 2명, 전문의 1명,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6명, 행정(간호학 전공) 2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5. 병상 수 현황 및 최근 경향	10개 병상 내외 사용, 사용 병상 수 비슷함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음.	

○ 양산병원 (※이메일 주소: sing0612@naver.com)

- 양산병원 홈페이지에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에 관해 기재되어 있음. 재활센터

와 통화하였을 때, 마약류 관련 환자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설문 목적을 전달한 후, 이메일로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하였음.

○ 연강병원

- 연강병원은 홈페이지에 따로 기재된 내용이 없었음. 원무과로 전화하여 담당 부서로 전화 연결 받았으나 회의 중으로 다음날 회신받음. 연강병원은 최근에 지역별치료보호기관 지위를 취소한 상태이며, 현재 마약류와 관련하여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 따라서 설문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통화를 종료하였음.